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권 경 숙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학기 중 입학하는 영아들의
초기 적응과정 탐색

2011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전 현 주

학기 중 입학하는 영아들의
초기 적응과정 탐색

권 경 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전 현 주

인 준 서

전현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에서는 학기 중 입학한 만 2세 신입영아가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통해 학기 중 입학영아의 적응 특징과 교사의 전략을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기 중 입학한 영아들의 초기 적응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학기 중 입학한 영아들의 초기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학기 중 입학한 영아들의 초기 적응을 돕기 위한 교사의 전략을 어떠한가?

본 연구 참여자는 학기 중 입학한 영아 3명과 이들의 어머니, 담임교사 2명이다. 문화기술적 연구방법으로 수행된 본 연구에서는 2010년 8월 2일부터 2011년 2월 25일까지 총 30주간 참여관찰을 하였으며 영아의 어머니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초기적응 프로그램의 단계에 따라 범주화하고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라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기 중 입학한 영아들의 초기 적응과정은 어떠한가?

학기 중 입학한 영아의 초기 적응은 오후 개별 적응과정과 오전 일과 적응과정을 통해 어린이집의 전체일과를 부분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보호자와 함께 하는 1, 2단계인 ‘오후 적응기간’ 동안에 영아들은 보호자를 안전기지로 옆에 두고 어린이집 환경을 탐색하였고, 시간의 흐름에 따

라 보호자와의 물리적 거리를 점차 넓혀나가고 보육교사와 애착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3, 4단계에서는 보육교사를 안전기지로 불안을 달렸으며 놀이의 즐거움을 느끼며 또래와 함께하는 일과, 즉 점심과 낮잠을 자는 일과에 적응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으며, 교사는 개별적인 식습관과 수면습관을 인지하고 배려하였다. 5, 6단계 중일반 적응단계에서는 영아는 보호자와 편안하게 헤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또래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활발해지고, 또래와 교사를 놀이에 초대하는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시도하였다. 개인적인 성향을 고려하여 중일반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변형 5, 6단계는 또래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교사가 함께 또래를 관찰하였고 상황에 따라 모델링과 칭찬을 하는 전략을 시도하였다. 이에 또래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보인 영아는 또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친사회적 행동을 보였다.

학기 중 입학한 영아들의 초기 적응을 어렵게 했던 요인으로 동생의 출산, 민감하고 예민한 기질로 인한 부적응에 대한 기억, 함께 놀이했던 또래 친구의 부재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의 임신이나 동생의 출산으로 부모가 양육부담을 겪게 되어 어린이집에 맡겨지는 경우, 영아들은 엄마에 대한 애정과 지지기반을 확인하기 위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며 어린이집 적응을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예민한 기질로 어린이집 부적응 경험이 있는 경우 엄마와 분리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에 적응 초기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새로운 어린이집에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초기 적응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적응을 보였던 영아가 친하게 지내던 또래친구가 퇴소를 하자 등원 거부현상과 놀이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적응 현상을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는 어린이집 적응이란 결과가 아닌 과정이며, 영아의 안정된 적응을 유지시키기 위한 또래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초기적응과정에서 나타난 교사의 역할을 살펴보면 오후의 낮잠 시간 이용하기, 멀리서 미소로 바라보기, 친구 되어 주기, 전폭적인 지지자 되어주기, 친구들과의 디딤돌 역할로 나타났다.

낮잠시간을 이용한 적응시간은 재원아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신규영아가 또래와의 만남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교사는 신규영아들을 집중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어 개별성향을 배려할 수 있게 되어 애착을 형성할 수 있었으며, 주 양육자와 분리를 편안하게 해 주었다. 멀리서 미소로 바라보기 역할은 교사는 영아가 주 양육자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거리를 두고 바라봄으로써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기적응을 돕기 위한 전략에서 친구 되기 역할과 친구들과의 디딤돌 역할은 익숙하지 않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교사가 놀이를 함께할 친구가 되어 주고 또래와의 놀이 세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 영아에게 놀이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고, 적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는 영아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하여 전폭적인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주 양육자와 분리된 영아의 불안감을 인식하고 안전기지로써의 역할을 위하여 교사는 영아의 불안하고 불편한 행동을 이해하고 받아 주면서 영아가 적응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다려 주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4
3. 연구자	5
II. 이론적 배경	8
1. 영아의 발달특성과 분리불안	9
1) 영아의 발달특성	9
2) 분리불안	11
2. 보육시설에서의 적응	13
1) 적응의 개념	13
2)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5
3) 보육시설 적응 프로그램	18
III. 연구방법	27
1. 연구 참여자	27
1) 연구 참여 영아와 어머니	27
2) 참여 교사	31

2. 연구 현장	31
1) 연구대상 어린이집 및 만 2세반	31
2) 만 2세 반의 하루일과	37
3) 연구대상 어린이집의 학기 중 입학 영아의 초기적응프로그램	39
3. 자료 수집	41
1) 참여관찰	41
2) 심층면담	42
3) 기타자료 수집	43
4. 자료 분석	43
IV. 결과 및 해석	45
1. 학기 중 입학한 영아들의 어린이집 적응 과정	45
1) 적응 1단계 : 첫 걸음 내딛기	46
2) 적응 2단계: 또래와의 만나기	49
3) 적응 3단계: 교실에 들어오기	53
4) 적응 4단계: 점심식사 하기	56
5) 적응 5단계: 낮잠 자기	60
6) 적응 6단계: 종일반 적응	66
2. 학기 중 입학한 영아의 초기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	74
1) 가족구성원의 변화: ‘동생이 생겼어요’	74
2) 민감하고 예민한 기질: 부적응에 대한 기억	76
3) 또래친구의 변화	78
3. 학기 중 입학한 영아의 초기 적응을 돕기 위한 교사의 전략	81

1) 오후의 낮잠 시간 이용하기.....	82
2) 멀리서 미소로 바라보기.....	84
3) 친구 되어 주기.....	85
4) 전폭적인 지지자 되어주기.....	87
5)또래와의 디딤돌 역할하기.....	89
V. 논의 및 결론.....	91
1. 요약 및 논의.....	91
2. 결론 및 제언.....	99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중앙보육정보센터 내의 평가인증을 위한 신입원아 적응프로그램.....	24
<표 2> 표준보육과정에 근거한 0세 보육프로그램 안의 적응 프로그램	27
<표 3> 학기 중 입학한 영아의 인적사항.....	32
<표 4 > 만2세 반의 하루 일과.....	40
<표 5> 학기 중 입학 영아의 초기적응 프로그램.....	42
<표 6> 연구대상 영아의 자료수집 기간.....	46

그림목차

<그림 1> 어린이집의 실내환경.....	37
<그림 2> A반 실내환경.....	38
<그림 3> B반 실내환경.....	3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전 세계가 열려 하나로 소통하는 사회 속에서 인간은 늘 변화와 다양성을 받아들이며 적응을 준비해야 한다. 적응은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는 심리적인 작용으로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세상과 적응을 시작하게 되며 적응을 위한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을 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세상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적응의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작용하므로 영유아의 초기 적응은 이후의 인간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영희, 1996; 이선화, 1996). 이는 주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애착으로부터 시작한 신뢰는 보육시설에서의 적응에 이어 학교생활, 사회생활의 적응으로까지 연결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행복한 삶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초기 적응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이다.

영아들이 가정을 떠나 최초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며 그에 따른 분리불안과 적응의 문제를 겪게 되는 곳이 영아보육 기관인 어린이집 경험이다. 특히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취업모의 증가로 인해 영유아들은 좀 더 어린 나이에 어린이집에서 적응을 경험해야만 한다.

보건복지부(2009)의 자료에 따르면 보육아동의 수는 2000년 686,000명에서 2008년 1,135,502로 약 2배 정도가 증가하였고 2009년 12월말 기준 1,175,049명이며 이 중 만2세 이하의 영아의 수는 574,394명으로 전체 보육아동의 약 43.1%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육기관에 맡겨지는 전체 아동 수의 증가와 그 가운데 영아수의 증가가 나타내는 것은 이른 시기부터 영아들이 주양육자인 부모와 떨어져 어린이집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회적 관계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보육시설에서의 적응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보육시설에서의 적응은 영유아 자신의 심리적인 측면인 불안감, 애착상태,

기질 등과 환경적인 측면 즉 교사와 영유아와의 관계, 영유아와 친구들과의 관계, 놀잇감, 그리고 영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시설 사이에서 본인의 생리적 욕구인 식사, 수면, 배설을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이동영, 2009). 성공적인 보육시설 적응은 새로운 환경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으로 이어지고 영아로 하여금 사회생활을 즐기게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수행하도록 자신감을 주며, 자아 존중감, 자기 확신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이현경, 2002). 그러나 보육시설에 적응하지 못하여 퇴소하는 영유아에게는 좌절의 경험이 될 수 있으며 끊임없는 입·퇴소는 교육 분위기의 안정에 방해가 되고 모든 영유아들과 교사들에게도 적응을 위한 큰 부담이 된다(류경, 2000). 실제로 영아가 낯선 환경과 낯선 타인에게 적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영아는 자신의 부모와 떨어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심한 불안 증상을 보이게 된다.

특히 만1~2세 때는 발달적으로 주양육자로부터 분리 개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애착 대상자인 성인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시기이기(장영희, 2000) 때문에 애착대상과의 갑작스런 분리 경험이나 낯선 상황으로의 급격한 변화는 아동의 성장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의 격리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낯선 환경에서 낯선 생활 주기에 적응해 나가는 문제는 이 시기 영아에게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김희진, 김영애, 2008). 이를 위한 프로그램 중 하나가 ‘초기적응 프로그램’이다. 이는 전연 하였듯이 영아가 심리적 정서적 갈등을 최소화 하며 애착대상과의 격리경험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보건 복지부, 1997).

최현자(1994)의 운영보고에 따르면 13~35개월 영아의 퇴소율이 50%이며 이중 부적응 퇴소가 31%로 영아 어머니의 퇴사, 타 기관 이용, 이사 같은 이유보다 부적응으로 인한 퇴소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윤배(1996)도 어린이집 영아의 퇴소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적응이며, 이중 영아의 초기 적응 실패로 인한 퇴소율이 더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현시대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보육기관의 가장 큰 과제는 초기적응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만3세 이상을 교육하는 유치원과는 달리 만1-2세까지의 영아들을 보육해야 하는 보육시설에는 주양육자와의 분리 개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영아들의 초기 적응에 보육교사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김유진, 2003; 이진희, 임진형, 2004). 더욱이 동생의 출산이나 어머니의 직장문제, 조부모의 건강상태, 타 시설에서의 부적응 등으로 인해 영아들의 입학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매달 새로운 신입원아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곤 한다. 이는 안정된 반 운영을 위해서도 학기 중 입학하는 영아를 위한 초기적응 프로그램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초기 적응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많이 언급되었지만 실제로 초기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한 적응시간 동안의 양육자의 참여와 보육교사의 세심한 배려와 노력, 보육시설의 실정에 맞는 초기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영아의 초기 적응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2010)에서는 표준보육과정에 근거하여 개발한 보육프로그램에서 총 4주의 적응기간과 보호자와 함께 오전 일과 보내기, 보호자와 헤어져 오전 일과 보내기, 일과 적응하기(이유식 적응), 일과 적응하기(낮잠), 오후 일과 적응하기, 하루 일과 적응하기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평가인증조력프로그램에서는 1~2주의 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되 영유아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삼성복지재단의 적응 프로그램은 영아와 교사가 점차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구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에 대한 행동모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기 적응 프로그램은 영아의 상태에 따라 귀가시간을 단축하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영아의 적응을 돕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이은경, 2005) 영아들의 적응과정은 개인차가 있어 개인의 흐름에 맞는 적응과정을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는 연구(이유진, 2010)들은 체계적인 적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초기 적응에 관한 연구로는 보육시설의 교사들이 초기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는지,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보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문 조사한 보육교사의 인식 조사 연구가 있으며(김소희, 2006; 김영희, 2003; 박성미 외, 1996; 신현정, 2003), 영유아의 애착 및 기질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애착이나 기질의 정도에 따른 보육시설에서의 적응과의 관계를 조사한 애착 및 기질과의 관련 연구가 있다(김보경, 2004; 김은하; 2003; 오중은, 2001; 이현경; 2002, 전미경, 2003). 처음 부모와 떨어져 낯선 기관에서 적응해 가는 과정은 영아들에게 각각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영아들은 영아 자신의 기질이나 성별, 부모와의 애착이나 부모의 양육태도 등에 따라 적응에 영향을 받으며, 보육시설의 질에 의해서, 또 보육시설에서의 적응 프로그램에 의해서도 적응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적응하는 영아 개인의 개별적 요인들에 관한 연구들은 있지만, 보육시설의 질이나 적응 프로그램 등의 외적 요인들에 의한 적응을 다룬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구수연(2004), 김진아(2004), 류경(2000), 소재진(2006), 송혜진(2007), 신주연(2006) 등의 연구에서 영아들을 대상으로 낯선 환경, 특히 보육시설에서의 적응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으나 실제 보육시설 현장 속에서 영아의 적응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질적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학기 중 입·퇴소가 많은 영아들의 적응문제를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기 중 입학하는 영아들의 적응과정을 구체적으로 관찰한 후 분석하여 영아들이 직면하고 있는 적응 상황을 탐색하고, 적응과정에서 보이는 행동에 대한 분석과 과정의 행동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여 보육교사와 부모가 영아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찾는 데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학기 중 입학한 영아들의 초기적응 과정은 어떠한가?

(2) 학기 중 입학한 영아들의 초기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3) 학기 중 입학한 영아들의 초기 적응을 돕기 위한 교사의 전략은 어떠한가?

3. 연구자

나에게 적응에 대한 관심은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공사에 다니시는 아버님을 따라 이사를 자주하게 되었고, 초등학교시절 네 번의 전학을 거듭 다니면서 늘 새로운 환경과 학교에 적응을 해야만 했었다. 전학으로 인해 늘 학기 중 적응을 해야 했으며, 조용하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적응에 대한 부적응이 표면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심리적으로 늘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주양육자와의 분리로 인해 불안해하는 시기가 아님에도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었다. 학기 중 적응이란 이미 구성된 그들의 세계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었기에 친구를 사귀기 위해, 일원이 되기 위해 나를 접고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했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나만의 적응방법을 찾게 되었고, 마지막 전학을 가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적응하였고 변화하였다. 기억을 되짚어 보면 나에게 적응은 생존이었으며 삶이 되어 버렸다. 아직도 낯선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적응을 위한 행동을 하지만 나에게 새로운 상황에서의 적응이란 늘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이다.

나의 적응과정을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을 때가 친구가 생겼을 때이다. 내가 초등학교시절 학급의 정원은 60명 안팎으로 교사의 배려나 도움은 거의 기대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적응을 해야 했었고, 나는 친구들을 살피면서 등·하교 시 같이 걸을 수 있는 친구들, 함께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친구들, 쉬는 시간에 수다를 떨 수 있는 친구를 만들었을 때 안정을 찾았었다. 친구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과 든든한 지지자였으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지원자였다. 성인이 되어서도 많은 시간의 흐름과 같이 이 모든 기억들은 잊히고 해소되기도 하였지만 일부 힘들었던 측면은 아직도 남아 있는 채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에 의

한 감정의 자투리는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과정을 보면서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나도 이렇게 불안하고 힘이 들었는데 싶어 더 어린 영아들이 견뎌 내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면서도 그들의 불안해하는 울음에 동요되어 같이 안쓰러워하는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현재 E 어린이집의 시설장으로 2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으며, 총 4년의 시설장 경력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영아반 담임 경력을 포함하여 9년의 교사 경력을 가지고 있다. 신입 교사부터 시작하여 원 운영을 담당하는 시설장의 역할을 거치면서 운영자로서의 입장 뿐 아니라 교사들의 입장과 기관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었으며, 보육교사들의 불편과 부모님들의 불편을 충족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특히 더 어린 유아들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교사들의 고충을 이해하게 되었고, 영아들을 관찰하게 되었다. 더 어린 유아인 영아들이 행복한 어린이집 생활을 하게 된다면 부모들은 만족과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부모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사들은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영아들이 행복한 어린이집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이 행복한 곳이어야 하며, 행복한 곳이라는 인식의 시작은 초기적응 기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영아들의 초기 적응에 관심을 가지고 학기 중 변동이 많은 현 어린이집 운영체계를 위한 영아들의 초기적응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신학기가 되면 적응으로 힘들어하는 유아들로 인해 매우 어수선하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영·유아들의 적응문제로 힘들어 하는 교사들을 보았으며, 신학기가 되면 아침마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 속에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되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지내곤 했다. 게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적응에 실패하는 영아들이 생겼으며, 그 이유로 퇴소를 하고, 또 신입영아를 받아 적응을 시도하였다. 때로는 적응이 힘들어 퇴소를 권유하는 경우도 종종 보아 왔다. 그때는 단순히 적응이 쉬운 아이, 적응이 힘든 아이로 분류하여 적응을 아이들의 개인적인 성

항 문제로 보았기에 적응을 힘들어 하는 아이에게 방법을 간구하기보다 울다 지쳐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최선책이었다. 이렇게 적응을 시도한 영아들은 적응기간이 한 참을 지난 후에도 매일 울면서 등원을 했으며, 길게는 1년 내내 울면서 등원을 하기도 하였다. 신입영아들의 적응에 나름대로 교사들이 온 힘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았으며, 서운함마저 엿볼 수 있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오지 않으려 한다는 말을 전해 들으면 내가 무언가 잘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죄책감마저 생겼고, 울며 보채는 아이들을 포기하기도 하였다. 영아들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들이 한 번씩은 겪었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육교사로서의 자긍심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교사들 또한 영아들을 관찰하고 연구하기에는 온종일 많은 잡무들과 영아들을 보육함에 지쳐 있었다.

지금도 내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 상담을 문의하는 영아들의 일부는 다른 어린이집에서 부적응으로 인하여 퇴소한 경험으로 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지금은 잘 적응하고 있지만 재원아 중에도 있다. 또한 입학한지 1년 이상이 지나고 모든 적응이 끝난 것 같아 보이는 아이들 중에 다른 아이들이 너무도 좋아하는 외부강사의 수업시간에 울어 버리거나, 어떤 이유에선지 어느 날 갑자기 점심식사시간만 되면 울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또한 또래들하고는 말도 잘하고 집에서는 이야기를 잘 하는 아이가 교사와는 절대 대화를 하지 않으며, 생리현상이 있을 경우 말을 하지 못해 옷에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아직도 이 아이는 교사의 배변지도 시간에만 화장실에 간다. 그렇다고 이런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 오기 싫어하거나 재미없어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성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불안함이 조금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영·유아들의 감정이나 느낌을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주 느리더라도 조금씩 변화될 수 있도록 배려와 노력을 멈출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영아들의 세계, 언어적 표현이 자유롭지 않기에 세심한 관찰만이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며 영아 중심의 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영아의 발달특성과 분리불안

1) 영아의 발달특성

영아기는 인간발달의 여러 영역에서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영아기는 뛰어 다닐 수 있을 만큼 빠른 속도로 신체발달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가능할 만큼 언어능력도 발달한다. 또한 이후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 부모와의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할 뿐 만 아니라 인지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 여러 감각기관들의 자극이 필요한 시기이다(정옥분, 2007). 영아는 대소변 가리기, 스스로 먹고 옷 입기 등 생활관리 능력이 습득되면서 자기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부모로부터 격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부모 외의 교사나 다른 성인에게도 애착이 확대될 수 있다. 이 시기에 일상적인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양육자가 격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며 연습할 기회를 줌으로서 자율성도 신장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관리를 할 수 없는 영아에게 성인이 대신 해 주거나 잘못하는 것을 지나치게 꾸짖고 처벌하면 영아는 수치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없는 어린이로 성장하게 된다(홍윤정, 2004). 그러므로 영아기에 학습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능력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첫 대인관계와 신뢰성을 확립해야 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더불어 생활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아들을 먹이고, 씻기고, 잠재우며, 안정하게 보호하는 것만으로 불충분하다. 즉, 사랑받고 싶고,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욕구를 충족 시켜 주어야 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성은숙, 2008).

영아는 여러 발달 영역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분화되지 않고 대근육, 사회정서, 의사소통, 인지 등 발달의 제반 영역이 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발달영역을 분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장혜성, 서소정, 하지영,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발달 영역을 신체발달, 언어 및 인지발달, 사회정서발달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영아기는 신체발달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데 키와 몸무게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걷기가 시작되면서 혼자 걷고,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게 된다. 1세가 되면 안정적으로 걷게 되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계단을 올라갈 수 있다(이영석, 1998). 그러다가 2세경이 되면 성장 속도가 완만하게 되고 균형을 잡는 능력이 길러지면서 1세보다 더욱 안정적으로 걷기를 할 수 있고 계단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다. 영아의 치아성장은 생후 6개월에 아래 앞니부터 젓니가 나기 시작하여 1년이 되면 6~8개의 앞니가 나고, 24~30개월이 되면 20개의 젓니가 모두 나게 된다. 생후 6~7개월이 지나 대소변을 통제하는 근육이나 신경이 발달하며 대변은 약 13~15개월이면 가리게 되고, 소변은 20개월 정도가 되어야 가릴 수 있다. 뇌의 발달 또한 영아기는 급속도로 발달한다. 출생 시 뇌의 무게는 평균 300~400g 으로 성인 뇌 무게의 1/4이나 2세경이 되면 성인 뇌 무게의 3/4에 이르고, 5세경에는 90%에 달한다. 소근육 발달은 생후 5개월에 초보적인 시각과 운동 기능간의 협응이 가능해지면서 1세경이 되면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물체를 잡을 수 있고 첫돌이 지나면 자기에게 던져지는 물건을 제대로 잡을 수 있게 된다. 1세 후반에는 작은 사물도 잘 다루게 되며 전화다이얼을 돌리거나 블록을 2-3개 정도 쌓는 등의 소근육발달이 점차 정교하게 된다. 눈과 손의 협응력이 발달하여 간단한 물체를 끼우거나 뺄 수 있고, 물건을 쥐었다 놓는 것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며 2세부터는 단추를 끼우거나 지퍼를 올리고 내리는 것 등의 소근육조절이 더욱 정교해진다(이영석, 1998).

영아의 인지발달을 위해서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촉각적 자극이 필요하며, 특히 언어적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언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과의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의사소통하는데 이 때 영아는 보호자로부터의 접촉과 애정적인 의사소통을 요구한다. 영아는 단어 자체가 아니라 말의 리듬, 고저, 강세에 따라 반응하며, 이

를 통해 상대방의 말에 감정적인 단서를 알아차리고 화난 목소리가 나면 행동을 멈추고 다정한 목소리에 대해 반응을 보인다. 생후 1년경이 되면 영아는 단어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한 단어 문장을 사용하는데 주로 ‘엄마’, ‘아빠’, ‘맘마’, ‘멍멍’, 등이며 부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얼굴표정이나 몸짓을 함께 사용한다. 또한 이 시기 영아는 평균 10개 정도의 어휘를 습득하게 되고, 발달이 빠른 영아들은 두 낱말로 이루어진 어구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곽금주, 김민화, 한은주, 2004). 18개월에서 24개월경에는 영아는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연결시켜 사용하는데 ‘엄마 맘마’, ‘엄마 꼬자’ ‘예쁜 눈’ 등 두 단어 문장을 사용하며 두 단어 가운데 강세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바를 강조하게 된다.

1세가 되면 영아의 사회적 반응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구분이 분명해지고, 양육자와의 관계도 더 깊어져서 양육자 외에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나 관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곽금주 외, 2004). 또한 자아인식이 강하게 나타나 타인과의 구분이 명확해지면서 타인과의 독립적인 존재로 행동하게 된다. 영아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얼굴표정, 몸짓, 언어 및 놀이 등으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기도 한다. 6개월경부터 영아는 행복하게 미소 짓고 찡그리고 화내는 얼굴을 구분하며 다른 사람의 정서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엄마와 타인을 구분하게 되며 엄마에 대한 애착이 형성된다. 애착은 영아기에 가장 중요한 발달과제로 이를 통해서 대인관계의 기초적 신뢰를 만들어 가게 된다. 1세 말경에는 기본적인 정서가 형성되고 수치심이나 자부심과 같은 자신을 인식하는 정서가 생기게 된다. 2세경이 되면 영아는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고 성인에게서 볼 수 있는 모든 정서 즉, 분노, 공포, 기쁨, 울음, 웃음, 애정 등이 나타난다. 이 때 엄마와 영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영아에게 필요한 것이 충족되어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여 기쁨을 느끼므로 이후 인지, 정서, 사회성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영아기의 발달은 신체발달, 언어발달, 사회정서발달 등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즉 사회적 과정이 인지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인지적 과정이 사회 정서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신체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서로 밀접한 관계로 얽혀 있다(정옥분, 2007). 따라서 영아의 발달은 한 영역의 발달이나 경험만을 강조해서는 바람직한 성장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영아를 둘러싼 주양육자와 교사는 영아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초기적응 기간 동안 발달에 맞는 놀이를 계획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영아의 정서적인 심리상태를 이해하며, 영아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여 영아의 안정적인 적응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김지수, 2008).

2) 분리불안

분리불안이란 부모·자녀관계의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부분이며 건강한 애착관계의 지표로 어머니와 떨어짐으로서 갖는 불안을 반영하는 불유쾌한 감정상태, 행동을 뜻한다(김지은, 2006).

Bowlby는 분리불안을 영아가 어머니에게 가까이 가지 못할 때에 생기는 공포반응으로 보고 있다. 영아가 어머니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분리불안은 영아와 어머니 사이에 애착이 형성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다. 영아들이 어머니와 떨어져서 보육시설에 등원하게 될 때 적응하기 전까지는 어머니와의 분리에 대해 불안해하고 저항하려는 반응들이 나타나게 된다. 애착관계와 분리불안은 유아가 갖는 최초의 애착대상인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감정으로 성장 후 모든 애정, 대상관계의 원형이 되는 것으로 인간발달에서 중요한 초기 경험으로 인식되었다(Bowlby, 1973; 김민지, 2000, 재인용).

보육시설에 처음 입학 한 영유아들은 적응하기까지 매일 어머니와의 격리를 불안해한다. 어머니와의 분리불안은 애착 대상과 이별할 때 경험하는 불안으로 애착이란 영아와 보호자 사이에 형성되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어머니와의 계속된 상호작용을 통해 애착관계를 형성하며 출생 후 6, 7개월을 전후로 형성되는 영아와 양육자 간의 정서적 유대

이다. 이 기간에 형성된 양육자와의 신뢰감은 영아의 탐색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성장 후의 대인관계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처럼 영아들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애착의 형성이다. 영아기의 사회 정서적 발달은 바로 안정적이고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insworth 등(1978)은 애착을 영아가 특정인과 형성하는 강한 정서적 유대로 정의하였고, Papalia(1989)는 애착이란 모든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분되어 특별히 두 개인 간에만 형성되는 능동적, 애정적, 상호작용적 관계라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영아는 자신을 돌보아 주는 주양육자와 특별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Ainsworth 등(1978)은 이러한 애착 발달에 대해서 4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제 1단계는 최초의 애착 이전단계로 영아가 다른 사람들과 양육자를 구별할 수 있기 전까지로 태어나서 몇 주간 지속된다. 제 2단계는 애착 형성의 단계로 영아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어 사람들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데 이 단계는 유아가 특정 대상에게 적극적으로 접근을 추구하는 6, 7개월경에 끝난다. 제 3단계는 뚜렷한 애착단계로 이 단계에서 영아는 비로소 특정 대상에게 애착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단계는 2, 3세경까지 지속된다. 마지막 제 4단계는 유동적 동반자 단계로 이 단계에서 유아는 애착 행동이 변화하고 다양화된다. 이러한 애착은 이전 단계에서도 보이나 3, 4세경에 시작해서 평생 동안 변화하여 지속된다.

보육시설에 영아들이 처음으로 등원하게 되는 시기는 뚜렷한 애착단계인 제 3단계로 영아들이 자신을 돌보아 주던 주양육자와 가장 강하게 애착이 형성되어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와의 지속적이 접촉을 제한하는 보육경험을 통해 심리적 불안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어머니나 주양육자와 헤어지면서 생기는 불안감을 격리불안 또는 분리불안이라고 한다.

이러한 분리불안은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데 7개월 이전의 영아는 분리불안이 표현되지 않고, 7~12개월 영아는 부모의 부재를 지각하고 낯선 사람들

에게 불안감을 느끼므로 부모와의 격리 상황에서 불안을 확실하게 나타낸다. 어머니와의 분리불안은 생후 8-9개월경에 나기 시작하여 12개월경에 절정에 이르며, 생후 2년이 가까워 오면서 점차 사라진다(Lewis & Michalson, 1983; 조성연, 도연심, 2001, 재인용). 우리나라 영아의 분리불안은 10-11개월에 시작하며 분리불안의 절정기는 18개월이며, 48개월까지도 분리불안을 나타낸다(도현심, 1998). 이와 같이 분리불안은 생후 12개월경에 가장 심하게 나타나지만 때로 영아는 부모를 기억에 저장하고 심적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분리불안을 강하게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분리불안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며, 걸음마기에 불안, 저항 등으로 다시 나타낼 수도 있다(백경숙, 1997).

2. 보육시설에서의 적응

1) 적응의 개념

적응은 생물학에서 생물종의 환경에 의한 적응이라는 개념에서 유래된 것으로 심리적으로는 개인과 환경의 관계에서 각 개인이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Lazarus(1976)에 의하면 건강한 적응에는 외적적응과 내적적응이 있다고 하였다. 외적적응이란 사회·문화적 기준을 지키고 타인과 협조함으로써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인간관계에서 안정을 찾는 것이고, 내적적응이란 주관적으로 자신을 받아들임으로써 정신적 세계의 안정을 찾아 환경에 맞추는 것이다. Atwater(1978)는 적응이란 자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환경의 요구도 충족시켜 주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개개의 인간이 주변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투쟁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적응이란 단순히 개인이 환경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Hinshaw(1942)에 의하면 적응은 3가지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첫째, 적응은 개인적,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포함한다. 둘째,

적응은 특정한 준거에 근거를 둔다. 따라서 특정한 개인의 적응은 자신이 속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문화권에서는 잘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문화권 내에서는 잘 적응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적응은 규범적이다. 따라서 어떠한 준거에도 어떤 개인에 대한 적응을 규범 속은 표준에 비추어 판단되는 상대적 개념이다(이병은, 2004, 재인용).

적응은 개인이 환경에 일방적으로 동화하거나 고정된 외적 조건에 자신을 맞추어 넣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개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 일방적으로 적응 당해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만이 아니며 환경에 영향을 주어 변화를 시키는 능동적 존재이기도 한 것이다. 즉, 인간은 환경에 자신을 의지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경을 이용 할 줄 아는 존재이다(이용주, 2004).

이러한 적응의 의미를 보육시설 측면에서 본다면 영유아들은 부모의 직장관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보육시설이라는 낯선 환경을 만나서 상호적 관계 속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가정과는 다른 보육시설이라고 하는 낯선 물리적 환경, 어머니와는 다른 낯선 교사와 타인들, 또래 영아와의 관계, 보육시설에서의 규칙 등에 적응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Bronfenbrenner(1994)에 의하면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영아는 주어진 환경을 수용할 뿐 아니라, 당면한 환경이 갖고 있는 여러 특성에 관한 반응성을 기르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영아의 반응은 출생과 함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부모, 형제, 친척 등과의 관계는 물론 현재의 환경적 맥락을 포함하게 된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가정 밖에서 보내는 영아들에게 있어 새로운 양육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은 영아와 가정 밖의 여러 요인들이 서로가 반응하여 영향을 끼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영아의 적응이란 단순히 개인이 환경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관계에서 균형 있고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며, 욕구좌절이나 갈등을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행동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영유아가 보육시설에서 잘 적응한다는 것은 자신의 환경을 신뢰하고 이를 토대로 주변 환경을 탐색하며 전인적 발달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

에 영유아가보육시설에 적응을 잘하는지,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의 문제는 중요하다. 영유아는 양육자와의 지속적인 격리를 경험하며 낯선 환경에 익숙해지기까지에는 많은 내적·외적 갈등과 변화과정을 겪어야 한다. 적응과정에서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들(Liberman, 1993: 운주화, 1998)과 초기 적응 과정에서 나타난 영유아의 불안에 관한 연구들(Field, 1986; Field & Fox, 1989)을 살펴보면 기관에서의 초기 적응 시 영유아의 어려움을 예측해 볼 수 있다(오종은, 2001).

Hughes 외(1979)의 연구에 의하면 발달에 있어 첫 사회적 장인 보육시설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유아는 전체의 약15%에 이르고 또한 Chazeb과 Jzckson(1974)은 2년간의 종단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있음을 알아내었다. 게다가 영유아의 적응에 대한 어려움은 특정시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이후의 학교생활에서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육시설 유아의 적응상태를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은 영유아의 바람직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시사해 줄 것이다.

2)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유아들이 보육시설에 처음 입학 하여 적응할 때 비교적 쉽게 적응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반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들이 있고 많은 적응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적응을 못해 결국 입소를 포기하는 영유아들이 있다. 이렇듯 초기적응의 안정적 적응의 정도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영유아의 개인차에 따라 적응 정도가 다르지만 그 외에도 영아의 기질, 성별, 연령, 보육경험, 보육기간,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분리불안, 교사 변인, 보육시설의 질적 변인 등 매우 다양하고 그 요인 중에 어느 한 가지가 주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Bronfenbrenner(1979)는 인간의 발달은 생태학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미시체계, 거시체계, 외계체계의 환경은 서로 영향을 맺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생태

학적 관점을 적응에 대응해 보면 영아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 어느 한가지의 문제도 아니며 여러 가지 요인이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며 한 가지 요인의 영향이 다른 요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유기적 관계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먼저 개인의 기질적 요인을 살펴볼 수 있다.

출생 시부터 나타나는 정서적 표현양식과 환경의 자극에 대한 반응양상의 차이를 통해 식별해 낼 수 있는 성격의 개인차를 기질이라고 부른다(유가효, 이소희, 한성심, 장미경, 조은영, 2000). 기질에 따라서 영유아들이 새로운 상황에 접근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며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기질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박성미, 이지희, 김정신, 1996). 적응과 기질을 연구한 국내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원영미(1990)의 연구에서는 적응성이 높을수록, 접근성이 높을수록, 긍정적이 기분을 나타낼수록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서수경(1993)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유아의 기질 범주 중 낮은 적응성, 높은 반응강도, 높은 활동수준이 유아의 부적응 행동과 관련이 있었다. 또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가 순한 기질의 유아보다 적응을 잘 못한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장은혜, 2000; 천희영, 1997). 이렇듯 기질은 영유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영아의 기질에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기질은 영아의 초기적응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적응을 어렵게 하는 두 번째 요인으로 어머니와의 애착정도를 들 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유아가 갖게 되는 경험의 대부분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안정적일 때 영유아의 문제행동이 감소하며 어머니와 영아간의 애착정도가 보육시설에서의 격리에 대한 반응이나 사회적 유능성을 예견 할 수 있다(문진희, 1999; 백청강, 2007).

영아는 어머니 뿐 아니라 그들을 돌보는 다른 어른들과도 애착을 형성하

는 능력이 있으며, 교사와도 애착은 적응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교사가 일관성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고 반응적이고 적절한 양육을 영아에게 제공하고, 도움이나 주의를 요구하는 영아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함으로써 이들의 또 다른 애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성인과의 안정적인 애착으로 변화될 수 있다(박경자 외, 2009).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들의 사회적 행동 발달과 교사와의 애착형성을 밝힌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와 불안정 애착에서 오는 상실감을 보상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유미, 2007). Raikes(1993)는 안정 애착 점수는 영유아가 교사와 많은 시간을 보낼 때 증가하였고, 보육 시설에 다니는 기간이 길수록 영유아와 교사간의 애착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안정 애착을 가진 영아들은 새로운 환경과 그들의 새로운 보육교사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수월하게 적응하게 될 것이라 예측가능하다(New, 1999).

교사의 지도방법이 영아에게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이은경(2006)은 교사는 영아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상황 속에서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물리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해 줌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보육시설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하였다. 구수연(2005)은 보호자에 많이 의존하는 것처럼 보육교사에게도 의존하게 되고 이러한 영아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안아주거나, 다른 놀이로 관심을 쏟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육교사의 역할이라고 하였다.

또한 영아와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영아에 대한 교사의 민감성에 관련되어 있다. Ainsworth와 Bell(1970)은 영아의 적응을 위해 교사의 민감성을 강조하였다, 즉, 영아의 요구에 대해 교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영아가 환경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게 하며 영아가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게 한다. Honing(1989)은 교사와 영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교사는 영아의 개인차를 인정하면서 영아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심현정, 2003, 재인용). 교사는 긍정적이고 애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영아가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교사는 언어적 상호작용을 격려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교사에

대해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한 영아는 교실의 사회적 규칙에 주의를 기울이고 교사의 제안을 수용하는데 더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교사는 영아 정성의 사회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유아 교육기관의 교사들은 영아들의 감정표현을 판단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영아들이 감정표현과 연관된 단어를 발견하고 감정이 발생된 원인을 이해하며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Ahn, 2005). 교사는 영아에게 언어적·인지적 자극을 줄 뿐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영아에게 자아를 인식하게 하고, 타인의 행위를 인식하는 기준을 획득하게 도와준다(김정연, 1996).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인은 공간의 문제이다. Feldman(1989)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을 위해서 개별화가 가능한 영역을 허용해야 하며 환경에 대한 통제권을 갖도록 공간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사람이 불안을 경험할 때는 편안히 있을 때보다 더 넓은 개인적 공간을 유지하게 된다고 한다. 이것은 영아들이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을 위해 닫힌 교실 환경 속에서 자신의 개인적 공간을 조금만 차지하고 있는 것 보다는 특히 적응 기간 동안 열려진 실외의 환경 속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변형할 수 있는 공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즉 교사는 영아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상황 속에서 독립적으로 행동 할 수 있도록 물리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해 줌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보육시설에 적응 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보육시설적응 프로그램

적응하기의 과정은 영아가 처음 입학 하여 등원할 때 부모, 교사간의 만남과 헤어짐을 중심으로 영아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부모와 헤어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점차 물리적 환경이나 하루 일과에 적응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어린이집 교사는 영아가 부모와 헤어져 교사에게 안정감을 느끼고 가정이

아닌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영아의 적응 과정을 돕는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이 시기가 애착형성의 결정적인 시기임을 고려해 볼 때 어머님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에게 있어 영아가 자신과 안정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일 것이다(김영희, 2003)

영아가 보육시설에 처음 등원해서 겪게 되는 주양육자와의 격리로 인한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초기 적응 프로그램이다. 국내에서 초기 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1997)에서 영유아보육프로그램 개발에서 초기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초기적응지도’를 제공하여 조기 적응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그 후 2010년에는 보건복지부(1997)의 ‘초기적응 지도’를 기준으로 적응프로그램을 제시하였는데 표준보육과정에 근거하여 0세부터 5세까지 연령별로 개발된 보육프로그램들 중에서 적응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은 0세 보육프로그램이다(보건복지부, 2010)

2004년 6월 보육시설의 주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여성가족부에서는 2005년부터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침은 모두 7영역 8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영역 운영관리 중[2-6]의 지표에 ‘신입원아 적응을 위한 절차’에 대한 항목이 있다(여성부 보육지원과, 2005).

평가인증 조력프로그램에서 제시한 신입원아적응을 위한 절차는 최소 1주일 이상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신입원아 적응을 위한 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유아는 처음 오는 보육시설의 새로운 환경, 낯선 양육자, 익숙하지 않은 또래와의 만남, 주양육자와의 분리 등으로 불안을 느끼기 쉽다. 영유아와 마찬가지로 주양육자 또한 새로운 환경에 보내는 자녀로 인하여 불안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보육시설에서는 신입원아와 주양육자를 위한 적응 과정을 통하여 영유아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주양육자도 안심하고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신입원아 적응프로그램을 1주일 이상 제공해 주어야 한다. 신입원아의 적응을 돕기 위

한 과정은 영유아의 연령, 개인적인 기질, 이전의 보육시설 경험, 부모의 직
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들에게도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필요
하다.」라고 적응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하는 당면성과 함께 신입영아 프로그
램을 제시하였다.

(1) 보건복지부의 초기적응 프로그램(1997)

① 보육시설 환경에 대한 친숙기

영아는 이 기간 동안 하루 2시간 정도 주양육자와 함께 보육시설에 머무
르게 되고 주양육자와 함께 보육시설 환경을 탐색하는 시기로 영아에게 안
정감을 주는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 영아들은 주양육자와 함께 자유놀이,
화장실가기, 간식 먹기 등을 경험하도록 하며, 주양육자와 영아의 개별적 상
호작용이 주가 되는 기간이다. 교사는 주로 부모와 상호작용을 하며 유아와
간접적으로 낮을 익히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교사는 부모와 상호작용을 시
도하지 않거나 유아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관찰하지 않는다면
교사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아 불신감을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유
의해야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② 보육교사와의 친밀기

이 기간 동안은 양육자와 함께 있는 가운데 유아와 보육교사가 직접 접촉
하여 친밀감을 느끼도록 한다. 보육시설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 늘어서 하루
3시간 정도이며, 교사와 주양육자가 함께 대집단 활동을 매개로 교사와 친
해질 수 있는 놀이를 주로 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 교사는 영아의 식습관과
생리적 상태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며, 일과리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점심
식사 시간을 이용하여 같이 식사하는 경험을 해본다. 더불어 낮잠을 자보는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다.

③ 부모(양육자)와의 분리기

초기적응 프로그램 마지막인 3단계는 주양육자와의 분리기로서 주양육자와 영아가 같이 등원하여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같이 있다가 2시간 떨어져 있는 경험을 갖고, 점차 함께 있는 시간을 줄이고 영아와 주양육자가 분리기간을 늘여 가는 시기이며, 최종적으로 주양육자 없이 종일 보육을 경험하는 것이다.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고 영아들의 상태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유아와 떨어질 때는 충분히 설명하고 돌아오기로 한 약속시간을 지키게 한다. 몰래 빠져나가거나 금방 온다는 등의 거짓말로 유아에게 불신감을 심어주지 않도록 한다. 일시적으로 불안증상을 보이더라도 교사는 유아와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면서 기다려 준다.

(2) 평가인증 조력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신입원아 적응프로그램

평가인증 조력 프로그램에서는 신입원아 적응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제공하였는데 적응을 위한 부모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009년부터 적응절차에 부적응에 대한 제시를 구체적으로 하여, 적응 절차에서 신입원아의 적응상태, 부적응상태를 감안하여 적응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2010년도 중앙보육정보센터의 평가인증 조력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표 1> 중앙보육정보센터 내의 평가인증을 위한 신입원아 적응프로그램(2010)

영유아는 처음 오는 어린이집의 새로운 환경, 낯선 양육자, 익숙하지 않은 또래들과의 만남, 친 양육자와의 분리 등으로 불안을 느끼기 쉽습니다. 부모와 가족 역시 영유아를 새로운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어린이집에서는 신입원아와 부모가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신입원아 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목적

- 1) 영유아가 보호자와 헤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로 느낀다.
- 2) 새로운 교사와 친구에 대해 친밀감을 느낀다.
- 3) 적응기간을 통해 어린이집 생활에 잘 적응한다.

■ 진행 원칙

- 1)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 2) 영유아의 적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활동(예: 점심, 낮잠 등)을 경험하게 한다.
- 3) 적응 프로그램은 1~2주 정도를 기본으로 하되, 영유아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진행한다.
- 4) 적응기간 초기의 보육시간은 약 2~3시간에서 점진적으로 늘려 간다.
- 5) 영유아의 연령, 기질, 발달, 애착, 적응상태, 어린이집 상황, 가정의 상황 등에 따라 기간과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6) 단기간에 적응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유아의 적응상태를 고려하여 차근차근 진행한다.
- 7) 적응이 늦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이나 사물, 사람 등에 대해 민감할 수 있음을 말하며, 민감함은 때론 낯선 상황에 대한 판단과 지각 능력이 예민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 신입 원아의 초기 부적응 행동의 예

- 1) 어린이집에 가지 않겠다고 떼쓴다.
- 2) 어린이집 현관에 들어서기만 하면 울기 시작한다.
- 3) 또래와 어울리지 않고 시무룩하다.
- 4) 교사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며 반응이 없다.
- 5) 어린이집에서는 간식이나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 6) 어린이집에서는 낮잠을 자려 하지 않는다.
- 7) 울음이 잦고 자주 칭얼댄다.
- 8) 밤에 자지 않고 울면서 깬다.
- 9) 신체적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다고 한다.
- 10) 대소변을 가리던 영아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
- 11) 집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기간	내용	귀가
등원 첫날	짧게 방문하기 엄마와 함께 놀이해보기 오전 간식 먹기	적응 : 10:00~12:00 귀가 부적응 : 10:00~11:00 귀가
둘째 날	오전 놀이와 점심식사	적응 : 10:00~식사 후 13:00 귀가 부적응 : 10:00~12시 이전 귀가
셋째 날	엄마와 잘 헤어지기 선생님과 놀이하기	적응 : 10:00~식사 후 13:00 귀가 부적응 : 10:00~12시 이전 귀가
넷째 날	엄마와 웃으며 안녕하기 낮잠 자보기	적응 : 09:30~낮잠 잔 후 15:30 귀가 부적응 : 09:30~식사 후 13:00 귀가
다섯째 날	친구들과 함께 놀이하기 편안한 마음으로 낮잠자기	적응 : 09:30~낮잠 잔 후 17:00 귀가 부적응 : 09:30~식사 후 14:00 귀가
여섯째 날	하루 종일 지내기	적응 : 09:30~낮잠 잔 후 18:00 귀가 부적응 : 보호자와 상담 후 귀가 시간 조정

※ 적응아와 부적응아에 따라 귀가 시간을 달리 조정할 수 있다.

■신입원아적응을위한배려

어린이집	부모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와 교사가 친밀한 관계임을 느끼도록 즐겁게 대화하기 ▪ 교실 입구에 가족사진을 붙여 두거나, 흥미를 끌만한 놀잇감이나 음식을 준비하기 ▪ 신발장이나 개인사물함에 사진과 이름을 붙여 두어 소속감과 안정감을 갖게 하기 ▪ 적응 초기에는 영유아가 탐색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신체적 접촉을 서두르지 않기 ▪ 가정에서 영유아가 좋아하는 베개나 인형, 장난감 등을 가져오게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에게 어린이집과 교사 소개하기 ▪ 부모와 교사가 친밀한 관계임을 느끼도록 즐겁게 대화하기 ▪ 적응 초기에는 교실에 들어가 놀이를 함께 하기 ▪ 헤어질 때는 영유아에게 꼭 인사를 하고 가고, 정해진 약속시간을 잘 지키기 ▪ 잠들기 전 어린이집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아이의 마음에 긴장을 풀어 주기 ▪ 지속적인 애정을 표현해주기

(3) 표준보육과정에 근거한 보육프로그램의 적응프로그램(2010)

표준보육과정의 0세 보육프로그램내의 적응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주요 과제는 보육시설 환경에 대하여 친숙해지기, 보육교사와 친해지기, 주양육자와 자연스럽게 분리할 수 있기이다.

영아들이 불안을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이 어린이집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적응기간이 필요하다. 특히 0세 영아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집단 양육 과정은 환경과 일과에 적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애착의 대상이 부모에서 교사로 확대되는 과정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하며, 개개인의 기질과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와 교사는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인내심을 가지고 영아의 개별적 특성에 맞추어 어린이집 초기 적응을 도와주어야 한다. 영아들이 자연스럽게 어린이집의 생활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4주간 적응시간을 두도록 하였으며, 등원 전 잠시 어린이집을 방문하며, 첫날은 보호자와 함께 짧은 시간 어린이집 환경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첫 주 동안은 보호자와 함께 오전 일과를 보내고, 교사는 보호자와 함께 영아에게 접근하여 놀이를 유도하고, 보호자와 짧은 시간 공간적으로 떨어져 보는 시도를 한다. 2주째는 보호자와 헤어져 오전일과를 보내고, 교사는 애착물건이나 흥미 있어 하는 장난감을 제공해 주어 분리불안을 덜어 주도록 하며, 영아의 개별적인 리듬을 존중해 개별적인 보육이 되도록 하루 일과를 조적한다. 3주째는 하루 일과에 적응해보고 개별적으로 이유식(점심)을 먹는 경험을 제공한다. 4주째는 낮잠을 자볼 수 있도록 개별 영아의 수면 패턴과 습관을 알고 반응해 주고, 오후 일과 적응으로 낮잠 후 이유식을 먹어볼 수 있도록 격려해 준다.

영아의 개별적인 기질과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초기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영아의 특성과 교사와의 친밀한 애착형성을 위한 개별적 적응과정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 융통성 있는 운영의 한계가 있다.

<표 2> 표준보육과정에 근거한 0세 보육프로그램 안의 적응 프로그램

적응 활동명	기간	적응내용	부모의 협조사항
어린이집 방문하기	등원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엄마(혹은 아빠)와 함께 어린이집을 방문해요. · 등원하기 전에 미리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둘러보며 낯선 환경을 접한다. · 담임교사와 처음 만나 인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임교사와 면담 실시 · 자녀의 기본정보 제공 · 새로운 환경에 대한 관심 유도
보호자와 함께 어린이집 둘러보기	첫 등원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엄마(혹은 아빠)와 함께 보육실을 둘러보아요. · 보호자와 함께 보육실에 들어가 편안하게 둘러보며 낯선 장소를 눈에 익힌다. · 교사는 영아의 기질 및 영아와 부모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등원 첫날엔 짧은 시간동안 환경을 탐색하는 것으로 일과를 마무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낯선 환경에서 지지 기반이 되어 탐색 돕기 · 자녀가 낯선 환경을 탐색하는 동안 곁에 머물러 안정감을 줌
보호자와 함께 오전일과 보내기	1주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혹은 아빠)와 함께 보육실에서 놀이해요. · 보육실 공간에 익숙해지면서 엄마와 놀이감을 탐색하고 놀이도 해본다. · 교사는 엄마가 곁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영아에게 점차 접근하여 놀이를 시도해 본다. · 보호자와 짧게 헤어지는 것을 시도해 본다. · 영아가 놀이감을 탐색하는 동안 10분~30분 정도 보호자가 잠시 보육실을 벗어나 본다. · 이 기간 동안 오전 낮잠을 자는 영아도 있으므로 점찰 수 있는 공간과 놀이 공간을 최대한 분리해 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낯선 환경에서 지지 기반이 되어 탐색 돕기 · 짧은 시간 보육실 밖에서 영아를 지켜보고, 영아가 불안해하면 다시 곁으로 가성 안정시켜 줌 · 교사와 친밀감 형성 돕기 · 낯선 성인인 교사를 두려워하지 않게 돕기
보호자와 헤어져 오전일과 보내기	2주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엄마와 헤어져 선생님과 놀이해요. · 교사의 품에 안겨 엄마와 헤어져 보는 경험을 시도한다. · 애착물건이나 영아가 흥미 있어 하는 놀이감을 제공하여 분리불안을 덜어 준다. · 영아와 교사의 개별적인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개별 영아의 리듬(수면, 수유)을 존중해 개별적인 보육이 되도록 하루 일과를 조절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와 신뢰감 형성 돕기 · 엄마가 없어도 교사를 믿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기 · 짧고 분명한 인사로 헤어진 후, 교사와 정한 시각에 귀가 돕기 · 귀가 시각을 지켜 영아의 점진적인 적응을 도움

<p>일과적응하기 (이유식 적응)</p>	<p>3주째</p>	<p>▶(점심)이유식을 먹어 보아요. · 낮선 환경에서 놀이와 더불어 편안하게 먹는 경험을 해 본다. · 교사가 먹여 주는 이유식을 먹으며 교사와 친밀감을 형성한다. · 영아의 월령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준비한 이유식을 제공한다.</p>	<p>· 수유 및 이유식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주고 받으며 가정과 기관이 연계되도록 함</p>
<p>일과적응하기 (낮잠 적응)</p>	<p>4주째</p>	<p>▶낮잠을 자 보아요. · 집이 아닌 새로운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 본다. · 교사의 품에 안겨 자장가를 들으며 낮잠을 자 본다. · 개별 영아의 수면 패턴과 습관을 알고 적절히 반응해 준다.</p>	<p>· 수면에 관한 영아의 습관 및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가정과 기관이 연계되도록 함</p>
<p>일과적응하기 (오후 일과 적응)</p>	<p>4주째</p>	<p>▶(오후)이유식을 먹어 보아요. · 낮잠 후 수유 및 이유식을 먹어 본다. · 교사와 놀잇감을 탐색하며 점차 놀이 시간을 늘려 간다. · 영아가 점차적으로 적응해 가는 것에 대해 칭찬하고 격려해 준다.</p>	<p>· 어린이집에서의 하루 일과가 길어지면서 영아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를 민감하게 파악하여 가정과 기관이 연계되도록 함</p>
<p>하루일과 적응하기</p>	<p><정상 하루 일과> · 어린이집에서의 시간을 점차적으로 늘려 가면서 자연스럽게 하루 일과에 적응한다. · 영아의 적응 상태와 부모님의 여건에 따라 귀가 시각을 융통적으로 조절한다. · 적응이 더 필요한 영아의 경우 추후 일과를 조절한다.</p>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참여자

1) 연구 참여 영아와 어머니

본 연구에 참여하는 영아는 학기 중 입학한 만 2세반 승우(36개월 남아)와 정민(32개월 남아), 민규(35개월 남아) 영아 3명으로 영아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승우(남아, 36개월)와 승우어머니

본 연구 참여자는 2010년 8월 신규 입학 한 만 2세(36개월)남아 승우이다. 승우네 가정은 승우와 만 0세의 남동생이 있으며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어머니는 셋째 동생을 임신 중이며, 인근에 살고 있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승우와 동생의 보육을 담당하여 어머니의 양육부담을 도와주시고 계시다. 승우는 엄마보다 외할머니를 더 잘 따르는 편이며 외할머니께서 주양육자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승우는 보육시설이나 유아교육관련 시설 입학 경험이 없으며 2010년 10월 중 3째 출산예정으로 동생과 승우는 어린이집으로 보육을 맡기게 되었다. 승우는 낯가림이 심하여, 집에 친인척이나 지인이 와도 시선을 마주치거나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에나 낯선 장소에서는 좋아하는 음식도 거부한다고 하였다. 승우의 성향은 알고 있는 가족들은 승우가 어린이집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 하고 있음을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제 셋째가 생겨 할머니가 둘 다 봐 주시기는 힘이 드셔서 꼭 어린이집에 적응을 해야 하는데 걱정이예요. 승우가 집에서 식구들한테만 말을 하고 삼촌이나 친척이 가끔 와도 쳐다보지도 않고 말을 안 해요. 다른 사람이 있으면 음식을 절대 먹지 않아요.”

(2010. 9. 1. 승우어머니와의 면담)

(2) 정민(남아, 32개월)이와 정민 어머니

정민은 2010년 8월 16일에 만 2세반에 입학하였으며, 입학 상담 시 32개월의 남아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와서 입학상담을 받았다. 정민은 외동으로 아빠와 엄마와 함께 살고 있으며, 만 1세 때 부터 2010년 6월까지 경기도의 어린이집에 다닌 경험이 있었다. 부모님이 서울로 직장을 옮겨 6월에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으며 한 달여 동안 정민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셨다. 정민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독일에서 2008년까지 유학을 하였기에 정민은 독일에서 태어나 생활하였으며 그 이후 고국인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다행히 8월은 정민의 적응을 위하여 일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계획하였고 적극 도와 주셨다. 정민은 전 어린이집에서 적응에 문제가 있었으며, 매일 아침 울면서 헤어지고,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했다고 한다. 초기적응과정에서의 심리적 불안은 영아뿐 아니라 부모들 또한 겪게 된다. 부모들은 자신이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기로 한 결정이 자녀를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스스로 죄의식을 갖기도 했다(지성애 외, 1995) 정민의 어머니 또한 직장으로 인하여 정민이를 너무 어린나이에 보육시설에 맡기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을 갖고 계셨으며,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어 한동안 정민을 데리고 있었다고 하셨다. 전에 다니던 어린이집 원장님과 정민에 대해 통화를 했었는데 정민이가 어린이집생활을 힘들어했으며, 예민하고, 적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여 부적응의 경험을 겪은 정민의 초기 적응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

정민은 결혼 후 늦게 갖은 아이이며, 10여 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아 포기하였으나 정민이가 생겨 더욱 애지중지 하는 모습이 보였다. 정민은 부모와 상담하는 내내 분리에 대한 불안함을 느꼈는지 어머니의 몸에 자신의 몸을 붙이고 있었으나 상담실 문밖에 있는 유희실의 놀이기구를 보자 흥미를

느끼고 엄마의 손을 끌면서 같이 가자는 표현을 했다. 엄마와 함께 상담에서 나와 놀이실에서 정민이의 놀이를 지켜보면서 정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다.

정민을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정민이가 가기 싫어해서 억지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사 오면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좀 쉬었어요. 어린이집 원장님이 정민이가 많이 예민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힘들어 한다고 해서 어떻게 잘 적응할지 걱정이예요. 정민이가 좀 소극적인 편이라 남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편이라서 친구들과 잘 못 어울리는 거 같기도 하고요.

(2010. 8. 12. 정민어머니와의 면담)

(3) 민규(남아, 35개월)와 민규어머니

민규는 2010년 11월 학기 중 만 2세반에 입학한 35개월의 남아이다. 민규는 본 어린이집에 다니기 전 보육시설에서의 7개월간의 보육경험이 있었는데 입학 후 계속 울면서 가기 싫다고 하거나 교실에서 친구들을 물거나 때리는 부적응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민규의 가족은 아빠, 엄마, 남동생과 민규가 모두 네 식구가 있다. 아빠는 직장일이 늦게 끝날 때가 많아 민규와 놀아주는 시간이 부족하였고, 어머니가 만0세 동생과 함께 민규의 보육을 담당하셨고, 조부모나 친척들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민규를 보육시설에 보내게 되셨다고 하였다. 부적응으로 퇴소한 어린이집에서 3월에 입학하여 초기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나 보육시간을 단축하는 일 반적인 것이었다고 하였다.

민규는 어렸을 때 식사와 수면 등 일상생활에서 매우 예민했으며,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리다가 잠이 들었으며, 아침에 잠이 깨고 나면 계속해서 칭얼대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양육에 대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셨다. 민규를 상담한 병원의 전문가는 민규가 매우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이지만 장애나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다고 하였고 한다. 입학 상담 시 민규의 어머니는 민규를 놀이치료 등의 심리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걱정하

고 있었으며, 아직은 병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니 입학 후 적응과정을 지켜보기로 하였다.

민규의 입학과정에서 민규가 다녔던 어린이집의 원장님과 이야기를 하였으며, 민규가 친구들을 때리고 무는 행동을 자주 보였으며, 담임교사가 이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하셨지만 헤어질 때는 많이 울고 보냈지만 원에서 있을 때는 울지 않고 놀았다고 하였다.

민규의 상태를 요약해보자면 매우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이로 태어나 수면이 불규칙하여 밤낮으로 울었으며 이로 인해 부모님도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어 민규가 매우 힘든 존재로 인식되었고, 민규는 지친 부모님들이 잠에서 깨어 우는 민규를 달래다 지쳐 많이 화를 내셨다고 하였다. 거기다 동생이 생기면서 민규는 부모에게 양육의 부담이 되었고, 이로 인해 어린이집에 보내어졌으며, 민규가 또한 동생에 대해 집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드러내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의 인적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학기 중 입학한 영아의 인적사항

(영아들의 이름은 가명임, 월령은 입학 시 기준)

연 번	영아명	성별	월령	입학 시기	맞벌이 유무		이전 보육 시설경험	주양육자
					부	모		
1	승우	남	36	2010. 8. 2	○	×	×	할머니/ 어머니
2	정민	남	32	2010. 8. 16	○	○	○ (어린이집8개월/ 부적응경험)	어머니
3	민규	남	35	2010.11. 8	○	×	○ (어린이집8개월/ 부적응경험)	어머니

2) 참여 교사

연구대상 어린이집은 만 2세반이 2개 반으로 A, B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 2세 반은 2009년 한 교실에서 두 명의 교사가 보육을 담당하였으나, 교실 구조의 변경으로 인하여 2010년부터 각각의 교실에서 A반과 B반이 따로 운영을 하게 되었다. 교육 및 보육프로그램은 두 반이 공통으로 계획하여 같이 또는 따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의 참여교사는 만 2세 영아반 교사로 A, B반 담임 교사 2명이다. 만 2세반은 학기 초 1:5, 1:6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보였으나, 2010년 9월 현재 신규입학 영아의 증가로 인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이 1:8로 구성되어 있으며 A, B반 모두 8명씩의 영아들을 보육하고 있다. A반 담임을 맡고 있는 김교사는 만 45세로 유아교육을 전공하였으며, 총 6년의 보육교사 경력을 가지고 있다. E어린이집의 경력은 1년 3개월이며 학기 중 입사하여 만 2세반을 맡고 하고 있다. 김교사는 결혼 후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자녀양육의 경험이 있어 총 2년 3개월의 영아반 경력에 비하여 영아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B반 담임교사는 미혼으로 28세이며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본 어린이집에 처음 입사하였다. 입사 초부터 만 2세반을 맡고 있으며, 총 1년 6개월의 교사경력을 가지고 있다. 만 2세반 교육프로그램 A반 교사와 B반 교사가 함께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구성 및 주제와 관련된 교재교구 제작에 있어서도 함께 계획하고 자료를 공유하기 때문에 교실 환경 및 교육 과정에 있어 공통된 부분이 많다.

2. 연구 현장

1) 연구대상 어린이집 및 만 2세반

연구대상 어린이집은 연구자가 시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회부설 기관으로 2010년 서울형 인증을 받아 5명의 교사와 2명의 교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다. 교직원 모두가 기독교인으로 기독교 철학을 바탕으로 영·유아의 자유, 흥미(관심), 필요(욕구), 목소리, 자발성 등을 존중하는 발현적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스스로 행복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

연구대상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을 살펴보면,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의 교회 건물로 1층 전체가 어린이집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실내시설로는 유희실 및 거실, 유아반 1개실과 영아반 3개실과 교사들이 컴퓨터 작업을 하는 사무실이 있으며, 실외시설로는 도로와 접해 있는 어린이집의 물리적 특성상 바깥놀이 시설이 따로 없기 때문에 옥상을 활용하여 실내에서 하기 힘든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현관을 들어서면 넓은 유희실이 있고, 왼편으로 교사화장실과 유아화장실이 있다. 유희실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사무실, 만 2세 B반 보육실, 만 3세 보육실, 만 1세 보육실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유희실 맞은편으로는 만 2세 A반 보육실이 있다. 유희실에는 한쪽에는 정적인 놀이를 하거나 쉴 수 있는 공간을 위하여 작은 도서관이 있으며 터널과 기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물, 미끄럼틀이 부착된 종합놀이기구가 있으며, 영아들이 탈수 있는 작은 미끄럼틀이 따로 있다. 유희실 중앙에는 영아들이 삼각모양, 계단모양, 터널모양, 다리 모양 등의 신체활동 매트가 배치되어 있다. 각 보육실은 유희실을 중앙에 두고 있어 출입문을 열면 바로 유희실과 연결되어 있어 각 교실이 차단되어 있지 않은 느낌을 준다. 만 2세반인 A반과 B반의 교실에는 출입문에서부터 블록/쌓기영역, 음률영역, 소꿉영역, 역할영역이 나란히 있고, 안쪽으로 수·조작영역, 과학·관찰영역, 도서·언어 및 휴식영역이 구성되어 있다. 영아들이 주로 활동을 하는 역할놀이영역에는 화장대 및 각종 화장도구, 싱크대, 작은 소파 2개, 소꿉도구, 가방 및 핸드백, 구두 및 보자기, 넥타이, 모자, 전화기, 핸드폰, 앞치마, 여러 가지의 음식모형들이 제

공되었다.

각각의 교실의 넓이는 최대 7명의 영아들이 활동과 생활하기에 적합한 넓이로 크지 않고 아늑한 넓이이며, 영역구분이 되어 있지만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의 이동거리가 짧아 쉽게 영역을 바꾸어 가거나 영역을 통합하여 놀이를 하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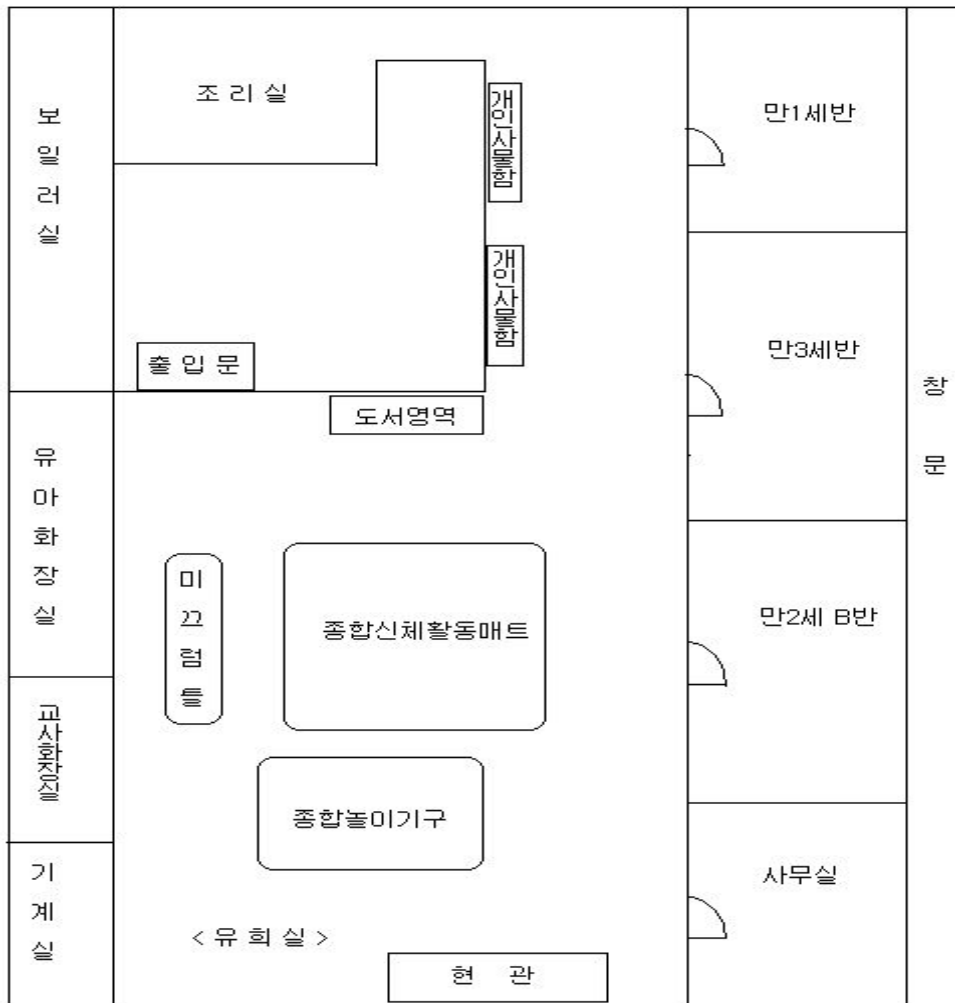
보육시간은 평일은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되며, 토요일은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이다. 이 중 만 2세 영아반의 일과 시작은 오전 9:00에서 오후 5시까지 실시되고 있으며, 영·유아들의 등원과 귀가는 부모의 출근 및 퇴근 시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 구성은 만3세 1개 반, 만 2세 2개 반, 만1세 2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영아반의 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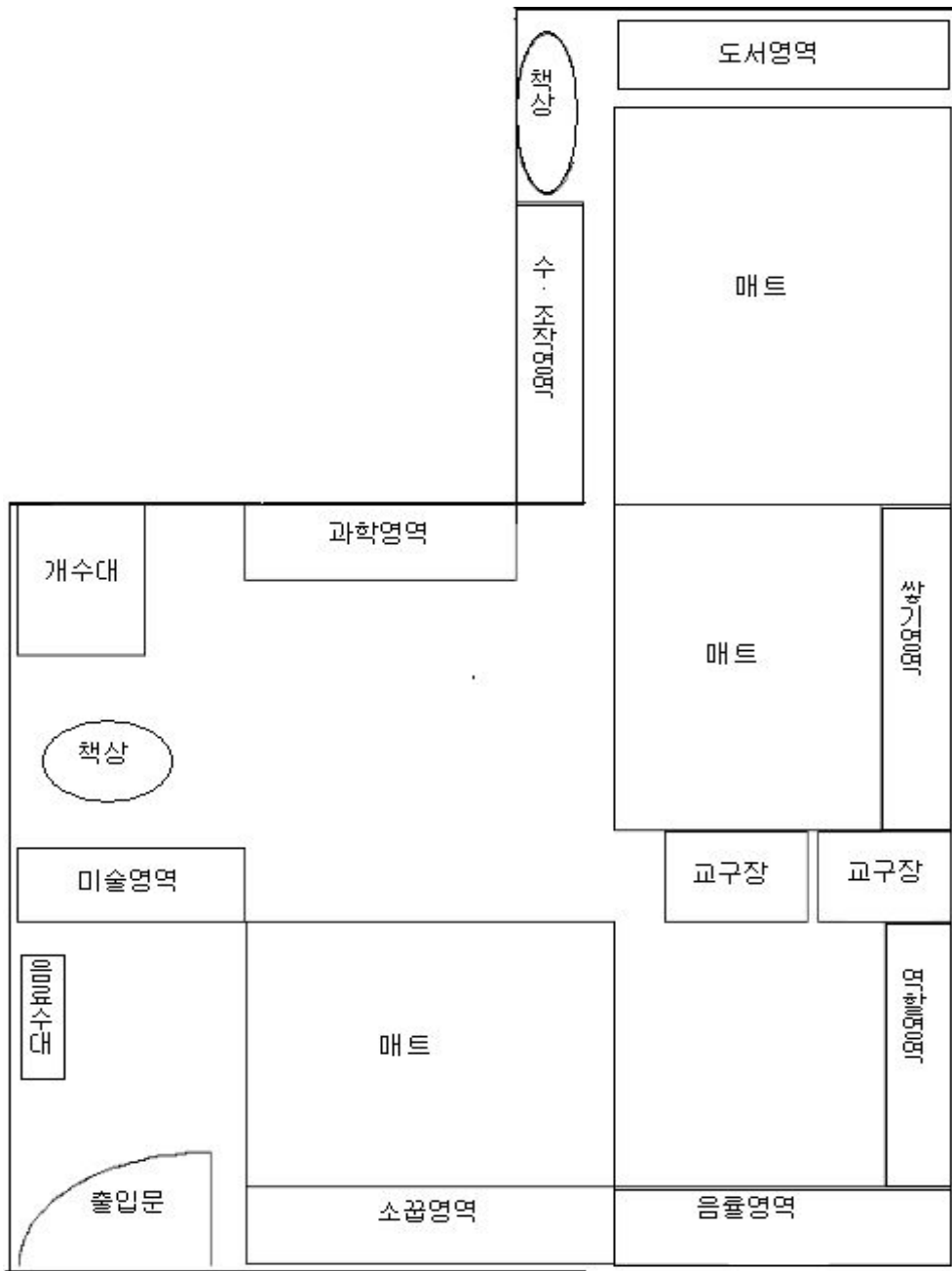
영아반의 구성과 영아의 비율이 50%를 넘고 있어 그에 따른 영아들의 초기 적응 문제를 자주 볼 수 있었는데 특히 학기 중 입학하는 영아들이 많아 교사들이 1년 내내 초기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본 어린이집의 만 2세 영아의 입학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3월부터 9월까지 총 6개월 동안 10명의 영아들이 입학을 했으며, 1명의 영아를 제외하고는 9명 모두 4월부터 9월까지 학기 중 입학을 하였다. 3월 초 만 2세반의 재원아 대 신입아의 비율을 보면 10:1로 거의 재원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이후 매월 1~2명의 신규영아들이 입학을 하고 초기 적응 과정을 겪은 것을 알 수 있다. 입학이 시작되는 3월에 입학하는 영아들의 수 보다 학기 중에 입학하는 영아들의 수가 월등히 높았고, 중간 퇴소로 인한 입학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0학년도 재원아의 경우도 2008~2009년의 학기 중 입학이 대부분이었다. 이렇듯이 E 어린이집의 영아반은 입학기간이 따로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 어린이집의 만 2세반의 3월 입학초기모습은 거의 적응이 이루어진 재원아들로 인하여 특별히 불안해하는 모습 없이 적응하였으며,

별다른 초기적응 프로그램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안정된 반 운영을 보였다. 그러나 7월 이후 신규 영아의 입소가 많아지면서 초기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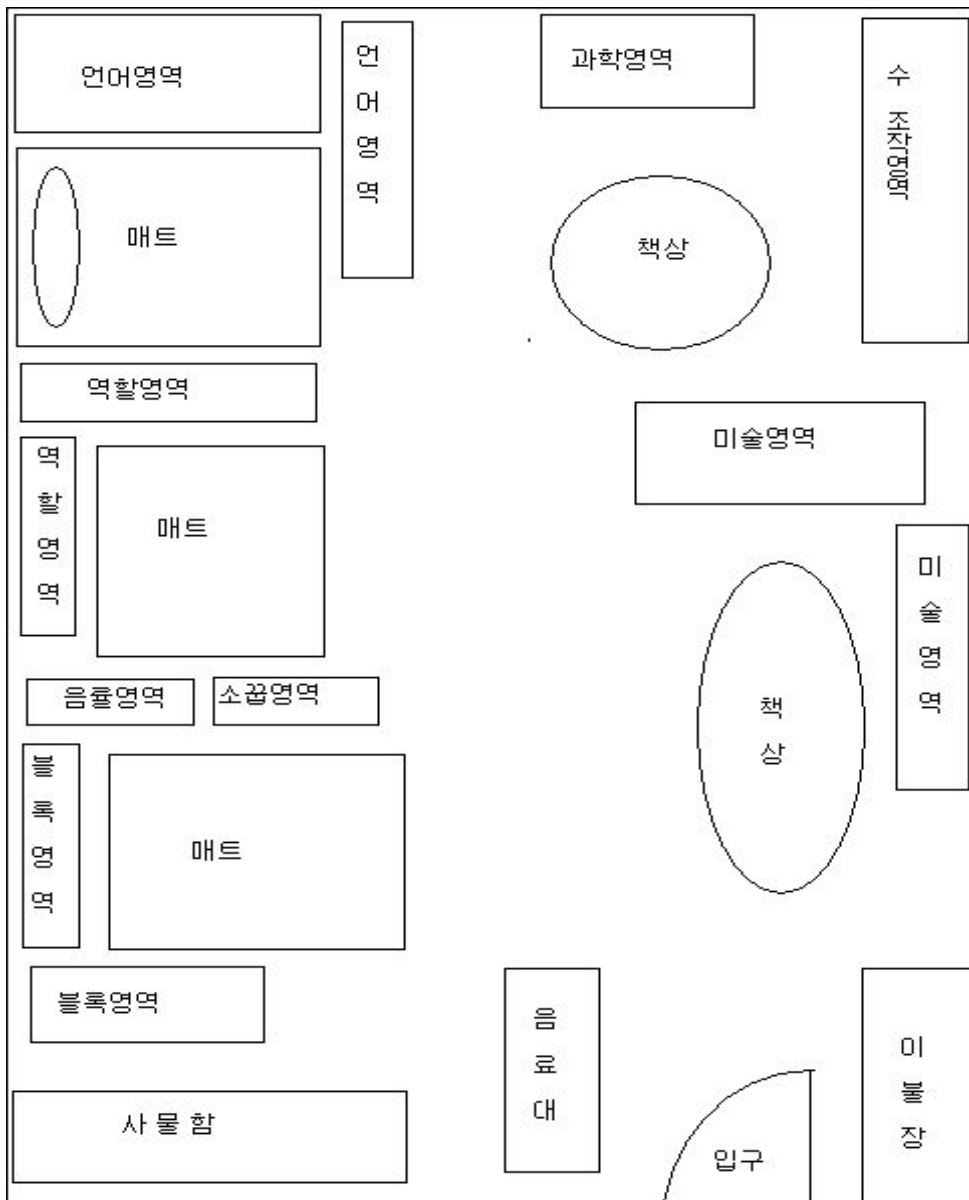
영아반은 거의 1년 내내 입·퇴소가 빈번하였으므로, 초기 적응을 잘 못할 경우 안정된 반의 운영이 힘든 상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어린이집의 실내 환경



<그림 2> A반 실내환경



<그림 3> B반 실내환경

2) 만 2세 A, B 반의 하루일과

처음 영아들의 등원 시간이 일정치 않았으며, 수업 중 등원하는 영아들이 많아 실내 자유놀이 및 전이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활한 수업 진행과 영아들의 충분한 놀이 시간을 위해 부모님의 협조를 받아 오전 10시 까지 등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매주 월요일에는 10:20에 전체 유아가 모여 새 노래를 배우는 시간이 있으며, 월1~2회 정도 안전교육 시간이 있어 바깥놀이 활동을 못한 경우에는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에 특기수업이 없는 날을 택하여 바깥놀이 또는 놀이실에서 대근육 활동을 한다. A반은 1세반에서 낮잠을 자고 B반은 자기 교실에서 낮잠을 잔다. 영아들의 수면시간이 다름을 배려하여 A반 교실은 일찍 잠에서 깨는 영아들이 들어와 조용한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낮잠을 깬 후 간식시간이 되면 만 2세반인 A, B반은 모두 A반에 모여 간식을 먹고 오후 실내 놀이를 하면서 영아별로 귀가가 이루어지며, 6시가 되면 모든 영·유아들을 통합하여 당직교사가 보육을 한다.

연구대상 어린이집에서 만2세 A, B반의 하루 일과는 <표 1> 다음과 같다.

<표 4> 만2세 반의 하루 일과

시 간	주요 일과	주요 활동 내용
7:30 ~9:00	등원/ 오전통합보육	· 밝은 미소로 영아를 따뜻하게 맞이한다. · 영아의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보호자에게 듣는다. · 당직교사와 함께 유희실에서 자유롭게 놀이한다.
9:00 ~9:30	등원/ 자유놀이	· 각 반으로 가서 겹옷과 가방을 정리하도록 돕는다. · 영아의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당직교사에게 듣는다. · 영아와 놀잇감을 가지고 자유롭게 놀이한다.
9:30 ~9:50	화장실 가기/ 손 씻기	·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한다. · 스스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한다.
9:50 ~10:20	오전간식	·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한다. · 간식 준비와 뒤처리를 영아 스스로 하도록 격려한다. · 제자리에서 먹도록 한다.

10:20 ~11:00	오전 실내 자유놀이 활동	· 교사가 준비한 놀이 활동(노래배우기, 안전교육 등)을 하거나 영아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놀이 활동을 하도록 한다.
11:00 ~11:15	정리정돈/ 전이활동	· 교사가 정리정돈을 하면서 영아도 스스로 제자리에 놓아 보도록 유도한다. · 한 활동에서 다음 활동으로 이어지는 전이 시간에 노래 부르기 등의 짧은 전이활동을 진행함으로써 활동 간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계획한다.
11:15 ~12:00	오전 실외활동	· 준비된 실외활동(바깥놀이터/유희실/산책)을 한다. 우천 시에는 강당 및 실내놀이로 대체한다.
12:00 ~12:40	점심준비/ 점심식사	· 손을 스스로 씻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점심 준비와 뒷정리에 영아를 참여시켜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돕는다.
12:40 ~13:00	양치질/대소 변 가리기	· 스스로 양치질을 하거나 도와준다. · 화장실을 다녀온다.
13:00 ~13:30	특기 활동/ 자유선택활동	· 특기 활동을 하거나 유희실에서 놀이를 한다.
13:30 ~15:30	낮잠 및 휴식	· 개별 침구를 준비한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 주어 낮잠을 잘 수 있도록 한다. · 낮잠을 자기 어려워하는 영아는 조용한 활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15:30 ~16:00	낮잠 깨기/ 화장실 가기 /자유선택활동	· 낮잠에서 깨어나면 잠자리를 정리한다.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하고 자유선택활동을 한다.
16:00 ~16:30	오후간식	· 손을 씻고 스스로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돕는다.
16:30 ~17:00	실내 외 신체활동	· 실외활동(바깥놀이터/유희실/산책)을 한다.
17:00 ~18:00	자유선택활동 /귀가지도	· 자유선택활동을 하며 개인별로 귀가를 한다.
18:00 ~19:30	통합보육 /귀가	· 당직교사에게 인계를 하고 순차적으로 귀가한다.

3) 연구대상 어린이집의 학기 중 입학 영아의 초기적응 프로그램

만 2세반의 영아 입소 현황을 살펴보았듯이 영아들의 입학 시기는 유치원의 유아위주의 교육기관과는 달리 1년 동안 꾸준한 입·퇴소의 변화가 있으며, 영아 개인별로 학기 중 적응프로그램의 중요성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본 어린이집의 영아 초기적응 프로그램은 학기 중 입학영아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학기 중 초기적응 프로그램은 기존의 재원아들의 일과를 방해하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기존의 보육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재원아들의 일과와 분리되고 교사와의 집중적인 적응과정을 위하여 첫 단계는 오후 영아들의 낮잠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영아들의 적응과정은 발달단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사의 세심하고 집중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영아들이 단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프로그램을 계획하여야 한다. 영아들의 적응과정을 보면 환경적응과 일과적응으로 그 순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환경적응은 다시 어린이집이라는 낯선 물리적 환경에 친숙해지는 과정과 교사와 친숙해지는 과정, 또래와의 관계의 과정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일과적응은 최종적으로 어린이집 종일 프로그램의 일과에 적응하는 것으로 환경적응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진행되어야 영아들이 편안함을 가질 수 있다. 일과적응은 다시 오전등원적응, 점심적응, 낮잠적응, 종일반 적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과적응은 단순히 보육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영아들의 적응 과정을 살펴보면, 오전 등원 시 분리불안을 보이지 않았지만, 점심을 먹는 것에 불안함을 느끼고 부적응을 보이게 되거나, 낮잠시간에 불안함을 느껴 등원을 거부하기도 한다. 영아들의 일과적응과정 중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는 것은 단순히 한 두 시간의 보육시간 연장의 의미가 아니라 영아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적응상황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학기 중 입학 영아의 초기적응 프로그램은 <표 5>와 같다.

<표 5> 학기 중 입학 영아의 초기적응 프로그램(만 2세반)

	적응 기간	보육 시간	적응기간 보육의 포인트
1단계 첫걸음 내딛기	1주 (1~5일)	오후 등원 15:00~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를 맞이하기 전 주 양육자와의 면담을 통해 좋아하는 놀이, 장난감이 있는지 알아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주양육자와 함께 등원하여 놀이실의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놀이기구를 탐색한다. • 보육교사는 낮잠시간을 이용해서 신입영아의 적응을 도우며, 재원아들의 요구를 배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신입영아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집중할 수 있다. • 교사에게는 신규영아의 놀이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웃으며 바라보며 관찰을 할 수 있는 기간이다. 2~3일째부터 서서히 다가가며 반응을 보이도록 한다. 조금하계 부모와 떨어뜨리지 않으며, 영아가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엄마와 함께 놀이터에 나온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2단계 또래와 의 만남	2주 (6~10일)	오후 등원 15:30 ~ 1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시간은 재원아들이 하나 둘 잠에서 깨어 조용한 놀이를 하거나 오후 간식을 먹는 시간이므로, 신규 영아가 한두 명의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한다. • 어린이집의 공간과 교사에게 익숙해져 있으므로 또래들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 보호자와 교사의 지지를 얻어 또래에 대한 호기심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교사는 신규 영아가 친구들의 놀이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2단계에서는 주양육자와 공간적으로 잠깐씩 떨어지는 시간을 갖는다. • 2단계의 마지막 날 내일은 오전에 등원할 것을 알리고 영아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3단계 교실에 들어 오기	3주 (11~15일)	오전 등원 10:00 ~ 1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전에 주양육자와 함께 등원하여 교실 앞에서 헤어짐 인사를 하고 식사 전까지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일과를 체험한다. • 3단계 마지막 날은 신입영아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내일 일과를 알린다.(점심을 먹어보자고 제안하고 새

			도시락을 가져오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양육자 없이 지내야 하므로 영아의 생리활동과 좋아하는 음식기호를 파악하여 배려할 수 있도록 한다.
4단계 점심 먹기	4주 (16~20)	오전 등원 10:00~ 1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즐거운 식사시간을 만들고 어린이의 요구에 맞추어 식사에 개입한다. 싫어하는 음식이 있을 경우 권하지 않으며, 부담가지 않을 정도의 양을 배식한다.
5단계 낮잠 자기	5주 (21~일)	종일 보육1 09:00 ~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가 잠잘 준비가 되었는지 알아보고 준비가 되었을 때 시도하며, 집에서 쓰는 이불과 베개를 준비한다. 어린이집에서의 낮잠에 대해 이야기 해주고, 낮잠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시도해 본다. • 집에서 잠잘 때 버릇, 낮잠 자는 시간 등 파악하여 배려한다.
6단계 적응		종일 보육2 09:00 ~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전, 오후 프로그램에 모두 적응된 상태이며, 귀가시 부모가 왔을 때 웃으며 맞이할 수 있다. 이때 종일 보육이라 할지라도 친구들의 귀가모습을 보고 영아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귀가가 빈번한 시간인 5시까지 보육할 수 있도록 부모와 협조를 구한다.

초기적응 프로그램의 각 단계는 영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마지막 6단계는 2개월 이상 지속 될 수 있다. 다음 단계로의 전이가 원활하지 않고 영아가 부적응 반응을 보일 경우에는 다시 전 단계부터 실시하되 조급하지 않도록 하며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느려질 수 있음을 부모에게 알리고 부모의 협조를 구한다.

3. 자료 수집

1) 참여관찰

영아는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워 상황에 따른 맥

략적 이해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어린이집 적응과정에서 보여 지는 영아들의 행동 특성 및 그들을 둘러싼 일상의 세계와 어떻게 교류하며 적응해 나가는지를 역동적으로 탐색하고 연구 참여자의 생활방식과 의식, 감정, 신념의 특성 등을 밝히고자(Bogdan & Biklen, 2003)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학기 중 입학하는 영아들의 적응에 대한 연구가능성 검토를 위해 서술적 참여관찰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참여자 선정의 여건을 고려하면서 연구대상을 넓혀 릴레이식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된 참여관찰은 2010년 8월 2일부터 2011년 2월 25일 까지 총 30주간 수행하였으며 총 관찰 일수는 연구 참여영아가 입학 후 첫 등원 시 부터 시작하여 영아 1인당 3개월~4개월 동안 실시되었다. 관찰 초기 2개월 동안 중 부모와 함께 적응하는 기간 동안에는 매일관찰을 하고 기록을 하였으며, 부모와 분리되어 적응하는 기간 동안에는 주 3회 관찰하였다. 신입영아가 점차 안정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3개월부터는 주 2회 정도 관찰하였다. 관찰 중 영아가 부적응을 보이거나 개별적인 변화를 보인 단계에서는 변화요인을 찾기 위하여 매일 관찰을 하는 탄력성을 가졌다. 연구대상 교사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 연구 일정에 관해 설명을 하고, IPTV로 촬영된 영상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얻었으며, 연구자의 역할을 참여관찰자로 소개하였다.

2) 심층면담

면담(interview)은 사회적 현안을 반영하는 개인들의 삶의 경험을 이해하고 현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질적 연구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Seidman,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찰 과정에서의 의문점이나 관찰을 통해서는 수집될 수 없는 영아 적응과정에서 느끼는 교사와 양육자의 감정, 생각 등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의 형

식은 반구조화된 질문을 주로 사용하며 면담시간은 참여자에 따라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교사와의 면담은 영아의 낮잠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하였고 주양육자와의 면담은 적응기간 동안 매회 비공식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학부모 상담기간을 이용하여 공식적인 면담도 실시하였다. 면담을 하는 동안 연구자는 면담 내용을 약기하고 녹음하여 이를 토대로 전사하여 자료화하였다.

3) 기타자료 수집

면담 및 관찰과 함께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과정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돕고 보다 더 다양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관찰유아의 가정적 배경을 알아볼 수 있는 생활기록부 등 유아의 개별 자료들을 정리하였으며 연구 참여 영아의 신입적응일지, 영아관찰일지, 영아수첩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 6> 연구대상 영아의 자료수집 기간

영아명	관찰기간	연구방법 및 내용
승우	2010. 8. 2 ~ 10.1(9주)	입소 전 개별 상담, 면담, 전화상담, 2학기 부모상담, 영아수첩, 신입영아 적응 일지, 참여 관찰, IPTV촬영 분석, 교사 면담
정민	2010. 8. 16 ~ 2011. 12.17 1.28(24주)	
민규	2010.11.8~2011.2.25(16주)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참여관찰을 전사한 현장노트와 비디오 녹화자

료 및 면담 전사본, 영아수첩, 신입영아 적응일지 등이다. 자료 수집 시에 연구대상 교사와 의견을 나누고 자료 분석을 위해 자료를 요약하여 주제를 찾아 자료의 조직과 분석이 반복적, 순환적, 누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 과정을 보면 먼저 연구자는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귀납적 범주 분석을 실시하였다. 녹화된 자료가 실내 자유선택시간과 일상생활영역에서의 영아와 교사의 정서적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이기 때문에 영아의 정서적 표현에 대한 교사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반응의 문장에 밑줄을 긋고 각 사례를 잘 대변해주는 주제어를 옆에 기록하였으며 다음으로 사례를 모아 재검토를 거듭하며 정교화해가는 작업을 반복하여 범주화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학기 중 입학하는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과정

영아들의 적응 과정을 보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 단순해 보이는 영아들의 행동은 영아들의 주변의 환경과 과거의 경험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으며, 그 연결고리 안에서 나온 행동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아들의 세계를 이해하고 관련성을 찾아내야만 한다. 영아들과 개인적으로 연관된 세계의 경험들은 어린이집 적응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적응을 힘들게 하는 경험세계도 있기 때문에 영아들의 초기 적응은 영아중심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적응을 힘들게 하는 경험세계를 가지고 있는 영아들의 경우 개별적인 적응지도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영아들의 적응과정을 관찰하면서 그 변화에 놀라움과 감동이 밀려 올 때도 있었다. 새로운 세계로 처음 내딛는 그 발걸음은 탄생의 기쁨과 환희를 보는 것과 사뭇 비슷하다고 할 것이다. 고통과 힘들음을 겪으면서 이겨내는 그 손짓과 눈빛의 감동은 관찰을 하는 내내 나에게 경이로움을 안겨 주었다. 영아들의 적응과정은 그들의 세계와 연결된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학기 중 입학한 영아의 초기 적응 과정은 오후 개별 적응과정인 1, 2 단계와 오전 일과 적응과정인 3, 4단계, 종일반 적응과정인 5, 6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경험하였다. 1단계는 영아가 보호자와 함께 안정감을 느끼며 어린이집을 탐색하고, 교사는 영아의 탐색을 위하여 배려하고 영아를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단계이다. 2단계 적응 과제는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영아가 낮잠에서 깬 또래와 만날 수 있는 경험을 하며, 보호자와는 물리적 거리를 두기 시작하여 교사가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

도록 하여 교사와의 애착형성을 도울 수 있는 적응단계이다. 3단계와 4단계는 주양육자 없이 오전일과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점심 전, 점심 먹기까지의 또래와 함께 하는 과정이다. 일과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단체 생활의 지도를 위해서 개별적 요구를 무시하지 않도록 하여 심리적 압박을 주지 않도록 하였다. 종일일과에 적응 단계인 5, 6단계는 등원 및 또래와의 오전일과에 편안함을 느끼고 활동할 수 있을 때 실시하며, 영아가 준비 할 수 있도록 미리 낮잠에 대해 이야기 해주고, 잠잘 때 버릇과 낮잠을 자는 시간 환경을 파악하여 배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리 세심한 적응과정이라도 모든 영아들이 적응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민규 또한 이러한 적응과정에서 또래와의 관계를 위한 배려가 필요하였기에 변형 5, 6단계를 실시하여 개별적 특성을 배려하여 적응을 도왔다.

1) 적응 1단계 : 첫 걸음 내딛기

1단계 적응은 신규영아의 어린이집 환경적응을 위한 단계로 어린이집의 낮잠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이 단계에서 영아는 보호자와 함께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면서 서서히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늘려가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학기 중 입학하는 영아의 초기적응을 위하여 교사들은 업무분담을 통하여 기존 영아들의 낮잠을 통합하여 다른 보육교사에게 부탁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영아들이 등원하기 전에 부모와의 상담을 통하여 파악한 정보를 기초로 영아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준비한 후, 그들을 맞이했다.

(1) 양육자 곁에 머물기

어린이집에 처음 들어오는 영아들의 모습은 엄마와 함께였지만 불안함을 보였으며, 낯선 환경과 교사를 경계 하였다. 시선은 흥미로운 장난감들을 향

해 있었지만 몸은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반응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이때 주양육자인 엄마가 함께 머문다는 것은 어린이집으로 들어오는 영아들에게 안정감을 주어 심리적인 위안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승우는 보육시설이 처음이며 현관을 들어오면서부터 온 몸이 경직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승우와 만 0세의 동생의 적응을 위해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함께 첫 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교사는 승우를 반기며 살짝 스킨십을 유도했으나 승우는 더 경직 되었고, 교사는 거리를 두고 바라보기를 하였다.

승우의 몸은 경직 되어 있었으며, 얼굴의 표정이 없었다. 허리를 편 상태로 할머니 옆에 꼭 붙여 앉아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았고 다른 곳에 눈길을 주지 않았다. 할머니는 승우가 흥미를 끌 만한 자동차 장난감을 들고 “이것 봐, 이것 봐”하며 놀이를 유도 하였고 교사는 연구자와 함께 승우가 더 긴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가서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바라만 보고 있었다.

(2010. 8. 2 승우관찰)

적응 첫날 정민은 엄마와 함께 등원을 하였다. 정민은 어린이집에서의 부적응 경험 때문인지 현관에서 들어오려 하지 않았지만 엄마와 함께 들어와도 된다는 교사의 말에 엄마와 함께 어린이집으로 들어왔다.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엄마 옆에만 있었으며, 엄마한테 놀이기구 쪽으로 가자고 옷을 끌어당겼고, 엄마와 함께 놀이기구에 올라가 미끄럼을 타고 내려왔다. 엄마가 앉아 있을 때는 정민도 옆에 앉아 있었고, 교사가 정민의 주변으로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흥미를 유도하였으나 경직된 상태를 나타내었다. 정민은 한 시간 동안 엄마와 함께 놀이를 하였으며, 교사는 정민이가 놀이에 몰두할 수 있도록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고만 있었다.

(2010. 8. 16. 정민관찰)

민규는 어린이집 현관 앞에서 들어오기를 주춤하였으나 엄마와 함께 들어오라고 하자 들어왔다. 교사의 반갑다는 인사에 엄마 뒤에 숨는 행동을 보이며 교사에게서 거리를 두고자 하였다. 잠시 후 엄마 뒤에서 나왔으며 엄마와 함께 유희실에 있는 놀이기구를 타고 놀았다. 교사가 가까이 가려하면 바로 엄마 옆에 더 바짝 붙었으며, 교사가 다가가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교사는 1시간 동안 민규가 주변에서 민규를 바라보았으며 상호 작용을 억지로 시도하지 않았다.

(2010. 11. 8 민규관찰)

위의 사례들에서 보듯이 영아들은 등원 첫날 어머니나 할머니의 옆에 바

짝 붙어 서서 낮선 환경과 교사를 탐색하였다. 영아들이 좋아하는 놀잇감을 보여주면서 친근감을 표현하려는 교사의 움직임에 영아의 몸은 더욱 경직되었고 양육자의 뒤로 몸을 숨기기까지 하였다.

(2) 양육자 곁에 머물며 교사 바라보기

2~3일이 지나자 영아들은 엄마와 함께 교사와의 상호작용 시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으며, 다가가는 교사에게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교사와의 상호작용 중에도 엄마가 옆에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새로운 환경과 놀잇감에 대해 호기심을 보였다.

승우가 자동차를 좋아한다는 말에 이튿날에는 다양한 자동차 장난감을 준비하여 유희실에 놓아두었으며, 현관에서 들어오면 바로 볼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한참을 자동차를 가지고 교사와 함께 놀이를 했으며,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보인 후 레고 블록을 가져와 차에 실어 보았다. 그 중에서도 포크레인을 좋아했으며 손으로 포크레인 모양을 흉내 내며 작은 블록조각들을 트럭 장난감에 넣었다. 교사가 승우의 포크레인을 흉내 낸 손 모양에 관심을 보이자 승우이도 작은 미소로 반응을 하였다. 승우는 놀이를 하면서도 할머니나 어머니가 옆에 있는지 자주 확인을 하였다.

(2010. 8. 3 승우관찰)

셋째 날 정민은 자연스럽게 엄마와 함께 들어왔으며 경직된 모습은 약간 편안해져 보였다. 이날 정민은 친구들이 오전에 만들어 놓은 작품에 관심을 보였고 옆에서 지켜보던 교사는 정민에게 같은 재료를 준비해 주며 정민에게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하였다. 만들기에 흥미를 보였으며, 교사가 언어적 상호작용을 유도하자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간간히 교사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2010. 8. 18. 정민관찰)

민규는 엄마와 함께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엄마 옆에서 잠시 붙어 있다가 엄마 손을 잡고 유희실을 탐색하였다. 민규가 집에서 소꿉놀이를 좋아한다고 하여 오늘은 야채자르기와 조리도구 소꿉놀이를 준비하고 민규를 맞이하였으나 교사의 관심에 거부반응을 나타내었으며 계속 엄마의 위치를 확인하며 거리가 떨어졌다고 느끼면 엄마 옆으로 바짝 다가가서 앉아 다시 놀이를 하곤 했다.

(2010. 11. 10 민규관찰)

사례에서와 같이 승우는 자동차를 좋아하였으며 정민은 만들기를 민규는 소꿉놀이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교사는 이를 이용하여 영아들의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영아와 상호작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영아들은 놀잇감에 대한 흥미로 놀이를 하였지만 양육자가 곁에 있는지를 의식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다.

2) 적응 2단계: 또래와 만나기

2단계 적응은 오후 낮잠시간을 이용하여 교사의 적응 지도가 실시되며, 양육자가 함께 함으로써 안정감을 가지고 교사와 또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적응시간은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1단계보다 30분 정도 연장하였다. 적응시간은 지루하지 않게 놀이를 하고 끝낼 수 있는 시간이며 보육교사가 낮잠에서 깬 재원아들을 담임교사가 보육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계획되었으며 일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였다. 4시가 되면 낮잠을 깨고 또래 친구들이 하나둘씩 깨어나서 오후 활동을 하게 되므로 신입영아들은 자연스럽게 또래와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신입영아들은 양육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가끔 눈으로 확인을 하였으나 양육자가 보이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고 놀이를 하였다. 교사의 도움을 받아 또래와 함께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언어적인 상호작용은 없었지만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같은 놀잇감을 공유하였고 자연스러웠다.

(1) 엄마와 떨어져서 놀이하기

주말지낸 다음이라 승우가 어린이집에 대해 낯설어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지만 승우는 엄마와 함께 편안한 모습으로 등원을 하였다. 몸의 움

직업은 적었지만 놀이를 하면서 엄마를 찾거나 확인하는 모습은 첫 주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고, 엄마와 약간의 거리를 두고서도 놀이 하는 모습을 보였다.

낮잠 후 일어난 또래아이들과 어울려 고무찰흙으로 음식을 만들어 보았으며, 고무찰흙에 관심을 보였다. 교사가 찰흙을 제시하자 승우는 언어적 반응을 보였으며 또래와 함께 하는 동안 교사와의 상호작용에도 반응을 보임으로써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승우는 엄마 없이도 교실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교실에 있는 동안 어머니는 유희실에서 승우가 놀이를 하다가 엄마를 향해 얼굴을 돌리면 볼 수 있는 곳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승우는 자신이 찰흙으로 만든 음식을 엄마에게 보여주었다. 또래와 함께 교실에 들어서 활동은 했지만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거의 없었고, 교사의 상호작용에 가끔 작은 미소를 짓거나 자신이 해보고 싶거나 관심이 있을 때는 “해봐”라는 반응을 보였다. 승우는 놀이에 몰두하며 미소를 짓다가도 교사나 성인이 보고 있음을 느끼면 바로 경직이 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교사는 옆에서 승우에게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연출하여야 하였으며, 자연스럽게 의도되지 않은 듯이 살짝살짝 스킨십을 유도하였다.

2010. 8. 10 승우관찰

민규는 엄마와 교사와 함께 놀이를 하고 있다가 친구들이 낮잠에서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교사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민규는 친구들의 무리 속에서 엄마가 있어서인지 비교적 안정적이게 놀이를 하였다. 놀이 시 엄마와 거리를 두고도 불안해하지 않았다.

2010. 11. 24 민규관찰

영아들은 양육자와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인지 또래와의 만남에서 거부적인 반응을 하지는 않았다. 즉 영아들은 또래와 처음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낯설어 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자신의 놀이에 몰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놀이공간이 넓히기

양육자와 일정 공간을 떨어져 교사와 함께 놀이를 하며 또래친구들이 하

나들 썩 놀이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신규 영아들은 놀이 공간을 넓히기 시작하였다. 유희실에서 교실로, 자동차를 가지고 놀다가 미끄럼틀을 타기도 하면서 주양육자에게 의존하지 않게 되자 자유롭게 움직임을 보이며 활동공간을 넓혀 나가기 시작하였다.

정민은 엄마가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했으며 친구들이랑 자동차를 가지고 놀았다. 정민은 어린이집 경험이 있어 또래가 등장하였을 때 경계를 하거나 긴장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였다. 엄마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정민을 지켜보며 안정감을 주었다. 정민은 놀이를 하며 몰두하였고 가끔 엄마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면서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또래들이 있는 교실에 들어가 놀잇감을 만지기도 하였다.

(2010. 8. 25 정민관찰)

2단계 적응기간 동안 정민은 엄마의 옷을 잡고 있지도 않았으며, 또래와의 상호작용도 활발해지는 등 1단계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정민은 분리불안으로 인해 부적응을 경험했지만 어린이집에서의 또래와의 경험은 정민의 적응에 도움이 되는 듯하였다. 정민의 적극성은 양육자와 함께 하는 데서 오는 안정감이 기반이 되어 과거의 부적응의 경험 또한 새로운 적응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2단계에서 영아들은 엄마의 곁에서 서서히 또래, 교사의 곁으로 다가와 놀이하기 시작하였으며 엄마와 분리되는 것도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엄마가 인사를 하고 나가자 민규는 교사에게 안겨 잠시 있다가 놀이에 몰두하였으며, 계속 동생을 챙기고, 옆에서 도와주는 행동을 보였다. 엄마와 함께 있을 때의 동생과의 관계와 엄마가 없을 때의 동생과의 관계에서 민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으며, 민규는 엄마가 없자 동생이 엄마와 있는지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었으므로 동생과의 관계가 편안해 졌으며, 놀이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0. 11. 25 민규관찰)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민규는 엄마와 동생과 함께 등원한 후 10분 정도 엄마와 함께 탐색을 하였고, 엄마와 거리를 두어도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러

나 동생이 엄마와 함께 있는 것에 불안함을 보이는 것을 보고 엄마와 잠시 분리를 계획하였다. 민규에게 미리 분리될 것을 알리고 다음날 엄마와 헤어지는 인사를 하였다. 첫날은 엄마와 떨어지는 것에 거부하였기에 민규의 요구에 응하였고 다음날 엄마와의 분리를 다시 시도하였으며 민규도 엄마와의 분리를 받아들였다.

(3) 또래에 대한 관심과 거부하기

정민이의 과거 어린이집 경험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도움이 되었던 것과는 달리 민규는 과거의 어린이집 경험이 또래와의 관계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주양육자와 거리를 두며 놀이에 몰두하는 경향은 보였지만 놀이도 중 또래가 가까이 다가오면 반사적으로 손을 올려 때리려는 반응을 보이며 방어의 자세를 취하며 거부를 하였다. 민규는 전에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또래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였고 무리에 속하지 못하였으며 또래에 대한 관심의 표현으로 때리거나 물거나 등의 행동을 보였다고 하였다.

유희실에서 친구들이 자동차를 밀고 다니며 놀고 있었다. 민규는 잠시 후 친구가 자동차 모형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자 다가가서 자동차를 가지고 온다. 자동차를 빼앗겼음에 화가 난 영아는 민규에게 와서 달라고 하지만 민규는 자동차를 가지고 그냥 가 버린다.

(2010. 11. 22 민규관찰)

민규는 종합놀이기구에 올라가 미끄럼틀을 타고 놀다가 다른 또래가 놀이기구로 올라와서 미끄럼틀을 타기위해 민규 곁으로 다가오자 순식간에 손으로 밀어 버린다. 놀란 친구는 울어 버리지만 민규는 모른척하고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온다.

(2010. 11. 23 민규관찰)

민규가 보이는 또래에 대한 거부는 단순히 싫음에 대한 거부가 아닌 관심의 표현도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래가 갑자기 다가왔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때리거나 밀치는 행동을 보였지만, 민규는 친구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는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기도 했으며, 그 놀이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그 놀잇감을 가짐으로써 함께 하고자 하였고 그러한 행동은 늘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던 민규가 알고 있는 유일한 관심의 표현 방법이었다.

3) 적응 3단계: 교실에 들어오기

3단계 적응은 오전프로그램의 일과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교실 앞에서 엄마와 헤어짐 인사를 하고 점심 전까지의 오전 프로그램을 주양육자 없이 또래와 함께 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 영아가 양육자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 할 경우 양육자는 교실 밖에서 안정이 될 때까지 머무를 수 있도록 하여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초기적응 3단계는 오전 10시에 등원을 하여 점심식사 전까지 주양육자와 떨어져 또래와 함께 어린이집 일과에 적응을 하였다. 오후 적응 2주가 지나고, 오전에 등원을 하면서 지금까지처럼 주양육자와 함께 할 수 없었으므로 영아들이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주말동안 가정에서는 오전에 등원하는 것과 이제부터는 엄마와 함께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였고 점심을 먹고 엄마가 데리러 올 것임을 말하고 당황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관에서 엄마와 잠시 헤어짐 인사를 하고 오전 일과 적응 단계를 시작하였다.

(1) 분리불안 극복하기

주양육자와 떨어지는 경험은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에 앞서는 것 같았다. 새로운 세계로의 흥미와 관심은 양육자와 떨어져 혼자 해야 한다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불안감으로 나타나지만 잠시 잊혀 지면서 영아들의 적응은 매우 빠르게 회복된 듯, 주양육자가 없음에도 다시 안정된 모습을 찾기 시작하였다.

아빠와 함께 등원한 정민은 문 앞에서 인사하고 헤어지려는 아빠를 꼭 잡고 떨어지지 않았다. 아직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아빠와 함께 어린이집으로 들어오도록 하였다. 교실에는 아빠와 함께 들어갈 수 없음을 알리자 정민은 아빠의 옷자락을 꼭 쥐며 교실에 들어 가려하지 않았다. 교사는 다른 아이들과 정민을 데리고 유희실로 가 또래들과 함께 놀이하도록 했으며, 아빠는 이를 지켜보도록 하였다. 정민은 아빠가 지켜보는 가운데 30분정도 놀았으나 끝까지 교실에 들어오기를 싫어하여 아빠와 함께 귀가하도록 했다.

(2010. 8. 31 정민관찰)

3단계 적응 첫날 민규 엄마는 동생을 데리고 민규를 등원시켰다. 엄마와 현관에서 인사하고 민규 혼자 들어올 것을 말하고 엄마에게 인사를 하도록 하자 민규는 엄마에게 계속 안아 달라고 하였다. 어머니는 민규를 계속 안아주었고 5분정도 지나자 서서히 안정을 찾았다. 들어가자는 교사의 말에 울먹였지만 엄마와 인사를 하고 교실로 들어왔다. 잠시 동안 교사가 안고 있자 울음을 그치고 교사와 함께 놀이를 하였다. 잠시 후, 미비하지만 친구들과 조금씩 상호작용을 시도하였다.

(2010. 11. 30 민규관찰)

민규의 어머니는 민규가 울먹이며 교실로 들어가자 집에 가지 못하고 복도에 머무르며 민규의 상태를 살피고 계시다가 어린이집 원장인 연구자와 상담을 하였다. 민규는 어린이집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낮잠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집에 늦게 가게 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엄마: 민규가 울음을 바로 그치네요. 조금 놀랐어요. 몸부림 칠 줄 알았는데…….

인사 도하구요

연구자: 저도 생각보다 민규가 잘 해주는 거 같아요.

엄마: 오늘은 몇 시에 올까요. 민규가 낮잠 안자고 오고 싶다고 해서 그러자고 했어요.

(2010. 11. 30 민규어머니 면담)

민규의 어머니는 민규의 요구에 잘 따라 주셨고 다음날 민규는 약간의 울먹임은 있었지만 전날보다 가볍고 짧았으며, 교사와 함께 교실에 잘 들어와

어머니가 오실 때까지 또래들과 어울려 놀이했다.

분리 둘째 날 현관에서 엄마와 헤어질 때 약간의 울먹임은 있었지만 어제보다 가벼웠고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민규는 어제와 같이 잘 적응을 했으며, 친구들과도 어울렸다. 아직 친구와의 상호작용이 많지는 않았지만 엄마를 보고 싶어 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고 엄마가 오자 웃으며 귀가 하였다.

(2010. 12. 1 민규관찰)

이와 같이 영아들은 부모와의 헤어지는 순간을 견디기 어려워했지만 영아의 요구에 따라 주는 부모와 교사의 반응 또는 영아의 적응속도에 맞추는 분리 등으로 서서히 분리불안을 극복해 나갔다.

(2) 친구들과 신나게 놀기

입학 초기 승우어머님과 상담으로 집에서는 활동적인 모습을 보인다고는 하였지만 실제로 승우가 자유롭게 활동하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 교사와 연구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물총놀이를 할 수 있도록 승우에게 물총을 주니 나무와 풀에 물총을 쏘며 놀았다. 아직 또래와 어울려 놀이를 하지는 않았지만 얼굴에서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주 동안 경직이 되어 있던 몸은 친구들과의 바깥놀이를 통해 이완이 되었으며, 지금까지의 실내에서 교사와 함께 했을 때와는 다른 편안하고 활발한 반응이었다. 바깥놀이를 마치고 원으로 오자 할머니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기다리고 계셨는데 굉장히 밝은 미소로 달려갔으며 그동안 기분 좋게 놀이했음을 보여주었다.

(2010. 8. 16 승우관찰)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승우는 다른 또래들과 같이 뛰어 노는 것을 좋아했으며 승우의 변화는 승우 어머니와의 상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승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어머니도 승우의 적응에 놀라움을 나타내셨고 매우 기뻐하시며 대견해 하셨다.

어린이집 입학 전, 승우의 어머니는 승우가 적응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

했으며 첫날 절대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힘들지 않을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도 했었지만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표현하셨다.

승우가 집에서는 이쪽에서 저쪽까지 뛰어다니며 놀아요. 어린이집에서 지금까지 못 놀았던 것을 다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오늘 신이 난거 같아요. 집에 삼촌이 와도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거나 경적이 되는데 친구들과 잘 놀았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놀랐어요.

(2010. 8. 16 승우어머니 면담)

3단계의 정민이의 적응 속도는 어린이집 경험이 있어서인지 어린이집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이 사라지면서 매우 빨리 적응하고 있었다. 모든 것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이었으며, 활발한 행동을 보였으며, 처음의 정민이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유희실에서 A, B반이 영아들이 모두 나와 대근육 활동을 하고 있었다. B반인 성범이와 민지가 괴물놀이를 시작하였고 성범이가 괴물소리를 내며 민지를 잡으려 하였고 민지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며 도망을 다니며 놀이를 하였다. 지우는 화장실에 잠시 들렀다가 B반 친구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 괴물인 성범이의 반대편으로 도망가기 시작하면서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였다. 정민은 도망가다가 놀이기구 터널로 들어가 숨고 나오고를 반복하며 땀이 흠뻑 날 때 까지 놀이를 하였다.

중략

정민은 괴물놀이가 끝나자 스스럼없이 B반 교실로 들어와 윤민과 레고 블록을 한 개의 판에 서로 한 개씩 끼우면서 놀이를 하였다. 정민은 자신이 블록을 끼우고 나서는 윤민이가 끼울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가 자신의 블록을 끼우며, 한참을 놀이한다.

(2010. 9. 3 정민관찰)

정민은 A반이고 함께 놀이를 하였던 친구들은 모두 B반 친구들이다. 종종 영아들이 놀이를 할 때 A반, B반을 나누기도 하였지만 정민은 상호작용이 많지 않았던 B반 친구들과의 놀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4) 적응 4단계: 점심식사 하기

적응 4단계는 3단계에 이어 어린이집 일과 적응의 연장단계이다. 4단계에서는 주양육자 없이 어린이집에서 오전프로그램에 적응하고, 오전 간식과 식사 지도를 포함하여 주양육자와 떨어져 5시간 정도를 혼자서 생활하게 되었다. 식사지도에서는 적정량의 식사를 주어 부담감을 없애고 싫어하는 음식이나 먹기를 거부할 경우 영아의 요구를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영아들이 거부하는 음식은 억지로 먹도록 권유하지 않았다.

주말을 지낸 월요일은 점심 전에 귀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날부터 식사 지도를 하였다. 적응 4단계에서부터 영아들은 어린이집에서 머무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 나가 10시 등원에서 9시 등원으로 시간을 바꾸어 등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간을 늘려 식사 후 프로그램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오전일과적응을 준비하였다. 4단계 적응은 영아의 적응속도에 따라 1~3주 동안 진행되었다.

(1) 또래 따라 먹기

식사지도 전에 부모와의 상담을 통하여 영아들의 식습관을 알아보았다. 승우는 낮가림이 심하여 낮선 상황에서는 잘 먹지 않았고, 정민은 음식에 대한 흥미가 없는 듯 음식을 입에 물고 있어 매우 느리게 먹는다고 하였다. 특히 승우는 낮가림이 매우 심하여 음식을 거부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였으나 또래들의 먹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먹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천으로 숲 체험 프로그램이 연기되면서 대체활동으로 간단한 놀이를 하고 교사와 함께 엄마가 싸 주신 간식도시락을 실내에서 먹어야 했다. 교사는 친구들의 간식도시락을 식탁에 놓아주고, 간식지도를 하였다. 승우는 먹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교사가 도시락을 꺼내어 식탁에 놓아주자 잠시 후 다른 또래들이 먹는 모습을 본 후 스스로 먹기 시작하였다.

(2010. 8. 18 승우관찰)

승우가 도시락을 다 먹었다는 교사의 말에 어머니는 매우 놀라워했다. 승

위의 어머니는 낯선 곳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 승우이기 때문에 도시락을 준비하면서도 먹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였다.

집 외에는 낯선 곳에서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아요. 그리고 집에서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오면 음식을 먹지 않는데 도시락을 먹었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도시락을 준비하면서도 승우가 먹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2010. 8. 18 승우어머님 상담)

교사는 적응기간 동안 영아가 먹기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음식이 있을 경우 영아들에게 억지로 먹도록 권유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

식사시간이 되어 교사가 도시락을 꺼내 오도록 하였고 정민이도 도시락을 꺼내 자리에 앉아 배식을 받았지만 매운 김치를 보자 부담이 되었는지 먹기를 거부하였다. 정민이가 (김치를 보고) “안 먹고 싶어요.” 한다. 그러자 교사는 “그래 먹지 마, 그런데 내일은 먹어보자, 이렇게 국물에 씻어서 먹으면 안 매워”라고 말한다. 잠시 후, 정민은 친구가 김치를 국물에 씻어 먹는 것을 보고 따라서 먹는다.

(2010. 10. 13 정민관찰)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정민은 김치가 먹고 싶지 않다고 하였으며 이에 교사는 먹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정민이가 김치를 먹지 않는 이유가 먹으면 매워서 입을 알고 씻어 먹으면 안 맵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정민은 교사의 배려에 안심한 듯 점심을 먹다가 친구들이 김치를 씻어 먹는 모습을 보고는 스스로 친구들처럼 김치를 씻어 먹었다.

(2) 개별적 식습관에 따라 먹기

좀 더 효과적인 4단계 적응을 위하여 교사는 영아들의 식습관을 부모들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중에서도 민규는 예민하고 입이 짧아 음식을 많이 먹지 않으며,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면 잘 먹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특히, 계란이 들어간 음식에 아토피가 있어 어머니가 신경을 쓰고 있었다. 음식에 대한 무관심과 아토피, 활동량에 비해 매우 적은 양을 먹는 민규는 매

우 마른편이었으며 어린이집에서도 밥 먹는 것을 즐겨 하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민규는 밥을 먹다가 화장실에 혼자 다녀와서 밥을 한 수저 먹고 교실을 빙빙 돌아다녔다. 잠시 후 교사가 수아를 데리고 화장실에 갔는데 이 때문이듯 민규는 자리에 앉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문 앞으로 가서 교사를 기다리듯 밖을 보았다. 잠시 후 교사가 들어오자 자리에 앉았다. 민규는 점심시간 내내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고, 계속 상체를 뒤틀거나 다리를 들어 의자위에 올리거나 하면서 밥을 먹지 못하였다.

(2010. 12. 7민규관찰)

연우: 이렇게 민규처럼 먹으면 안 돼

아현: 숟가락으로 먹어야 돼

연우: 이거 반찬은 젓가락으로 집어 먹어야 돼. (아현이를 보고) 지금 너 밥 안 먹고 있잖아

아현: 먹고 있어

민규: 친구들의 대화를 듣고 조용히 수저로 밥과 국을 먹는다.

교사: 애들아 민규한테 잘 먹는다고 얘기해 줘

친구들: (친구들이 한명씩 말을 해주었다) 민규야 잘 먹어.

(2010. 12. 15 민규관찰)

그러나 민규는 어린이집에서 밥을 잘 먹어야 하고 이것을 엄마가 좋아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음을 엄마와의 대화 속에서 알 수 있었다.

민규가 오전 모든 일과에 적응을 하면서 차량으로 귀가를 하였다. 민규의 식사지도에 관심을 가지고 민규의 어머니는 차량에서 내리는 민규를 환하게 웃으며 맞이하면서 “오늘은 밥 많이 먹었어?” 라고 물었고 민규는 기분 좋게 “많이 먹었어?” 라고 자랑하듯 말을 하였다. 민규는 밥을 먹어야 됨을 알고 있었으며 그렇게 말을 하면 엄마가 기뻐하는 것을 알았고, 엄마의 칭찬을 들었다. “그럼 맛있는 과일 줘야겠네! 라고하며 민규를 칭찬하였고 칭찬을 받으며 기뻐하였다.

2010. 12. 15 민규관찰

따라서 교사는 민규의 식사지도를 위하여 어머니와 상담을 하였고 억지로 지도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식사시간 또래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

회를 주기 위하여 민규가 좋아하는 감이나 과일을 적응될 때까지 친구들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로 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식사시간에 교사의 도움으로 도시락을 꺼내서 앉아서 배식을 받았고 좋아하는 단감이 나오자 단감 배식을 기다렸다. 잠시 후 기분이 좋았는지 배식 받은 단감을 들고 흥얼거리며 노래를 하다가 교사에게 가서 “ 식 식” 하며 비행기처럼 소리를 냈다. 다시 단감을 들고 다른 친구들이 있는 책상에 가서 비행기처럼 흔들었다. 민규가 밥을 다 먹지 않고 단감을 들고 돌아다니자 교사가 앉아서 먹도록 하였다.

(2010. 11. 10 민규관찰)

4단계 적응기간 동안 민규는 보육시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불안해하거나 민감하지 않았으나 식사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식사시간 내내 몸을 비틀거나 주위의 물건에 관심을 가지거나 하였다. 민규의 식습관 태도는 집에서 보이는 행동이라고 하였으며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이 불안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느껴서는 아니었기에 앞으로 꾸준한 식사지도가 필요하겠지만 간식과 점심을 거부하는 민규를 위해 민규가 좋아하는 과일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여 굶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민규가 가지고온 과일간식은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지루하기만 한 점심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적응 5단계: 낮잠자기

5단계 적응은 오전프로그램 일과에 모두 적응한 후에 실시하는 단계로 등원 및 또래와의 오전일과에 편안함을 느끼고 활동할 수 있을 때 실시하며, 종일반 적응을 위한 첫 단계이기도 하다. 5단계는 영아가 잠잘 준비가 되었는지 알아보고 준비가 되었을 때 시도하며 집에서 쓰는 이불과 베개를 준비하도록 한다. 영아가 준비 할 수 있도록 미리 낮잠에 대해 이야기 해주고,

낮잠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하며, 집에서 잠잘 때의 버릇과 낮잠자는 환경을 파악하여 배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기적응과정에서 영아의 불안증상은 수면장애로 나타났다고 한다(류경, 2000). 낮잠에 대한 부적응은 재원아들에게도 나타나기 때문에 서두르거나 심리적인 압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하였다.

(1) 교사의 배려: 안아주고 토닥여 주기

연구자의 경험에 의하면 낮잠에 대해 불안해하는 영아들이 매우 많았다. 어린이집에 적응을 하고 재미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영아들이 낮잠을 시도하면서 어린이집에 오지 않으려 하고, 그러한 경험은 다시 낮잠을 자지 않도록 해도 남아 있어 어린이집에 대한 거부로 나타나 퇴소를 하는 영아들도 있었다. 특히 민감하고 예민한 성격이거나 내향적인 경우가 그러했으며, 승우의 경우도 내향적이고 예민한 경향이 있었으므로 낮잠에 대해 조심히 다가가기로 하였다. 즉, 승우의 편안한 낮잠을 위하여 낮잠 습관을 알아보았으며 당분간 매주 월요일은 오후 1:30 하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승우의 상태를 살펴 낮잠에 대한 심리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어머니와 협조하여 실시하였다.

승우는 특별하게 애착물건이 없었고 집에서는 낮잠을 잘 자지 않으려고 하지만 한번 자면 푹 잔다고 하였다. 가정에서의 낮잠시간은 보통 3시간이 하라고 하였다. 아직 어린이집에서의 낮잠을 자는 것이 불안한지 한 시간가량 낮잠을 잤으며, 당분간은 승우가 일어나자마자 어머니가 하원지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승우가 어린이집에서 어떤 과정으로 낮잠자기를 시도하며 적응해 나가는지에 대한 사례들이다.

교사: 승우야 친구들하고 같이 여기 누워서 자자 오늘은 잠자고 일어나면 엄마오실거야

승우: (심하게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울어 버린다)

교사: (승우를 앉고 토닥거린다)

승우는 교사무릎에 앉아서 졸다가 깨다 하면서 첫 낮잠을 시도하였다.

(2010. 9. 8 승우관찰)

어제와 같이 낮잠을 시도하였고, 어제와 같이 울었지만 교사가 안아주며 달래주니 교사의 무릎에서 잠시 잠이 들었다.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교사가 자리에 눕히니 깨어 울었고 교사가 함께 누워서 등을 토닥토닥해 주니 스프르 잠이 들었다.

(2010. 9. 9 승우관찰)

낮잠 3일째 처음 승우가 가지고온 이불에 누워 낮잠을 시도하였다. 교사는 승우와 함께 누워서 마주보며 승우를 안아주거나 토닥거리 주었다. 울지는 않았지만 승우를 똑바로 눕히자 승우의 다리를 산 모양으로 올려 힘을 주고 있었으며, 교사가 쪽 퍼 주려고 했지만 힘이 들어 있어 그대로 두었고, 승우는 40분정도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도 울지 않았다. 교사는 일어난 승우를 사랑스럽게 안아주었다.

(2010. 9. 10 승우관찰)

낮잠을 시도한지 일주일이 지나자 낮잠을 잘 때 울지 않았으며, 자고 일어나서도 울지 않았다. 2주째부터는 낮잠 후 간식을 먹어보도록 했으며 처음에는 거부했으나 또래 친구들이 먹는 모습을 보고 간식을 먹기 시작하였다. 승우가 낮잠을 자기는 하였지만 잠자리에 들 때 몸이 경직이 되어 있었고 무릎을 올린채로 다리에 힘을 주는 것을 보고 승우의 편안한 잠자리를 위하여 전화로 상담을 하였다.

승우가 집에서도 똑바로 눕지 않고 꼭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자요. 아마 그래서 그럴 거예요 옆으로 눕혀 주시면 될 거 같아요.

2010. 9. 10 부모상담

승우의 성공적인 낮잠자기는 가정에서의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어머니와의 면담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승우가 낮잠을 푹 자고 오는 것 같아요 집에 오면 활기가 있어요. 예전보다 더 잘 놀고 활동해요 집에 있을 때는 낮잠을 잘 자지 않았거든요. 한번자면 3시간도 자는데 피곤해도 낮잠을 자지 않으니 저녁이 되면 피곤해 했는데 어린이집에서는 다들 자니까 승우도 자는 거 같아요.

2010. 9. 15 부모상담

2주 동안의 4단계 적응기간 동안 큰 부적응 없이 낮잠까지 적응을 하였다. 승우의 낮잠자기를 시도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부적응이 나타날 수 있음을 예상하였지만 교사의 세심한 배려는 승우에게 안정감을 주어 부적응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다. 낮잠을 시도하기 전 미리 승우에게 알리고 승우가 준비가 되었을 때 실시하였으며, 잠에서 일어나서 바로 엄마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승우에게는 편안함을 주었으며 무엇보다 승우가 준비할 수 있도록 천천히 적응과정을 준비하였기에 적응이라는 심리적인 충격이 적었던 것으로 보였다. 즉, 승우를 비롯한 다른 영아들의 낮잠 적응은 영아의 개인차를 인정하고 가정과 어린이집의 배려가 세상에 적응을 시작하는 영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변형된 적응 5 단계: 또래와 함께하기

변형된 적응 5단계는 민규의 적응과정에서의 개별적인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낮잠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또래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단계이다. 민규의 적응과정은 단순히 어린이집이라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엄마와의 불안정한 애착의 개선, 동생과의 관계개선, 어린이집에서의 부정적 경험 개선이라는 복잡하고 심리적인 변화의 과정을 병행하고 있다. 어린이집 부적응 경험이 있는 민규는 2010년 11월 어린이집에 입학하면서 엄마와 분리되는 것에 극도의 경계심을 보였지만 오후 개별화 적응 과정을 거치면서 교사와의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였고, 엄마와의 분리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였으나 또래와의 관계에서 함께 놀이를 하거나 흥미를 느끼지 못하였고 또래의 접근에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불안함을 나타내었고, 점심시간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 오전 일과적응과 또래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적응과정을 민규에게 가장 필요한 '또래와 함께하기'로 수정하였다. 이러한 수

정계획은 지금까지의 민규의 적응과정을 관찰한 결과이며 어머니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 민규가 엄마와 편안한 분리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린이집 생활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고 집에서도 부정적인 행동이 줄고 동생과의 관계가 좋아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머니는 민규의 적응과정을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 주기로 하셨다. 민규의 5단계 적응 기간은 2010년 12월 13일부터 12월 24일까지이며, 적응내용은 또래와 함께 하기 위해 민규가 친구에게 관심을 갖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행동을 배워 보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다.

민규는 친구를 거부하며 혼자 놀이를 하면서도 몰두하지 못하였고 늘 친구들의 놀이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민규의 그러한 관심은 친구들의 놀이를 잠시 동안 바라보다가 곧 친구들의 놀잇감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지고 나오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동은 또래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었지만 잘못되고 어긋난 방법이었던 것이다. 즉, 놀이에 참여할 수 없었던 민규는 놀잇감을 가짐으로써 놀이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였고, 그러한 행동에 친구들이 거부하는 반응을 하면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속상한 듯 화를 내는 행동을 했다.

수업재료를 책상에 놓고 교사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민규는 교사가 일어난 자리로 이동해서 앉았다. 연아와 민규가 수업재료를 꺼내서 만지고 논다. 민규는 갑자기 연아가 가지고 놀던 재료를 자기 앞으로 가져와 버린다. 연아가 교사에게 이르며 “하지마” 라고 말하자 민규는 바닥에 침을 뱉는다.

(2010. 12. 14 민규관찰)

민규가 아현이 가지고 놀던 가스레인지 장난감을 빼앗아 간다.

아현: (울먹이며 소리를 지른다)아~양~

교사: (민규의 얼굴을 보며)민규야 친구한테 말하고 가져와야지

민규: (교사의 중재에도 가스레인지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 버렸다.)

잠시 후 민규는 블록영역에서 놀이를 하다가 소꿉영역의 연우에게 가서 연우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빼앗아 갔다. 연우가 민규에게로 가서 장난감을 만지자 민규가 얼른 못 만지게 숨겨 버린다.

(2010.12.15 민규관찰)

민규는 교사와 함께 교구수업을 하거나 식사를 할 때 집중하여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였고, 계속해서 의자를 바꾸어 가며 앉거나, 놀이를 하고 있는 친구의 장난감을 자꾸 가져오는 행동을 하였다. 다시 친구가 자신의 놀잇감을 찾으려 하며 민규에게 다가가면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싫어”, “안 돼” 하며 장난감을 뒤로 숨기거나 멀리 거리를 두기 위해 유희실로 나가 버렸다. 민규는 언어발달이 빠른 편이었지만 또래와 언어적 상호작용을 전혀 하지 않았고, 거부하거나 화를 표현하기 위한 표현만 하였다. 또래와의 관계에서 부적응을 보이고, 친구나 교사의 관심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민규는 어린이집에 오기 싫어하지는 않았고, 또래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교사는 민규를 도와주기 위해 민규의 행동을 관찰하였고 잘못된 행동을 타박하기보다 또래들의 놀이를 관찰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래와의 관계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민규가 친구와 놀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 꾸준하고 침착하게 행동하였다. 교사는 민규의 행동에 다른 친구들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 기울였고 민규에게 말로 설명을 하면서 부드러운 태도를 취했다.

민규가 일어나서 유희실을 걸어 다닌다. 몸에 힘을 빼고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친구들이 놀고 있는 곳에 가서 잠시 서성이기도 하면서 주위를 관찰하며 친구들의 놀이를 관찰하고 있었다. 잠시 후 교사에게 와서 무릎에 앉았다.

교사: 친구들이 뭐하고 있어?

민규: (친구들을 쳐다본다)

교사: (친구들이 매트를 자판처럼 손으로 치면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컴퓨터 놀이 하네

민규: 가만히 듣고 있다.

(2010. 12. 22 민규관찰)

민규의 마음을 읽은 교사는 민규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았고, 또래에게 관

심을 갖도록 하였으며, 꾸준히 언어로 모델링을 하였고, 함께 놀이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민규의 마음을 읽어 줌으로써 민규는 자신의 행동을 자제하였고, 서서히 또래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양치가 끝나고 교실에서 교사가 영아들의 손을 잡고 큰 둥근 원을 만들어 안으로 들어가 줄어들었다. 밖으로 나와서 켜졌다 놀이를 하였다.

교사 : (서로서로 손을 잡고 원을 만들어 뒤로 나가면서) 꽃잎이 폈어요.

(안으로 들어오면서) 꽃잎이 오그라들었어요.

민규가 화장실에서 갔다 와서 친구들이 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재미있어 보였는지 가까이 가서 바라보고 있다.

교사: 민규도 끼워 주자.

민규는 친구들 사이에 들어와 손을 잡고 함께 큰 원과 작은 원을 만들어 보는 놀이를 하면서 신나는 듯 웃었다.

(2010. 12. 17 민규관찰)

6) 적용 6단계: 종일반 적용하기

6단계 적용은 어린이집에서의 모든 생활에 적용한 단계로 보호자 없이 시간적으로는 오전에 등원하고 오전 프로그램과 낮잠 및 오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부모를 맞이할 때까지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다. 공간적으로는 원의 모든 환경을 받아들이고 생활을 자신의 생활로 받아들이고 활동함에 있어 불편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며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불안하지 않은 것과 편안한 것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최대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6단계 적용은 마지막 적용단계로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단계라기보다 영아가 긴 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있으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단계이다.

보육시간은 오전 9시부터 5시까지이며, 친구들의 귀가 모습을 보고 영아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친구들이 귀가하는 5시까지 보육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6단계 적응에서 적응영아들은 어린이집 생활에서 재미를 느끼며 또래와의 놀이에서 수동적인 놀이에 멈추지 않고 또래와 교사를 자신의 놀이에 초대하는 적극성을 보이며 놀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1) 또래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 시도하기

신입 영아들은 몸짓이나 표정, 소리 등을 주로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였고 언어적 상호작용은 거의 없었으나 적응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의사나 감정을 말로 표현하였고, 언어적 상호작용이 증가하자 또래와의 놀이에서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다. 소극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던 승우는 친구들을 자신의 놀이에 초대하는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아직은 자신이 없는지 들릴까 말까 하는 작은 소리였지만 친구들을 놀이에 관심을 보이며 자신의 놀이에 초대하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승우는 친구들과의 놀이 집중시간이 길어졌으며, 교사의 중재나 도움이 없어도 스스로 참여하였고 친구와 함께 어울렸다.

오전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승우는 도서영역과 소꿉영역에 잠시 들렀지만 흥미 거리를 찾지 못하고 바로 나왔다. 친구가 기차를 교구장 위에서 굴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잠시 보다가 다시 책상에 친구들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승우도 앉았다.

친구1: (친구2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방구 꺾었구먼! 방구 꺾었구먼!

(음률을 넣어 재미있는지 반복한다.)

친구2: 아냐~(재미있었는지 친구1과 친구3에게)방구 뺑~하하

친구1: 방구 뺑~(웃는다)

친구2: 승우 방구 꺾지?

승 규: (화내지 않고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아니~

친구2: 승우 집에서 방구 뺑~

승 규: (재미있다는 표정으로)아닌데(승우도 같이 웃는다.)

(2010. 9. 29 승우관찰)

사례에서와 같이 승우는 책상에 앉아 놀이하는 친구들의 곁에 스스로 다가가 앉는 행동을 통해 함께 놀이하고 싶은 마음을 친구들에게 전달하였다. 친

구들은 “승우 방구 껴지?” 하며 승우를 자연스럽게 놀이에 참여시켰으며 승우도 “아니”라는 말을 했지만 표정과 행동에서 재미있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승우의 변화는 승우어머니와의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승우가 집에 와서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것을 신나게 이야기 하고 배운 것을 다 해요. 홈페이지에 활동사진들을 보며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어린이집에서 배웠던 것을 계속해요. 어린이집에서 못한 걸 다 하는 거 같아요.

2010. 12. 24 승우어머니와의 면담

정민이 또한 어린이집에 적응이 되었는지 또래와의 놀이에서 언어적 상호작용이 많아 졌으며, 또래의 말을 재미있게 따라 하기도 하고,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민과 윤찬이가 도서영역에서 좋아하는 공룡그림책을 보고 있다가 정민이가 윤찬의 말이 재미있는 듯 따라 하며 웃었다.

윤찬: (그림책의 공룡그림을 가리키며 설명을 한다) 이건 여기 쪽 가서 있어

정민: (따라 하며)여기?

윤찬: (공룡을 하나씩 가리키며 공룡이 생존하지 않음을 말하며) 애도 죽었고, 애도 죽었고, 애도 죽었어.

정민: (따라 하며 웃는다) 죽었어~

(2010. 10. 11 정민관찰)

정민이의 초기적응 기간 동안의 특징은 3단계까지는 매우 느리고 힘든 적응을 보였었다. 어린이집에 대한 부적응의 기억은 정민이가 어린이집을 신뢰하는데 있어 더디게 진행하도록 하였으나 서서히 교사와 어린이집 신뢰를 갖고 종일반에 적응해 나갔다.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조용하지만 배려하는 성향의 정민을 친구들이 좋아했고 또래와의 관계는 엄마가 없는 어린이집에서 즐거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민: (자동차를 블록영역의 교구장과 바닥에서 굴리며 놀고 있다)

영우: (정민이 자동차를 가지고 혼자 노는 모습을 보고 정민에게 다가가서
자동차 하나를 들고 정민에게 내민다) 이거(하자)?

정민: 아냐~

우영: (다시 벽돌블록 한 개를 꺼내며) 이거 해보자.

정민: 아 이거 아냐. (다른 블록 한 개를 꺼내며 우영이의 말을 따라 한다)
이거 해보자. 이거

우영: 아냐

정민: (우영의 말을 따라 반복하며)아냐

우영: 아냐

정민: 아냐

(서로의 말을 반복하다가 반복되는 말이 재미있는지 웃으며 계속한다)

(2010. 9. 17 정민관찰)

(2) 교사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승우는 소꿉놀이에서 음식을 차리며 놀고 있었다. 주격으로 음식모형을 떼서 그릇에 담아 낮은 교구장 위에 음식을 차리고 있다가 연구가가 들어오자 음식 차린 것을 가리키며 먼저 말을 걸었다. 승우는 소근육이 발달해 국자로 음식모형을 하나하나 떼올려 그릇에 능숙하게 담았다.

승우 : 이거 국, 밥, 우유야 손 씻었으니까 먹어봐

연구자: 음 맛있다.

승우: 먹을 거 많이 왔다.(계속음식을 만들다가 음식모형이 더 이상 없는지 음식모형이 든 바구니를 뒤지며) 먹을 거 다 없어

교사: 승우가 뭐 만들었어?

승우: 다 만들었어.

교사: 승우이가 차린 상을 보고 수박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이건 뭐야

승우: 호박

교사: 수박 먹고 싶은데

승우: 수박 2개 있으니 이거 먹어 다 먹고 이거 하나 또 줄게

2010. 10. 3 승우관찰

낮잠시간에도 담임교사가 아이들의 잠자리를 준비하며 이불을 펴는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듯이 교사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승우: 할아버지 집에 뽀로로 베게 있어
교사: 어떤 게 좋아 뽀로로 베게가 좋아 (어린이집에 있는 승우) 베게가 좋아
승우: 뽀로로 베게.

(2010. 10. 15 승우관찰)

블록영역에서 윤찬, 지우, 연우가 꽃모양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다.
윤찬: (꽃블록을 길게 끼우고 교사를 향해 자신이 만든 모형을 보여준다)포도 아이스크림
지우: 나도 만들고 있어요.
교사: 뭐 만드는데
지우: 딸기 아이스크림
지우: (다 만들고 교사에게 가져가서) 이거 먹어봐요
교사: 너무 커서 다 먹으면 배부를 텐데
지우: 소리 없이 웃는다. 잘라 줄까?
교사: 네

(2010. 11. 10 정민관찰)

6단계 적응에서 승우는 언어적 상호작용이 많아졌으며, 또래와 뿐 만 아니라 교사와의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었다. 승우는 이제 등원할 때도 힘들어하지 않았고 점심, 낮잠을 잘 때도 잘해 주었다. 낮잠 후 간식을 시도하였을 때도 거부하지 않았으며, 귀가 시 차량으로 집에 갈 때까지 엄마를 찾거나 불안해하지 않았다. 가끔 장난도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승우가 어린이집 생활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놀이에 참여하고 몰입하는 모습과 친구들과의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더 활발히 보이고 있었다.

(3) 변형된 적응 6단계: 민규의 또래와 함께하기2

민규의 적응 6단계는 또래와 함께 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친사회적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민규는 적응단계를 거치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갖기 시작했으며 일과와 또래에 적응을 하기 시작하였다. 늘 또래와 교사에게 또는 부모에게서 거부를 받았던 경험이 사라지면서 또래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혼자놀이를 하거나 친구의 놀잇감을 빼앗는 행동

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고 과격한 행동이 다소 약해졌다. 5단계에서 교사는 민규가 또래를 때리거나 어울리지 못하였을 때 늘 옆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감싸주었고 민규가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였다. 6단계 적용에서는 교사가 민규가 친구들을 찾고 놀이에 관심을 표현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민규의 마음은 받아들이며 또래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교사의 노력으로 민규의 행동은 조금씩 변화되었다.

정민과 윤찬은 블록영역에서 놀고 있었다. 민규가 윤찬과 정민의 놀이를 보며 블록영역의 교구장위의교구를 서성이며 둘러보고 만져 보고 있다. 놀이에 참여를 하고 싶은지 한참을 만지작거리기만 하고 확실하게 놀이를 정하지 못한 듯 손과 몸을 흔들거리며 서 있었다. 그러다 윤찬과 정민이 있는 곳으로 가서 앉아 블록을 같이 가지고 놀다가 바로 다시 일어나서 다른 블록 바구니를 만지작거리며 친구가 놀이하는 것을 쳐다보았다.

(2010. 12. 27 정민과 민규관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구와 놀이하고 싶을 때 친구의 놀잇감을 뺏던 민규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또래의 놀이를 지켜보는 행동으로 또래에게 관심을 보였다. 즉, 또래의 주위를 서성이면서 한동안 관찰하였고, 잠시 옆에서 놀이를 시도하기도 하면서 함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보였다. 지금까지와 같이 교사는 민규의 요구나 행동을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민규의 행동과 감정 표현을 수용하고 많은 요구에 응해 주면서도 교실에서 필요하고 기대되는 행동을 민규에게 알려주었다. 민규는 이러한 교사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친구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어 정리를 하는 중 친구들이 인형을 던지며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야기를 하자 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교사가 던지는 시늉이 재미있었던지 처음에는 인형을 던지며 따라 했지만 교사가 점심시간임을 알리고 정리를 하자고 말을 하자 민규는 스스로 인형을 제자리에 정리를 하였고 처음으로 도시락을 꺼내 자리에 앉아 식사준비를 하였다.

(2010.12. 30 민규관찰)

민규의 변화는 놀라 왔다. 아직까지 갑작스럽게 다가가거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거부하거나 손으로 때리려는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나왔지만 민규가 준비할 수 있도록 천천히 다가갈 경우 민규는 거부하지 않았다.

연구자: 민규야 우리 민규가 왔어?

환 규: (얼굴표정은 웃으면서 말은 버릇처럼)싫어

연구자: 싫어? (민규의 얼굴을 보고 소리 내어 웃었다.)

환 규: 연구자가 막 웃자 민규도 웃는다.

연구자: 조심스럽게 민규와 스킨십을 취한다.

환 규: (연구자의 스킨십에도 거부하지 않았고 친구들이 연구자에게 안기자 민규도 스스로 다가와 안긴다)

(2011. 1. 5 날짜 민규관찰)

설 연휴가 지나고 민규가 첫 등원을 하였다. 5일을 쉬고 원에 등원하였기에 많은 걱정을 하였고 민규는 엄마와 떨어질 때 울고 헤어졌다. 그러나 들어와서 바로 울음을 그쳤고, 간식을 먹은 후 유희실에서 연구자를 처음 보았을 때에 밀쳐 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다.

유희실에서 연구자를 보자 민규는 연구자에게 달려와 안아 달라고 하면서 꼭 안기었다. 지금까지 주말을 지내고 원에 왔을 때 연구자를 보면 다시 밀쳐 내면서 오지 말라고 하거나 손으로 치는 행동을 보였으나, 오늘은 그런 행동들이 나오지 않았다. 민규의 행동에 너무 기뻐서 꼭 안아주면서 얼굴을 가까이서 마주 보았고 “이렇게 예쁜 민규가 어디서 나왔지?” 하고 묻자 민규는 큰 미소를 지으면서 “엄마 뱃속에서”라고 대답을 하였다.

(2011. 2. 7 민규관찰)

민규는 교사뿐 만 아니라 또래와의 상호작용에도 적극적이었으며 놀이 참여도 활발해졌다. 아래의 사례들에서 보듯이 민규는 조금씩 친구들의 존재의 필요성을 느끼며 즐거움을 찾고 있었다.

식사 후 자유놀이시간에 친구들이 소꿉영역에 모두 모여 놀고 있었다. 친구들이 의자 두 개를 모아 소꿉영역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관심을 보이더니 다시 나온다. 이것저것 살펴며 기웃거리다가 계속해서 관심거리를 찾아 돌아다닌다. 하나둘씩 소꿉으로 모였고 민규는 계속 주변을 돌아다닌다. 민규는 친구들과 떨어진 소꿉에서 음

식모형으로 음식을 만들어 교사에게 먹어보라고 갖다 준다. 다시 소꿉놀이에서 음식을 만들어 친구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자기가 만든 음식을 놓는다. 계속 음식을 만들어 와 친구가 있는 곳으로 가서 놓고 왔다.

(2010. 1. 11 민규관찰)

유희실에서 민규가 정민의 손을 잡고 다녔다. 미끄럼을 타러 갈 때 손을 잡고 가더니 정민이 올라가는 것을 보아 준다. 다시 내려와서 손을 내밀었다. 늘 친구들과의 거리를 두고 장난감을 빼앗거나 밀었던 민규가 교사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친구의 손을 잡고 다녔다.

(2011. 1. 13 민규관찰)

민규가 친구들에게 관심의 표현으로 놀잇감을 빼앗는 행동을 자주 보여 왔지만 적응과정을 통해 빼앗는 행동이 줄어들면서 처음으로 친구들에게 자신이 만든 음식을 가져다주는 친사회적인 행동으로 관심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민규가 수아를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 수아는 같은 반 여자아이로 조용한 성향을 가졌지만 친구들과의 어울림에서 늘 배려하는 아이이다. 어린이집에서 또래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놀이에 재미를 더 해 주고, 엄마가 없는 곳에서 의지가 되는 존재이며, 행동과 언어를 습득하고 친사회적인 행동을 배울 수 있는 존재이다. 민규의 어린이집 일과 적응에서 교사의 도움으로 환경에 적응을 하였고 좋아하는 친구가 생기면서 관계형성에 빠른 발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민규의 변화는 가정에도 연계되어 어린이집에 대한 민규어머니의 신뢰를 불러일으켜 더 많은 협조가 이루어졌으며 민규의 행동은 더욱 빠른 속도로 향상되었다. 즉, 동생의 출산과 엄마와 관계변화로 인해 힘들어했던 민규는 어린이집의 일과에 즐거움을 느끼면서 가정에서 엄마와 동생과의 관계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집에서 민규가 머리를 바닥에 짚는 행동이 많이 줄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집에 와서 배운 노래도 하고 친구이야기도 해요. 수아 이야기를 하는데 좋다고 하면서 집에 데리고 와도 되냐고 해서 된다고 했더니 다음날 어린이집에 가서 수아에게

말했나 봐요. 그런데 수아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약간 풀이 죽었어요.

(2010. 12. 31. 민규어머니와의 면담)

민규가 집에서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화를 내는 게 10이라면 지금은 3정도예요 동생이랑 놀아줄 때도 달라졌어요. 고리 두개를 끼워 발에 걸고 신발이라고 걸으니까 동생이 하고 싶어 칭얼거리며 만지려 하니 예전 같으면 손으로 동생을 밀었을 텐데 동생한테 고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발을 넣지 못하니까 손으로 발을 들어 하나씩 넣어 주고 그 다음 걸지 못하니까 손으로 한발씩 옮겨 주면서 “자 손잡아” 하면서 데리고 왔다 갔다 했어요.

민규를 볼 때 예전에는 화가 가득 찬 아이 같았는데 요즘은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빠도 민규가 요즘 너무 변했다고 좋아해요

(2011. 1. 18. 민규어머니와의 면담)

2. 학기 중 입학한 영아의 초기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

영아의 보육시설 초기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이다. 영아가 보육시설에 적응하는 것은 물리적 환경, 하루일과, 또래, 보육교사와 같이 눈에 보이는 보육시설의 구성요소에서부터 규칙과 같이 보이지 않는 요소까지 그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다. 영아는 새로운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자신을 조절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그 차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자신을 조절하는 일이 영아들에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학기 중 입학한 영아들의 초기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영아의 보육시설에 대한 사전 경험, 영아의 기질, 가족구성원의 변화와 또래친구의 변화로 나타났다.

1) 구성원의 변화: ‘동생이 생겼어요.’

영아들에게 동생이 생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승우와 민규는 동생이 생기면서 부모의 양육적인 문제로 인하여 어린이집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

승우의 경우 동생의 경험이 있었으므로 두 번째 동생에 의한 갈등은 별로 없었지만 민규는 동생이 생기면서 많은 심리적 갈등을 경험했고, 동생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입학하게 되었다.

유희실에서 민규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데 미끄럼틀 밑에서 동생이 올라오려 하자 민규는 동생의 얼굴을 향해 손을 올리자 엄마가 재빨리 동생을 안아 올리고 민규를 향해 “안 돼” 라고 한다. 민규는 격하게 화를 내며 엄마를 때리면서 운다.

(2010. 11. 10. 민규관찰)

민규의 적응을 위해 동생을 잠시 영아반 교사에게 맡긴 후 동생을 데리러 엄마와 함께 아기 반으로 들어갔다.

동생: (엄마를 보자 엄마의 무릎에 앉으려고 한다)

민규: (엄마 무릎에 앉으려는 동생을 밀치며 큰소리로) 안 돼.

(동생을 밀치고 엄마 무릎에 앉아서도 다른 영아반 동생들이 장난감을 만지려 하자 손으로 밀치며) 야~ 내 꺼야.

동생: (엄마에게 다가와서 무릎에 다시 앉으려 한다)

민규: (가지고 왔던 핸드벨을 동생에게 던지려 하며) 안 돼 저리가

교사: (동생이 다치지 않도록 안고 교실을 나간다)

민규: (동생이 나가는 모습을 보자 바로 엄마 무릎에서 내려와 엄마와 상호작용을 하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놀이를 하였다)

(2010. 11. 11. 민규관찰)

동생이 생겨서 어린이집에 맡겨지는 영아들은 동생으로 인해 자신이 엄마에게서 거부당한다고 느끼는 듯하다. 아직 엄마의 품이 필요한 영아들이 터울이 얼마 되지 않아 동생이 생기면서 엄마를 동생에게 빼앗긴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동생을 싫어하거나 괴롭히게 된다. 부모는 동생 탄생으로 인해 양육부담이 커졌고 따라서 큰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영아에게는 커다란 스트레스였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영아의 보육시설 적응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었다. 또한 또래와의 관계에도 부적응을 나

타내며 보육교사와의 애착형성에도 매우 힘들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민규 또한 이러한 불안감으로 엄마와 함께 하는 적응기간 내내 엄마를 곁에 두려는 행동을 강하게 보였다. 이러한 민규의 행동은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행동임을 알 수 있었다.

민규가 집에서도 동생을 많이 싫어해요. 또 저에게 “엄마, 미워.”라는 말을 많이 하고 동생이 싫다는 말도 해요. 동생이 태어나서 민규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거든요. 처음엔 민규가 너무 어려서 둘 다 집에서 보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2010. 11. 16 민규어머니와의 면담)

2) 민감하고 예민한 기질: 부적응에 대한 기억

예민한 기질로 인하여 정민과 민규는 부적응 경험이 있었으며, 승우는 낯선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심하여 환경이나 사람에 대한 적응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부모님과의 면담에서 정민과 민규, 승우 모두 매우 예민하고 까다로운 기질임을 알 수 있었다.

예전에 어린이집에서 아침등원 때마다 어린이집 앞에서 떨어질 때 심하게 울었고 수업에 방해가 될 정도였다고 영아 수첩에 써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여 병원에도 데려가 보았어요. 병원에서는 까다로운 기질인데, 그 중에서도 아주 많이 예민하고 까다로운 편이라고 하였으며, 건강상 문제는 없다고 했어요. 저녁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깨서 그치지 않고 울었던 적이 많아요.

(2010. 11. 10 민규어머니와의 상담)

집 외에는 낯선 곳에서 음식물을 입에 대지 않아요. 그리고 집에서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오면 음식을 먹지 않는데 도시락을 먹었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도시락을 준비하면서도 승우가 먹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2010. 8. 18. 승우 어머니와의 상담)

어린이집 적응에 있어 부적응을 경험하였던 영아들은 두 번째 적응을 하기 위해서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집에 들어오면

엄마와 헤어져서 혼자 오랜 시간동안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엄마가 가 버릴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정민의 경우 이사로 인하여 어린이집을 옮기게 되었지만 분리불안으로 인하여 매일 울면서 엄마와 헤어졌으며, 민규는 준비가 되지 않은 분리로 인하여 8개월 동안 심한 부적응을 경험하였고 또래와 교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어린이집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으며 부모님의 협조가 요구되었다.

문 앞에서 들어오기를 주춤하였으나 교사가 엄마와 함께 들어오라고 하자 들어왔다. 교사가 가까이 가려하면 바로 엄마 옆에 더 바짝 붙었으며, 교사와는 전혀 상호작용을 하려하지 않았다.

(2010. 8. 17 정민관찰)

정민은 어린이집이란 곳이 엄마와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자유롭게 탐색을 하지 못하고 불안해하였다. 그러나 엄마와 함께 한다는 말에 안심을 하였다.

정민이가 어제 집에 가서 기분이 좋았으나 봐요. 그래서 내일 또 가자고 했더니 엄마랑 같이 가냐고 물어서 같이 간다고 했더니 안심이 되는지 자기도 내일 간다고 했어요.

(2010. 8. 18 정민 부모상담)

승우가 오전 일과에 적응을 하면서 등원 시 엄마와 힘들이지 않고 헤어졌으나 아직까지 어린이집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승우의 어머니와 상담을 하였다.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는 안 간다는 소리 없이 잘 나와요. 그런데 어린이집 문 앞에서 오늘 잘 놀고 오라고 하면 제 입을 손으로 막으며 말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고 잠시 동안 가만히 있다가 들어가고 해요 아마도 마음을 다지는 것 같아요. 승우에게는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2010. 8. 19승우 어머니면담)

아직까지 어린이집의 생활은 승우에게는 큰 도전인 듯하다. 변하지 않고 익숙해진 가정의 세계에서만 있던 승우는 어린이집 세계로 들어오는 것은 스스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하였다. 연구자는 승우를 관찰하면서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다. 승우는 변화와 새로움을 낯설어 한다. 일례로 B반에서 곡식으로 꾸미기 활동을 하고 있었다. 다양한 곡식을 영아들에게 주며 풀이 칠해진 종이에 자유롭게 붙이도록 하였는데 다른 영아들과는 달리 승우는 곡식의 한 가지 종류를 다 붙이고 나서 다른 종류의 곡식을 붙이기 시작하였고, 이렇게 종류별로 분류해서 붙여 나갔다. 승우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도 꼭 자신의 의자를 책상 속으로 밀어 잘 정리하였으며, 친구들이 그냥 나간 의자를 하나하나 책상 안으로 정리를 하는 성향을 보였다. 상담을 통해 집에서 이러한 성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승우가 또래들의 어순선하고 자유로운 행동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또래들의 규칙적이지 않은 움직임과 자유로움, 놀잇감들이 널려 있는 교실바닥에 승우가 점차 익숙해져 간다는 것을 승우의 표정과 자유로워지는 행동을 보면서 알 수 있었다.

3) 또래친구의 변화

정민은 2010년 9월 17일 종일반 적응을 마치고 연휴를 지내고 와서도 어린이집을 낯설어 하지 않았으며, 엄마가 늦게 오는 날도 힘들이지 않고 어린이집 생활을 하였다. 잘 적응하고 있던 영유아의 부적응을 발견하는 것은 교사가 아닌 부모님에 의해서가 많으며, 적응된 영·유아의 경우 교사가 신입아의 경우처럼 민감하게 관찰하기 않기 때문이다. A반 교사 또한 정민에 대한 관심이 신규영아인 민규에게로 집중되면서 정민의 부적응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정민은 부모님과의 상담에서 부적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관찰을 실시하였다. 잘 적응되었던 정민이가

어린이집 생활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한 시점에서 단짝 친구인 윤찬과 우영이 퇴소를 하였다. 즉, 정민과 함께 놀이를 하던 친구들이 없어지게 되었고 얼마 후 A반에 민규가 입소를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교사는 힘들게 적응을 하고 있는 민규에게 모든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정민에 대해서는 적응이 되었다는 생각에 안심하고 있는 듯하였다. 정민은 놀이 상대가 없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놀이 상대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였고 적극적이지 못한 정민은 그러한 행동에 바로 놀이 참여를 포기하는 경향을 보였다.

민규의 적응과 맞물려서 정민이 또래 놀이친구들을 잃게 되었고 혼자놀이를 하게 되면서 배회하거나 놀이의 집중시간이 줄어들게 되었다. 어린이집에서 함께 놀이할 친구가 없게 되자 어린이집 생활에 대한 흥미를 잃어 갔지만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면서 커다란 부적응 행동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와의 상담 전까지 정민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정민이 며칠 전에는 민규한테 맞은 날인데 집에 와서 인형한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해서 너무 놀랐어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정민이 민규한테는 하지 못하고 인형한테 화풀이를 한 거 같아요.

저도 넘 화가 나서 정민아 친구가 때리면 하지마라고 해 그리고 확 밀어…….이렇게 하면서 너무 화가 나서 아이한테 때리라고 했더니 “때리는 거 싫어” 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애한테 뭘 시켰나 싶기도 하고…….엄마의 입장이 이런 거 같아요.

(2010. 12. 15 정민어머니와의 상담)

정민은 매우 착하고 여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영아이다. 어린이집 첫 적응 때는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주양육자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많았지만 이전 경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으며 적응 후에는 순한 성향으로 또래와 잘 어울렸다. 먼저 친구를 공격하거나 놀잇감을 가지고 싸우는 일도 없었으며, 친구가 원하면 늘 양보했고 교사의 말에 순종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정민은 함께 놀이했던 친구의 퇴소와 민규의 입학으로 어린이집

생활에 변화가 생겨 불안해했다.

오전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정민은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는 무엇인가 만들며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았으나 자세히 살펴보니 블록을 끼웠다 뺐다 하며 단순한 반복행동만 하며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민이는 이렇게 혼자서 같은 동작을 반복 하면서 시선은 다른 친구들의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다. 정민은 소꿉영역에서 여자 친구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며 다가가려 했지만 아현이가 “너 오지 마” 라고 거부를 하자 바로 물러서서 블록 영역으로 다시 가서 앉았다. 집중을 하지 못하며 몸을 계속 비틀었고 공간을 조금씩 움직이며 다녔다.

(2010. 12. 20 정민관찰)

더욱이 새로 입학한 민규가 또래들에게 과격한 행동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방어하거나 맞서지 못하는 정민을 더욱 힘들게 하였다.

정민이 화장실에서 좋지 않은 표정으로 나왔다. 교사가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하지 않아 화장실에서 민규와 같이 있었음을 알고 “민규가 때렸어?”라고 묻자 끄덕인다. 교사가 정민을 안아주고 “힘들지?” 라고 말을 해주며 다독여 주었다. “민규가 어린 이집에 늦게 와서 아직 잘 몰라서 그래 이제부터 선생님이 정민이 도와줄게 힘들면 선생님한테 말해”

(2011. 1. 5 정민관찰)

교사는 민규가 정민이 옆에 있을 때 정민을 때리는 행동을 미리 막기 위해 늘 관찰을 하였다. 또한 게임이나 바깥놀이 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혼자놀이를 하고 있을 때 같이 놀아주었으며 다른 친구들의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정민에 대한 이러한 교사의 지지와 배려는 큰 힘이 되었으며 부적응의 강도가 조금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며 웃는 모습을 다시 보이기 시작하였다.

다음은 부모참여수업을 통해 정민이가 엄마와 함께 활동을 하면서 자신감을 찾고 있었고, 교사가 준비한 여러 가지 활동과 교실의 변화는 어린이집 생활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해주었다. 정민과 민규의 부모님이 서로에 만나게 된 계기를 통하여 정민이의 어머니가 민규를 이해하려고 하면서 정민

이의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

오늘은 부모참여수업이 있어 정민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을 하였다. 든든한 지지자인 엄마가 함께 하자 불안해하지 않았으며 유희실에서 풍선을 가지고 친구들과 신나게 던지면서 놀이를 하였다. 땀이 날 정도로 신나게 놀았고 엄마가 곁에 있어서인지 자신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민은 참여수업 내내 말이 많아졌다. 연구자가 묻는 질문에 바로바로 대답을 하였고 묻는 말 이외의 신이 난 듯 무척이나 말이 많아짐을 알 수 있었다.

(2011. 1. 21 정민관찰)

민규가 어머니와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정민이도 신이 났는지 말이 많고 민규도 화면으로 보기와는 다르게 괜찮네요. 이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2011. 1. 21 정민이 어머니와의 상담)

정민의 어머니가 민규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민규의 어머니가 미안함을 표현하면서 민규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민규에 대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민규도 오늘은 엄마와 함께 여서인지 동생이 함께 왔음에도 동생에게 때리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으며 또래와의 활동에 부적응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어린이집에 입학한 영아들은 한 시점에서 볼 때 적응이 되었다가도 다른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부적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때 교사는 영아들의 놀이와 생활을 관찰하여 부적응행동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부적응 요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야 하며 방법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3. 학기 중 입학한 영아의 초기 적응을 돕기 위한 교사의 전략

어린 영아가 친숙해 있던 가정을 떠나 어린이집에서 더 오랜 시간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아와 가족, 그리고 교사 모두에게 지속적인 적응의 과정을 요구하는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다.

적응하기의 과정은 영아가 처음 입학하여 등원할 때 부모, 교사간의 만남

과 헤어짐을 중심으로 영아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부모와 헤어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점차 물리적 환경이나 하루 일과에 적응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어린이집 교사는 영아가 부모와 헤어져 교사에게 안정감을 느끼고 가정이 아닌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영아의 적응 과정을 돕는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김영희, 2003)

본 연구에서도 영아가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교사의 영향은 절대적임을 알 수 있었다. 교사는 영아와의 관계 형성을 위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영아의 관심에 반응하고, 부모와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영아의 적응을 도왔고, 초기 적응 기간 동안 영아와 점차 안정된 애착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영아가 교사를 신뢰하고 기관에 안정되게 적응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교사의 전략은 학기 중 입학한 영아들의 적응을 돕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교사의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오후의 낮잠 시간 이용하기

기존의 초기적응 프로그램은 3월 입학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1~2주 주 양육자와 함께 하여 보육 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학기 중 입학한 영아의 경우 이미 적응이 된 영아들과 함께 적응을 해야 하는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기존 영아들에 대한 돌봄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영아에 대한 배려가 용이하지 않았다. 또한 이미 적응이 된 영아들은 신규영아의 부모가 있을 경우 놀이나 수업에 집중을 할 수 없게 되므로 교사들이 준비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힘들 뿐 만 아니라 기존의 영아들을 보육하면서 신규영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고 상호작용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예전엔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새로운 아이가 오면 바로 교실에서 적응을 시켜야 하는데 들어올 때부터 엄마랑 떨어지지 않으려 하고 억지로 떼어놓는 것도 할 짓이 아닌 거 같지만 또 좀 지나면 울지 않으니까 원래 힘들어하면서 적응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의 수업은 할 수 없을 때가 많았던 거 같아요. 새로 온 아이가 울면 달래고, 다른 친구들한테 방해 되니까 데리고 나가고 하다 보면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얼른 갔으면 하는 마음에 엄마가 올 때를 기다리게 되고, 그랬던 거 같아요. 아이도 적응 안 되고 저도 적응 안 되고, 만약 민규 같은 아이가 예전에 들어왔다면 아마도 적응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2010. 12. 2. 24 A반 교사 면담)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 참여 어린이집에서는 학기 중 입학한 영아들의 적응시간을 기존의 영아들과 함께 하는 오전이 아닌 오후 낮잠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신규로 입학하는 영아는 최적의 상태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낮잠을 자고 오도록 하였으며 어린이집의 낮잠시간에 교사, 영아, 부모가 함께 적응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적응 첫날 승우의 적응을 위하여 유희실에서 엄마와 함께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유희실은 영아들의 관심을 끌 수 있으며, 넓은 공간으로 인하여 영아들이 공간의 제약을 덜 받고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다. 승우는 많이 경직이 되어 엄마와 함께 들어왔고 교사는 엄마와 승우를 놀이기구로 유도하였다. 승우의 엄마가 “와 저거 승우가 좋아하는 미끄럼틀이다” 하며 승우 미끄럼틀을 타도록 이끌었으나 승우는 선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한참을 앉지도 않고 서서 있었으며, 온몸이 경직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활동적인 놀이를 하기에는 무리일 것 같아 교사가 교실의 블록과 자동차 등을 꺼내어 승우가 서 있는 곳으로 가지고 나왔다. 엄마가 앉으면서 승우를 앉혔고, 놀잇감을 승우에게 보여 주면서 놀이를 시도하였다. 교사는 승우에게 놀잇감을 꺼내어 주고 조금은 떨어진 곳에서 승우를 바라보고 있었으나 승우는 교사의 낯선 시선을 의식하고 놀잇감을 만지지 않고 경직이 된 상태로 앉아 있었다. 교사는 승우의 불편함을 인식하고 잠시 바라보기를 하지 않았고 다른 일을 하는 연출을 하여야 하였다.

(2010. 8. 2 승우관찰)

이러한 배려를 통해 교사는 신규영아를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었으며, 부모와의 세심한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입 영아의 적응에 도움이 되는 듯하였다. 또한 기존의 영아들의 보육에도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1~2주간의 적응은 오후에 진행하였으며, 보육시간을 늘려 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2) 멀리서 미소로 바라보기

영아들이 어린이집이라는 낯선 환경에 놓였을 때 입소경험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교사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내었다. 재미있는 놀이거리가 많음에도 경계심 때문에 처음에는 다가가지 못하였고, 주위의 환경을 관찰하며 주양육자와 함께 서서히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교사는 영아와 주양육자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거리를 두고 바라봄으로써 안전감을 주게 되며, 교사는 영아의 놀이를 관찰하면서 환경에 적응이 되었을 때 환경에 서서히 다가가는 것이 적응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승우는 등원하였을 때 불안감이 심하여 온몸이 경직을 보였고 교사가 반갑게 다가가지 더욱 경직이 되었다. 교사는 승우가 할머니, 엄마와 함께 편안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거리를 두고 승우를 관찰하였다. 어쩌다 교사가 바라보고 있음을 느끼면 하던 행동을 멈추어 버리는 승우를 위하여 무관심함을 연출하면서 하였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흥미를 느끼는지 불안해하지 않는지 세심한 관찰을 하였다. 이는 입소 전 부모 상담을 통하여 승우의 성향을 파악하였고 관찰하면서 승우가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였고 교사는 승우에게 자동차 장난감을 가져다주면서 다가가기 시작하였다. 이 때 승우는 약간의 흥미를 보이고 장난감을 만졌으며 주양육자와 함께 교사와의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2010. 8. 3 승우관찰)

정민은 입소경험이 있었으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부모와 분리를 경험하면서

부적응을 겪은 경험 때문에 입소 상담 때부터 어린이집에 들어오려 하지 않았다. 적응을 시도하면서 정민이에게는 엄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었고 엄마와 함께 놀 수 있도록 교사가 다가가지 않고 멀리서 바라보기만을 하였다. 정민은 엄마 외에 다른 사람이 접근을 하면 바로 행동을 멈추었기 때문에 엄마와 함께 할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였다. 엄마와 함께 일주일 이상을 보낸 후에야 교사가 정민이 주변으로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흥미를 유도하였다.

(2010. 8. 23 정민관찰)

민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첫 등원에서 교사가 맞이하려 하자 경직이 되었으며 강하게 거부반응을 보였고, 엄마를 동생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서 엄마 외에 다른 사람의 접근을 강하게 거부하였다. 이런 민규에게 다가가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지만 민규가 또한 점차 교사의 접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민규는 입소경험이 있었으나 심한 부적응으로 퇴소를 경험하였기에 더욱 경계심을 나타내었다. 첫 등원 시 입소 경험이 있는 정민이와 같이 문 앞에서 주춤하였고 엄마와 함께 들어오라고 하자 들어왔다. 교사의 반갑다는 말에 엄마 뒤에 숨어 버렸고 교사가 가까이 가려하면 바로 엄마 옆에 더 바짝 붙었으며 교사와는 전혀 상호작용을 하려하지 않았다. 교사는 초기적응기간 동안 민규가 준비될 때까지 주변에서 바라보고만 있었으며, 상호작용을 억지로 시도하지 않았다.

(2010. 11. 11 민규관찰)

3) 친구 되어 주기

학기 중 입학 영아들의 개인적인 배경은 적응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낯선 공간의 불안함과 또래가 익숙하지 않은 신입 영아들은 함께 놀이하며 이해해줄 친구가 필요하며 이런 역할을 교사가 해주었다. 특히 주양육자와 분리를 시작하면서 교사의 친구 되기 역할은 영아들에게 또래와의 관계를 배울 수 있는 모델링이 되었다. 또한 교사와의 놀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영아들은 자신감을 얻어 또래를 놀이에 참여시키기도 하였다. 다음은 승우의 행동이 매우 즐거워하며 움직임이 많은 모습을 보고 교사와 상담을 하였다.

승우가 요즘은 매우 기분이 좋은가 봐요. 승우이가 소꿉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데 특히 음식을 만들어 상차림 하는 것을 좋아해요 모든 소꿉을 다 꺼내서 상위에 모두 올려놓

고 음식을 차려요. 얼마 전에는 계속 저한테 말을 시키고 소꿉에서 뭔가 자꾸 만들어 먹으라고 가져와요. 그래서 제가 먹고 또 다른 거 만들어 달라고 하면 또 만들어 오고, 맨날 웃고 다니고 아주 신나 하네요.

(2010. 9. 30 B반교사면담)

다음은 신규 영아들이 교사와 놀이를 하면서 교사의 반응에 즐거워하며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놀이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친구를 초대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며 놀이가 확장되는 사례이다.

승우: 이거 먹어. 초콜릿이야
교사: 초콜릿이야?
승우: (장난 끼 있게 웃으며) 아니 사탕이야
교사: 사탕이야?
승우: 응 토마스 사탕이라 이 안 씹어.
승우: (갑자기 옆에 있는 민지에게 막대 인형을 주면서)사탕이야
교사: (승우를 도와)이거 토마스 사탕이라 이 안 씹는데
승우: 웃는다.

2010. 9. 20 승우관찰

블록영역에서 윤찬, 정민, 연아가 꽃모양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윤찬: (꽃모양 블록을 길게 끼우고 교사를 향해)포도 아이스크림
정민: (윤찬의 행동을 보고)나도 만들고 있어요.
교사: 뭐 만드는데
정민: 딸기 아이스크림
정민: (다 만들고 교사에게 가져가서) 이거 먹어봐요
교사: 너무 커서 다 먹으면 배부를 텐데
정민: (소리 없이 웃다가) 잘라 줄까?
교사: 네

2010. 9. 14 정민관찰

정민은 교사와의 놀이를 하면서 즐거워했으며 교사에게 존댓말을 쓰다가 무의식중에 반말을 하기도 하였다. 어머니와의 상담 시 정민은 편안하고 친근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어리광을 부리듯이 반말을 가끔 한다고 하였다. 교사의 친구 되기 역할은 정민에게 편안함과 친근감을 느끼게 하면서 적응에 도움을 주었다.

4) 전폭적인 지지자 되어 주기

주양육자와 함께 하는 적응 과정을 거친 영아들은 분리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자신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자가 없는 상황에서 교사는 영아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지자의 역할을 하였다. 전폭적인 지지자 되어 주기는 신입 영아들의 어떠한 행동에도 영아를 비난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것이며 이러한 교사의 역할은 영아들의 신뢰를 얻어 적응에 도움을 주었다.

민규는 주양육자와 함께 하는 적응과정을 거친 후에 분리에 대한 불안은 심하지 않았지만 또래와의 관계에서 많은 부적응 행동이 나타났다. 또래를 때리거나 장난감을 빼앗고 침을 뱉는 행동에 교사는 지지자의 역할을 잃지 않았다. 교사는 민규의 행동에 다른 친구들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우렸고 민규가 에게 말로 안 된다고 설명을 하였지만 부드러운 태도를 취하면서 비난하지 않았다. 민규의 부적응 행동은 버릇처럼 익숙해진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에 대한 비난보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지지자가 되어 주었다. 엄마와 떨어져 의지의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교사가 민규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거부하였다면 민규는 교사에게 신뢰를 갖지 못했을 것이고 적응에 실패를 하였을 것이다. 민규의 어떠한 행동에도 비난하지 않고 받아 주는 지지자의 역할은 교사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였으며 신뢰가 형성되자 민규는 힘들어하지 않고 교사의 지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다음은 민규의 거부반응에 교사가 비난하지 않고 지지를 해주는 사례이다.

교사: (반갑게 다가가서) 민규가 왔어?

민규: 손으로 밀치며 침을 뱉는다) 가. 싫어

교사: (조금 떨어져서 스킨십 없이) 민규가 오늘도 씩씩하게 왔구나.

민규: 바로 웃는다.

(2010. 12. 13. 민규관찰)

추운 날씨에 민규가 양말을 신지 않고 놓고 있는 모습을 보고 교사가 다가갔다.

교사: (발을 만지려 하며) 민규야 안 추워?

민규: (갑자기 화를 내며 연구자의 행동에 손으로 때리려는 행동을 하였다) 하지 마! 막 때 릴 거야! 내가 얼마나 무서운데! 난 괴물이야!

교사: (교사는 민규를 꼭 안아서 제압하며) 이렇게 선생님 때리면 선생님은 못 하게 꼭 안아야 돼 (기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고 풀어 주며) 아니야 괴물은 밖에 아주 높은 산에 가면 거기에 있지 민규는 괴물 아니야 이렇게 예쁜 괴물이 어딴어?

민규: (아무 말이 없었지만 싫어하지 않았으며, 기분이 좀 나아진 듯했다.)

교사: 우리 민규가 눈도 이쁘고 코도 이렇게 이쁘고…….

민규: 얼굴에 약간의 미소가 있었다.

(2010. 12. 14. 민규관찰)

승우는 또래와의 놀이할 때 갖고 싶은 놀잇감이 있어도 친구가 가지고 놀고 있으면 다른 놀잇감을 가지고 놀거나 바라보기만을 하였으며 갖고 싶다는 표현을 하거나 교사에게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승우는 친구가 집에서 가지고 온 토마스 기차가 마음에 들었는지 다시 친구가 가져가자 화를 내며 빼앗기지 않으려는 행동을 보였다. 승우는 기차 장난감이 친구가 집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친구의 빼앗는 행동에 속상한 감정을 나타내었다. 교사는 승우가 표현하는 속상함을 이해하고 승우의 요구를 인정해 주었다.

승우: 태훈이가 집에서 가지고 온 토마스 기차를 가지고 있다가 태훈이가 가지고 가자 태훈의 옷을 손으로 꼭 잡고 격양되어 놓지 않는다.

교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교사는 승우이의 모습을 보고서 승우와 태훈에게 와서) 왜 그래 승우야? 태훈이가 기차 가져가서 속상해?

승우: (화가 난 상태로 태훈이를 계속 꼭 잡고 있으면서) 때릴 거야~때릴 거야~ (손에 힘이 들어가서 교사가 손을 때려 하지만 놓지 않는다)

교사: 태훈이가 기차 가져가서 속상해? 기차는 태훈이 꺼야 지에서 가져온 거야?

승우: (약간 울먹이며) 왜 집에서 가져와?

교사: (태훈에게) 태훈아 승우가 기차 가지고 놀고 싶대 한 번 가지고 놀게 해 줄래?(태훈은 승우에게 토마스 기차를 내어 주었다)

(2010. 11. 2 승우관찰)

5) 또래와 디딤돌 역할하기

주양육자와 분리가 된 오전 일과 적응에서 낮선 또래와의 관계는 또 하나의 적응거리가 된다. 교사와의 애착이 형성된 영아는 교사의 지지를 얻고 있지만 오전 일과속의 교사는 재원아들의 돌봄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영아가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고 또래를 인정할 수 있도록 교사는 친구들과 과의 사이에서 디딤돌의 역할을 하였다. 교사는 또래의 놀이에 신규영아를 참여시키고 또래와의 관계를 익힐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영아에게 놀이의 기쁨을 알게 해주었고, 자신감을 주어 또래를 놀이에 참여시키게 하였다.

양치가 끝나고 교실에서 교사가 영아들의 손을 잡고 큰 둥근 원을 만들어 안으로 들어갔다 밖으로 나왔다 하며 큰 원과 작은 원을 만들면 놀이를 하고 있었다.
교사가 영아들의 손을 잡고 원을 만들어 뒤로 나가면서 “꽃잎이 폼어요.” 안으로 들어오면서 “꽃잎이 오므라들었어요.” 라고 하며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양치질을 마치고 들어온 민규는 재미있는 듯 웃으며 바라보자 교사가 “민규 끼워 주자” 라며 민규를 놀이에 참여 시켰다. 민규는 자연스럽게 친구들 사이에 들어와 손을 잡고 함께 원을 만들어 보는 놀이를 하며 신나는 듯 웃었다.

(2011. 12. 23 민규 관찰)

교사는 민규가 흥밋거리를 찾기 못하고 서성이는 모습을 보고 또래들의 놀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함께 또래를 관찰하였다.

민규는 자유롭게 걸어 다닌다. 몸에 힘을 빼고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관심이 있는 곳에 가서 잠시 서성이기도 하면서 주위를 관찰하고 놀고 있었다. 그러다 교사에게 와서 무릎에 앉았다.

교사: 친구들이 뭐하고 있어?

민규: 친구들을 쳐다본다.

교사: 컴퓨터 놀이 하네(친구들이 매트를 자판처럼 손으로 치면서 놀고 있었다)

민규: 가만히 듣고 있다.

(2011. 12. 16 민규관찰)

교사는 민규에게 또래와의 관계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칭찬해 줌으로 인해 또래들 앞에서 민규를 인정해 주었고, 민규의 친

사회적 행동에 또래들이 고마워하고 있음을 알려주게 함으로써 또래와의 관계를 배워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등원하는 대로 교사가 미술작업을 준비해 주었다. 민규는 자리에 앉아 움직임 없이 그대로 앉아서 교사가 미술재료를 줄 때까지 기다린다.

교사: (미술재료를 주면서)민규야 여기 붙여 봐

민규는 집중을 하여 풀로 색종이조각을 붙이고 스케치북에 붙이는 작업을 하였다 20분 정도 그대로 앉아서 작업을 하였다. 수인이가 등원하였고 미술작업을 하기 위해 민규가 옆에 앉았다.

교사: 민규야 수인이 풀 좀 빌려줘

작업을 마친 민규가 수인에게 풀을 건 내 준 후, 옆에서 가베 교구를 가지고 놓고 있는 아현에게 아현이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가베 막대 하나를 가져다가 준다.

아현: 선생님 민규가 빌려줬어요.

교사: 민규한테 고맙다고 했어? 민규야 고마워해

아현: 네

(2011. 1. 13 민규관찰)

소꿉놀이를 하며 상처를 좋아하는 승우가 음식을 만들어 친구를 초대하려 했지만 수줍어하며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을 교사가 인식하였고, 승우의 마음을 또래에게 대신 알려줌으로써 친구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였다.

승우: 맛있어 먹어

교사: 승우가 친구들에게 같이 놀이를 하고 싶지만 제안을 소극적으로 하자 친구들에게 대신 큰 소리로 알렸다) 애들아 승우가 맛있게 음식 차렸어, 와서 먹어

승우: 교구장 위에 상을 차려 서서 먹어야 되는 것을 인식하고) 서서 밥 먹으면 안 힘들어

성현: 나는 까까 준비했어. 먹자

교사: 성현아 승우한테 까까 먹자고 초대해 봐

성현: 까까 준비했어. 먹어

승우: (수줍은 듯 돌아서서 나가 버리며)안 먹어~(얼굴을 웃으면서 멋쩍어 하였다)

교사: 까까 준비했데. 먹어

승우 (수줍어하지만 미소를 지으며) 안 먹어

승우는 다시 혼자 음식을 만들며 놓고 친구들의 모습을 관찰하며 조심스럽게 반응을 보였다.

(2011. 10. 5 승우관찰)

V. 논의 및 결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학기 중 입학하는 만2세 영아들의 적응과정을 연구하여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적응 상황을 이해하고, 적응과정에서 보이는 행동에 대한 분석과 과정의 흐름을 탐색하여 학기 중 입학하는 영아들의 초기 적응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위해 2010년 8월 2부터 2011년 2월 25까지 총 30주간 E어린이집 만2세 A, B반 입소 영아와 주양육자, 교사를 대상으로 학기 중 입학 초기적응 프로그램을 참여관찰하고 그들의 어머니와 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이를 전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유사한 항목별로 범주화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기 중 입학하는 영아의 초기적응을 돕기 위한 적응 프로그램은 개별적인 입학 시기에 맞추어 분리되어 실시되었다. 이는 어린이집의 영아들의 입학 시기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보다는 영아들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불규칙하게 입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초기 부적응의 문제로 어린이집을 떠나는 영아의 비율(27.68%)이 유아보다 더 많기 때문(박윤배, 1996)에 어린이집에서는 부적응으로 떠난 영아들의 자리를 다른 영아로 채우고자 하는데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기 중 입학하는 영아들의 초기적응 프로그램은 영아들의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영아들의 적응과정은 1, 2단계로 구성된 보호자와 함께 하는 개별적 적응과정인 ‘오후 적응 과정’

과 3, 4단계로 구성된 보호자 없이 오전 일과에 적응하는 ‘오전 적응 과정’, 5, 6단계로 구성된 어린이집 종일 일과에 적응하는 ‘종일 적응 과정’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1, 2단계인 ‘오후 적응 과정’은 각 단계별로 1주씩 진행되었으며 영아의 개별 적응을 위하여 오후 낮잠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개별 적응 기간 동안 신규 영아는 주양육자(부모, 조부모)와 함께 등원하여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을 자유롭게 탐색하였고, 흥미 있는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를 하였다. 영아들이 실내 놀이터에 놀러 온 느낌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사는 안전요원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영아의 놀이행동, 기질과 성향, 부모와의 상호작용 등을 관찰하였다. 교사와의 애착형성을 위하여 환경에 익숙해진 영아에게 놀이를 제안하고 주양육자와의 물리적 거리를 둠으로써 점차 보호자와의 애착관계를 교사에게로 전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 단계로의 적응을 위하여 잠깐 동안 보호자와의 분리를 시도하였으며, 영아가 분리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 때 다음단계로의 적응을 시작하였다. 3, 4단계인 ‘오전 적응 과정’은 보호자 없이 오전 일과에 적응하는 단계이며, 일과 적응을 단계별(점심 전, 점심 후)로 실시하였다. 각 단계는 1주씩 진행되었으며, 일과 적응을 위하여 영아들의 식습관을 배려했다. 영아들은 교사를 지지기반으로 낮선 또래를 관찰하고, 놀이에 참여 하면서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해 나갔다. 5, 6단계인 ‘종일 적응 과정’은 각 단계별로 최소 1주씩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영아들의 안정된 적응을 위하여 관찰을 계속 하였다. 교사는 영아들의 낮잠 지도를 위해서 애착물건이나, 집에서 쓰는 베게 이불을 가져오도록 하고 영아의 잠잘 때 버릇, 잠자는 시간 등을 파악하였다. 귀가 시간은 또래들이 귀가를 시작하는 시간인 5시까지로 하여 영아가 또래들이 귀가하는 모습을 보며 힘들어 하지 않도록 배려했다.

그러나 영아들의 적응과정이 너무 느리거나 빠를 경우 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앞의 단계를 줄이거나 늘리는 등의 융통성을 부여하여 실시되었다. 영아의 적응행동은 영아의 인구학적 변인과 기질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이영숙, 2006)에 반영해 볼 때 민규는 자신의 까다로운 기질과 동생의 탄생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어린이집 적응이 더욱 힘들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집중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시기인 영아(Recchia, Berr, & Hsiung, 1998; 김현주, 2011에서 재인용)를 위한 적응프로그램이 민규에게는 필요했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그러므로 또래와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보인 민규를 위해 수정 보완된 ‘변형된 5단계 적응 과정’은 영아가 가진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한 적응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민규와 같은 영아의 초기적용 프로그램은 단계별 진행에 앞서 개별 영아의 적응속도에 맞는 프로그램의 속도 조절이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

초기적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영아들은 보호자와 함께 하는 1, 2단계인 ‘오후 적응기간’ 동안에 보호자를 안전기지로 옆에 두고 어린이집 환경을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호자와의 물리적 거리를 점차 넓혀 나가고 보육교사와 애착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보호자와 분리를 시작하여 오전 일과에 적응하는 3, 4단계에서는 등원 시 보호자와의 분리불안을 보였지만 오후 개별적응과정을 통해 보육교사와의 애착이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보육교사를 안전기지로 불안을 달래며 또래와 함께하는 일과에 적응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4단계에서는 영아들은 분리불안을 보이지 않고 또래와 놀이에 참여하며 일과에 적응하였지만 식사지도에서 편식 등 개인적인 성향이 작용하였으므로 힘들어하였다.

보호자와 분리되어 낮잠을 자고 귀가하는 5, 6단계 종일반 적응단계에서는 보호자와의 분리불안을 보이지 않았으며, 또래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활발해지고, 또래와 교사를 놀이에 초대하는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시도하였다.

개인적인 성향을 고려하여 종일반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변형 5단계는 또래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교사가 함께 또래를 관찰하였고 상황에

따라 모델링과 칭찬을 하는 전략을 시도하였다. 또래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보인 민규는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친사회적 행동을 보였다.

둘째, 학기 중 입학한 영아들의 초기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영아의 보육시설에 대한 사전 경험, 영아의 기질, 가족구성원의 변화와 또래친구의 변화로 나타났다.

영아들의 학기 중 입학을 하게 된 배경을 보면 어머니의 임신이나 동생의 출산으로 부모가 양육부담을 겪게 되어 어린이집에 맡겨지는 경우, 이사 또는 주양육자가 더 이상 보육이 불가능할 경우와 타 어린이집에서 적응에 문제를 보여 퇴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부적응 문제를 보인 영아의 경우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기질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기질은 입학배경과 맞물려 더욱 적응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였다. 이는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는 순한 기질의 유아보다 적응을 잘 못한다는 선행연구들(장은혜, 2000; 천희영, 1997)을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영아 3명 중 2명이 어머니의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양육부담으로 학기 중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아직 엄마의 보호가 필요한 만 2세 영아들에게 동생의 출산이라는 가족구성원의 변화는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어린이집의 적응을 거부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어린이집 부적응으로 인한 퇴소의 원인이 되었으며, 재적응 시 엄마와 분리될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적응 초기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요인이 되었다. 이런 입학배경은 주양육자인 어머니에게는 죄책감으로 다가왔다. 동생이 생기면서 양육에 대한 부담과 거부하는 영아를 보육시설에 보낼 수밖에 없는 미안함은 아이가 더 잘 적응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주양육자의 역할은 Bowlby(김창대 역, 2009)의 연구에서 영아는 보호자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보호자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영아가 확인하게 되며, 영아는 더

만족한 상태로 더 멀리 탐색을 하거나 놀이를 하러 이동한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 영아의 2명은 이전의 교육경험이 있으나 모두 분리불안을 보이며 부적응을 경험하였다. 이전의 교육경험이 있는 유아는 교육경험이 없는 유아보다 유치원에 더욱 잘 적응한다는 연구(손인숙, 2001)가 있지만, 학기 중 입학 배경 중 부적응 경험이 있거나 분리불안의 경험이 있는 경우 초기적응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보육시설의 경험이 있는 신입원아들은 이전 경험의 질에 따라서 다른 적응과정을 보인다는 구수연(2004)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결과이며, 보육경험의 유무에 따라 교실 적응행동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김현주, 2000)와 2~3세 때 유아원에 다녔던 어린이들과 다니지 않았던 어린이들의 적응에 뚜렷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Brown & Hunt, 1961)와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이는 영아들에게 보육시설에 대한 이전 경험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에 따라 현재의 적응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보육시설을 처음 경험하는 영아들에게 초기 적응에서의 성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셋째, 학기 중 입학하는 영아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교사의 전략은 오후의 낮잠시간 이용하기, 멀리서 미소로 바라보기, 친구 되어 주기, 전폭적인 지지자 되어 주기 및 또래와의 디딤돌 역할하기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사의 적응전략은 영아들의 적응과정의 양상과 그 흐름을 같이 하여 영아의 적응을 돕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영아들의 적응 과정에서 나타난 관심의 전이 양상은 주양육자에서 교사에게로 다시 또래에게로 애착과 관심이 전이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영아의 요구에 대해 교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영아가 환경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게 하며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게 한다(Ainsworth & Rell, 1980). 따라서 오후 낮잠시간을 이용한 개별적인 적응시간은 보육교사에게

영아를 관찰할 수 있는 기간이며 관찰을 통하여 영아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 이 기간 동안 교사는 적극적으로 다가가기보다 영아들의 놀이와 주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멀리서 바라보기’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주 양육자와 함께 어린이집에 친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영아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주양육자와 떨어져 또래와 함께 하는 오전 일과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 영아의 행동에 민감하고 적절한 반응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빠른 시간 안에 영아와 신뢰감을 형성해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교사의 적응전략은 영아의 심리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신뢰감을 통해 믿어 주고 기다려 주는 자세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교사의 역할을 ‘전폭적인 지지자’의 역할로 영아는 보호자가 없는 적응시간동안 지지자인 교사를 옆에 두고 놀이에 몰두하며, 또래와 관계를 배워 나가며, 스스로 성취감과 기쁨을 맛보게 되므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주양육자와 애착이 형성된 영아는 초기 적응 단계인 오후 적응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환경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주양육자에게서 안정감을 느끼며 떨어지기를 불안해했지만, 오전 일과적응 기간 동안에는 점차 다양한 놀잇감을 제시해주고, 자신을 배려해주는 주양육자와 모습과 역할이 비슷한 교사에게로 관심과 애착이 전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 어린이집 일과에 적응이 된 5, 6단계인 중일반 적응 기간 동안은 처음에는 거부되었던 또래와 또래와의 놀이에 관심이 전이되면서 어린이집에서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불안정한 적응을 단단히 다지는 양상을 보였다. 교사의 적응 전략 중 친구 되기, 친구와의 디딤돌 역할은 이러한 영아들의 적응양상과 흐름이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낮잠시간을 이용한 적응시간은 이미 적응된 재원아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신규영아가 재원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함을 알 수 있었다. 이때 교사는 신규영아들을 집중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어 개별성향을 배려할 수 있게 되었고, 신규영아는 자신을 배려해 주는 보육교사를 느끼고 애착을 형성할 수 있었으며, 주양육자와 분리를 편안하게 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아가 새로운 공간에도 익숙해야 하지만, 보호자를 대신해 어린이집에서 영아를 책임지고 지도하고 보살피 주는 교사라는 새로운 대상과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영아가 보호자를 대신하는 성인, 즉 교사와 새로운 애착관계를 맺으면서 새로운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우현경,1998, 이용주, 2002, 심현정, 2003, 채영란, 2008) 교사는 영아의 친구로서, 전폭적인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영아들의 초기 적응을 도와주었다. 또한 안정적인 영아-교사와의 관계는 보육시설 환경 속에서 영아들의 탐색활동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Hamillton & Howes, 1993). 이처럼 어린이집에서 부모를 대신할 안정적인 대상을 만들 수 있도록 교사가 영아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부여하고 제반 여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멀리서 미소로 바라보기 전략은 신규영아들이 어린이집이라는 낯선 환경에 놓였을 때 교사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교사는 영아가 주양육자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거리를 두고 바라봄으로써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이때 교사는 영아의 놀이를 관찰하면서 환경에 적응이 되었을 때를 파악하고 서서히 다가감으로써 신규영아와의 애착형성을 도울 수 있었다.

초기적응을 돕기 위한 전략에서 친구 되기 역할과 친구들과의 디딤돌 역할은 주양육자와 분리로 인한 불안함과 익숙하지 않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보육교사가 놀이를 함께할 친구가 되어 주고 또래와의 관계에서 어울릴 수 있도록 디딤돌의 역할을 해줌으로써 또래와의 관계를 익힐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영아에게 놀이의 기쁨을 알게 해주었고, 자신감을 주어 또래를 놀이에 참여시키게 하였다.

교사는 신규영아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하여 전폭적인 지지자로서의 역할

과 믿어 주고 기다려 주는 역할을 하였다. 주양육자와 분리된 영아의 불안감을 인식하고 안전기지로써의 역할을 위하여 교사는 영아들의 어떠한 행동에도 비난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받아 주었고, 영아가 적응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다려 주었다.

넷째, 영아의 적응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다. 어린이집에 적응된 경우라도 교실세계의 환경 변화에 의해 부적응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관심을 가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류경(2000)의 연구에서는 등원적응에 있어서 영아에 따라 초기 적응과정 6주 동안에 점진적인 적응을 보이기도 하고 점진적인 부적응을 보이기도 하며, 이용주(2002)의 연구에서 적응과정 중에 영아들의 부정적인 행동이 증가하는 시기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구수연(2004)의 연구에서는 영아의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영아들의 행동은 적응과 부적응 상태가 반복되며, 적응상태 혹은 부적응상태 중 어느 하나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계속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영아의 적응을 단순히 어느 순간에서의 ‘적응여부’로 결과로 보기보다는 ‘적응과정’의 측면에서 해석하고 영아들의 행동을 통해서 영아의 적응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6단계 어린이집 일과에 모두 적응을 보였던 정민이가 교실세계의 변화, 즉 교사의 관심 변화, 새 친구의 입소, 놀이상대의 부재로 인하여 부적응을 보였으며 부적응 행동으로 어린이집 등원 거부, 놀이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적응 후 부적응을 겪는 과정은 적응과정에서의 일반적인 특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아들의 적응은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보육교사는 영아의 적응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영아들이 보이는 행동을 관찰하여 각 영아들이 지닌 문제를 분석하고, 그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기 중 입학 영아의 적응을 위한 오후 개별적인 적응 프로그램의 실시는 신입영아에게 안정적인 적응에 도움을 주었다.

학기 중 입학 영아를 위한 초기적응 프로그램은 오후 개별적응 단계를 통하여 신규영아들은 순차적으로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에 적응하고 교사와의 애착을 형성하고, 또래와의 만남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규영아가 오전일과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낯선 또래와의 함께 하면서 일과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학기 중 입학하는 영아들을 위한 초기 적응 프로그램은 학기 초에 실시하는 적응프로그램과는 구별되어 실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학기 중 입학하는 영아들의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영아의 까다로운 기질 인한 부적응에 대한 경험과 형제자매의 출산으로 인한 가족의 변화, 이사로 인한 또래 친구의 변화임을 알 수 있었다. 부적응으로 인한 퇴소의 경험이 있는 영아는 까다로운 기질 특성을 보였는데 이는 주양육자에게도 양육의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동생의 탄생과 같은 가족구성원의 변화는 영아에게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킴으로써 보육시설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보였다. 이에 교사는 영아들의 행동에 제재를 가하기보다 영아의 상황을 마음으로 이해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기다려 줌으로써 신입 영아에게 신뢰와 함께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 주었고 이를 통해 영아들은 어린이집에 적응해 나갔다. 즉, 학기 중 입학하는 영아들의 입학 배경은 영아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응과정이나 방법 또한 달라져야 한다.

셋째, 학기 중 입학 영아의 적응을 위해 교사들은 오후의 낮잠 시간을 활

용하여 신입 영아들로 하여금 보육시설과 교사에 대해 자연스럽게 적응하도록 유도하였다. 낮잠시간을 활용한 초기적응 프로그램은 신입 영아들에게 교사와의 개별적인 시간을 제공하였을 뿐 만 아니라 기존 영아들의 생활을 보호하는데도 적절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신입 영아들이 어린이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1주 동안 영아와 보호자의 놀이를 지켜보거나 영아의 행동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현하는 등의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교사의 행동 전략은 영아에게 신뢰감을 주었으며 이를 통해 영아는 어린이집과 새로운 상황에 대한 낯설음을 극복해 나감을 알 수 있었다. 교실 상황에 들어가서 교사는 신입 영아와 기존 영아들 간에 디딤돌 역할을 하거나 놀이친구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교사의 전략은 신입 영아의 적응 부담을 덜어주고 기존 영아들과 또래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와주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아는 한 반의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안정되어 감을 알 수 있었다.

넷째, 학기 중 입학 영아들의 적응은 교사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기 초 힘겨운 적응과정을 끝내고, 새로이 영아가 입소를 하게 되면 다시 적응을 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 특히 기질이 까다롭거나 예민한 영아가 입소할 경우 기존의 영아들을 보육하면서 입소아의 적응을 담당한다는 것은 영아를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에게 큰 부담이 되어 버리고 새로운 영아의 적응에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학기 중 입학 영아의 경우 영아에게 교사가 낯설듯이 교사에게도 신규영아는 낯설기 때문에 서로에게 애착을 형성할 시간이 필요하다. 학기 중 입학하는 영아들을 위한 초기적응 프로그램은 이러한 경험을 영아와 교사 모두에게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입학 기간이 다양한 영아들을 위한 학기 중 입학영아를 위한 초기 적응 프로그램과 이를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 맥락인 학기 중 입학영아를 위한 개별적인 시간의 배려와 개별적인 적응전략은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이전의 영아의 초기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이 보육시설 초기적응 실시여부, 필요성, 실행방법에 대해 설문조사한 보육교사의 인식 연구와 신학기 입소한 영아를 대상으로 단체 적응과정을 초기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관찰한 질적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영아들의 입·퇴소가 빈번한 어린이집 실정을 고려하여 학기 초 적응 프로그램이 끝난 후 학기 중 입학 한 영아를 대상으로 이미 적응된 또래와의 적응을 돕고, 재원아들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학기 중 입학 초기적응 프로그램의 실시과정과 영아의 적응과정을 세밀하게 기술함으로써 학기 중 영아들의 적응 방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였다.

둘째, 학기 중 입학 영아의 입소배경은 학기 초 입소영아의 배경과 비교하여 더 예민하고 민감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인해 영아의 행동변화를 줄 수 있었으며, 영아의 양육을 가정과 함께 담당하는 곳이라는 신뢰를 줄 수 있었다.

셋째, 어린이집 영아의 퇴소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적응이며, 이중 영아의 초기 적응 실패로 인한 퇴소율이 더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학기 중 입학 영아의 적응과정을 탐색하는 본 연구는 부적응 퇴소로 인한 영아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넷째, 초기적응 프로그램과정은 보건복지부의 초기적응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각 시설에서 적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초기 적응과정을 영아의 입장에서만 배려하고 있다. 적응과정은 교사와 영아가 함께 하는 과정이므로 교사의 실시여건도 함께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초기적응을 위한 오후시간 활용은 초기적응 과정을 실시하는 교사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도록 여건과 초기적응 운영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교사가 영아를 더 잘 이해하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주양육자와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참고 문헌

- 곽금주·김민화·한은주 (2004).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 방식과 영아기 사회적 의사소통능력. **아동학회지**, 25(5), 111-128
- 구수연 (2004).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구수연 (2005). 적응적 측면을 고려한 1-2세 영아 프로그램 방향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회지**, 9(3), 191-210.
- 김민지 (2000). 어머니의 격리불안 및 아동의 기질과 그들의 종일반 탁아에서의 적응.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경 (2004). 학령전기 아동의 애착안정성 및 어머니의 분리 행동스타일과 초기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소희 (2006). 영아초기 적응프로그램에 대한 실태 및 교사의 인식도 조사.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 (1996). 기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2), 19-29
- 김영희 (2003) 신입영아의 적응에 관한 실태 조사. **동남보건대학 논문집**, 21(2)
- 김영애 (2008). 보육시설 영아 적응프로그램이 애착안정성과 적응행동에 미치는 효과. 전주산업대학교 벤처창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미 (2007). 영아의 초기 적응을 위한 교사의 보육활동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진(2003). 영아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하(2003). 낮선 상황에서 영아들의 애착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연 (1996). 대상에 따른 영아의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수 (2008). 만 1세 영아의 보육시설 초기적응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은 (2006). **보육과정**. 서울: 창지사.
- 김진아 (2004). 영아의 애착안정성 및 기질과 보육시설 초기적응간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 (2000). 취원전 보육경험 유무에 따른 아동의 교실적응행동에 대한 교사의 신념.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 (2011). 보육시설 적응 프로그램의 개별 실시에서 나타난 영아의 적응과정.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희진, 김영애 (2008). 영아 초기적응 지도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실태, **유아교육연구**, 28(1), 5-25
- 김창대 (2009). **역서, 애착·인간행동에 대한 과학적 탐구**. 서울: 나남. John Bowlby, Attachment
- 도현심 (1998). 인성특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12), 1-9
- 류 경 (2000). 보육시설 초기적응과정의 영아행동 특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진희 (1999). 유아의 양육자에 대한 애착안정성과 문제행동 및 적응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경자·김송이·권연희·김지현 (2009).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과 교육. 서울: 교문사.
- 박성미·이지희·김정신(1996). 보육시설에서의 적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영유아보육연구**, 1(1), 57-71
- 박윤배 (1996). 삼성수정 어린이집 운영 1년의 정리, **아동연구**, 5, 74-87
- 백경숙 (1997). 영유아의 종일제 보육시설 적응에 영향을 주는 관계 변인 탐색.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백청강 (2007). 시설영아의 기질과 보육사 애착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1997). **초기적응지도**.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09).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부 (2010). **평가인증 지침서**. 보건복지부.
- 유가효·이소희·한성심·장미경·조은영 (2000). **보육학개론**. 서울 : 동문사.
- 서수경 (1993). 유아의 행동과 기질 및 성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은숙 (2008). 영아 교사의 역할에 관한 어머니와 교사의 인식 연구. 한국성서대학교 보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소재진 (2006).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을 위한 교사의 지도 방법 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인숙 (2001). 유아의 유치원 적응 관계요인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혜진 (2007). 2세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초기적응 및 놀이성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주연 (2006). 생태유아교육기관 영아들의 초기적응관정에 관한 질적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현정 (2003). 보육시설 초기적응에 대한 보육교사 인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

- 원 석사학위논문.
- 심현정 (2003). 영아의 새로운 환경의 적응 과정 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여성부 (2005). **2005년도 보육사업안내.**
- 오종은 (2001). 영아의 애착안정성과 어린이집 초기적응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현경 (1998). 걸음마기 유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영미 (1990). 유아의 기질 및 그 관련 변수와 유치원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가효·이소희·한성심·장미경·조은영 (2000). **보육학개론.** 서울: 동문사
- 이동영 (2009). 어린이집 영아의 초기적응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및 지도 방법.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은 (2004). 어머니 양육태도와 초기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화 (1996). 유아의 기질과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석 (1998). 영아발달수준 확인 연구. 어린이집 영아반 교사의 관찰평정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5(1),** 263-302.
- 이영숙 (2006). 유아의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유아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44(5),** 143-155
- 이용주 (2002). 영아의 어린이집 생활세계 구성 과정.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용주 (2004). 어린이집 적응과정에 나타난 만 1세 영아의 체험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9(3),** 169-193.
- 이유진 (2010). 만 1세 신입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과정에서 또래의 의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경 (2006). 어린이집에서의 영아 초기적응프로그램 실시 현황.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진희·임진형 (2004). 영아전담 보육교사의 어려움과 요구분석. **한국보육학회지, 4(2),** 193-215.
- 이현경 (2002).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에 관한 연구. **동남보건대학논문집, 20(2),** 255-272
- 장영희 (2000). 방과후 아동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행

- 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은혜 (200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질이 유치원에서 유아의 초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 연구**, 28(1).
- 장혜성·서소정·하지영 (2008). 0-36개월 영아발달선별 검사도구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아동학회지**, 26(5), 13-30
- 전미경 (2003).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초기적응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옥분 (2007). **영유아 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지성애·김영주·엄정례·조경서 (1995). **영아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서울: 정민사.
- 천희영 (1997). 어머니가 지각하는 한국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에 관한 질적 연구. **아동학회지**, 18(2), 191-211.
- 채영란·박희숙·김희정 (2008). 1세 영아의 보육시설 적응 프로그램 및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지**, 12(2), 41-67
- 최현자 (1994). 어린이집 개원과 운영에 관한 실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창간호 62-84
- 홍운정 (2004). 영아의 보육시설 초기적응 지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hn, H. J. (2005). Teachers' dussions of emtion in chid care cent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32(4), 237-242.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Hillsdale, NJ: Erlbaum.
- Ainsworth, M, & Bell, S. (1970). Attachment, exploration and separation: Illustrated by the behavior of one year olds in a strange situation. *Child Development*, 41, 49-67.
- Ainsworth, M. D. S, & Bell, 1980. Attachment, exploration, and seperation Illustrated by the behavior of one-year-olds in a strange Situation. *Child Development*, 41, 49-67.
- Atwater, E. (1979). *Psychology of Adjustment; Personal Growth in a Changing World*. Prentice-Hall; 김인자 역(1982), 적응심리; 변화하는 세계에서 의 개인성장, 정민사.
- Atwater, E. (1978). *Psychology of Adjustment; Persomal Growth in a Changing World* Prentice-Hall; 김인자 역(1982), 적응심리; 변화하는 세계에서 의 개인 성장, 정민사.
- Bogdan, R. C., & Biklen, S. K. (2003).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 introduction to theory and methods (4rd ed). Boston, MA: Allyn and Bacon.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 by nature and Designe*. Havard university press: 이영 역(1992), 인간 발달 생태학, 교육과학사.
- Bronfenbrenner, u (1994). Human and ecology: Concepts and perspectives. 인간 생태학적 측면에서 가정학, 연세대학교 3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움 자료집, 3-28.
- Brown. a. W, & Hunt, R. G. (1961). relation between nursery school attendance and teachers ratings of same aspects of children's adjustment in kindergarten. *Child Development*, 32, 586-896
- Feldman, Robert. S. (1989). *Adjustment, Applying Psychology in Complex World*. McGrow-Hill, Inc
- Hamillton, C. E, & Howes, C. (1993). The changing experience of child care : Changes in teachers and in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With pe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 15-32.
- Hughes, M., Plewis, I, & Pinkerton, G. (1979). Children's difficulties on starting infant school.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0, 187-196.
- Lazarus, R. S. (1976). *Patterns of Adjustment*. New-York : McGrawHill.
- New, R. (1999). Here, we call it "drop off and pickup': Transition to child care, American-style. *Young Children*, 54(2), 35-36
- Papalia, D. E. (1989), *A Chile's World: Infancy through adolescence*, Third edition McGraw-Hill Bood Company, 이영, 조영순 공역(1991), 아동의 세계: 태내기에서 청년기 발달까지, 양서원
- Raikes, H. (1993). Relationship duration in infant care: Time with a high ability teacher and infant-t.eacher attachment.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 309-325.
- Seidman, I. E. (2006).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for researchers in education and the social sciences* (3rd ed.). New York: Teacher College Press.

ABSTRACT

A Study on Early Adaptation Process of the Newcomer Toddlers entering Child Care Center during the Semester

Chun, hyun ju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not only adaption to child care center of 2-years old or younger toddlers who entered the center during the semester but also teachers' strategies.

The research subjects were as follow:

Firstly, how can do early adaptation process of the newcomer toddlers who entered child care center during the semester?

Secondly, what factors can make the toddlers have difficulties to adapt them to child care center?

Thirdly, what strategies do teachers have to help the toddlers adapt to child care center?

The subject was three newcomer toddlers entering child care center during the semester and their mothers and two of class teachers. The cultural and scientific way was used. The author watched and investigated the toddlers, mothers and class teachers during 30 weeks from August 2, 2010 to February 25, 2011. The depth interview was used. The author made categories of the material collected according to stages of early adaptation program.

The findings were as follow:

The newcomer toddlers could experience a part of daily work by each stage that was divided into two, that is to say, afternoon process and morning process. The toddlers spent time with guardians at the first stage as well as the second stage that was 'afternoon adaptation time', so that they could learn child care center environment, and they extended physical distance with the guardians gradually at time elapse and started to have affection toward the teachers. The toddlers could lower uneasiness with help of teachers at the 3rd and 4th stage to enjoy plays and to adapt them to playing with peers, taking lunch and taking a nap, and the teachers could cognize dietary habit and sleeping habit of each toddler. At the 5th and 6th stage that the toddlers adapted them to all-the-day class, they left guardians smoothly and talked with peers actively and invited peers as well as teachers to their plays to interact each other actively. At the 5th stage that all-the-day class time was flexibly used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each toddler, a toddler named Minkyu who had a problems with relations with peers was given

modeling and praise depending upon situation to improve relations with peers: Finally, Minkyu started to accept a teacher's advice and showed social behavior.

The toddlers had difficulties at adapting them to child care center in the beginning because of birth of their younger brother or sister, memory of maladaptation caused by sensitive and acute character, and changes of the peers. When a mother asked child care center to take care of her toddler because of pregnancy, birth of baby and other rearing burden, the toddlers felt uneasy to confirm affection toward mother as well as supports from mother and they consciously rejected adaptation to child care center. When a toddler could not adapt him or her to child care center because of acute character, he or she expected of separation from mother to give sensitive reaction and to have difficulties at adapting him or her to child care center. When a peer having good friendship left child care center, toddlers who adapted to the center well in the beginning did not want to attend the center and could not concentrate on plays that was not results but process of adaptation to the center: The phenomenon gave implications of the values of peers to let toddlers adapt to the center in stable way.

The teachers helped toddlers at the beginning to do, for instance, afternoon sleep, watching with smile from distance place, making friend, full supports, and supporters with peers.

The afternoon sleep could protect toddlers' lives at child care center and helped newcomer toddlers meet peers. The teachers could watch

newcomer toddlers intensively to consider characteristics and inclination of each toddler and to let toddlers have affection toward teachers and to separate toddlers from parents smoothly. The teachers made toddlers watch either mother or other fosterer with comfortable mind while keeping a distance to let toddlers adapt to physical environment of child care center smoothly. The teachers play a role of friend and support to help toddlers who had not friendly relations with peers, and to toddlers join plays and to have pleasure while playing games and to keep adaptation. The teachers fully supported toddlers to give comfortable mind. The teachers cognized uneasiness of the toddlers who were separated from fosterer, and played a role of safe guard to understand and accept toddlers' uneasy and uncomfortable behavior, and waited until toddlers could adapt them to child care center.